

인천광역시사 ⑩

# 인천의 관방유적 상

# 일러두기

## 1. 편찬 기본 방침

- 2019년 《인천광역시사》 제10호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지향하면서 인천만의 고유한 역사 문화유산인 『인천의 관방유적』을 정리하였다. 1973년부터 진행된 시사편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의 시사(市史)가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또한 유구한 인천 역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인천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인천 역사가 담긴 ‘관방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 이 책은 현재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인 10개 군구의 역사와 변천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서술체제 및 방법을 포괄하면서 통시대적으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흥미롭게 문화유산과 인천의 오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규격과 판형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형태로 제작하여 시민들의 공감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2013년 〈인천정명 600년 기념사업〉 이후 연차사업으로 『인천 체육의 발자취』, 『인천의 지명』, 『인천의 지지(地誌)와 지도(地圖)』, 『인천의 건축』,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유산』,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 등 주제를 달리해서 1~2권의 『시사』를 편찬하고 있다.

## 2. 집필원칙

-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과제와 최근의 현황을 반영하였다.
- 서술 시기는 전근대부터 개항기까지로 했으나, 편찬과정에서 최근의 발굴 조사 부분 까지를 포함하였다.
- 문장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한자나 외국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이외에 인용문은 원문과 설명문을 차례로 서술하였다.
- 연대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왕력 등을 표시하였다.
- 군구별 관방유적의 위치는 지도에 표시하였다.
- 각주번호는 군구별로 새로 시작하였다.
- 각주에서는 한자를 병기하되 원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하였다.

- 역사용어는 국정교과서의 용례에 따랐고,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항목의 명칭은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 자주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 『 』: 문헌이나 저서명, 「 」: 논문명
  - 《 》: 총서명이나 관보, 〈 〉: 신문, 잡지 기사
  - [ ]: 한글과 음이 다른 한자 표기

### 3. 내용

- 『인천의 관방유적』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하여 인천의 10개 군구에 위치한 관방유적을 조사·정리하고, 고문헌과 지도, 사진 등 수집한 결과를 역사적으로 서술한 인천광역시사이다.
- 『인천의 관방유적』은 모두 2권(상·하권)으로 구성하였다. 상권에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서구가 포함되었고, 하권에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수록되었다.
- 상권은 인천 역사의 원류인 문학산성과 부평·김포평야 일대에서 관방의 중심인 계양산성의 옛 기록을 정리하고, 최근의 조사·연구된 결과를 반영하여 이들 유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윤요호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영종진, 인천 연안의 방비(防備)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된 화도진과 연희진 그리고 중심성의 축성까지를 검토하였고, 이후 제물포의 개항으로 관방의 기능이 상실되는 과정까지 서술하였다.
- 하권은 개경과 한양의 중요한 길목인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관방체제를 강도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왕실의 보장처로 인식된 강화도의 성곽과 봉수, 12진보와 54돈대의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하였고, 아울러 조선 후기 강화도 중심의 관방체제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교동의 관방체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고려시대부터 해상 방어의 전진기지로서 중앙군의 군마공급처로 기능했던 옹진군의 군진과 목장의 운영 등도 옛 기록과 최근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 차례

## 총설

7

## 중구

33

1. 제물량 ..... 39
2. 영종진 터 ..... 43
3. 북성곶(북변, 남변) 포대와 제물(북변, 남변) 포대 ..... 74
4.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영종진 ..... 78

## 동구

113

1. 화도진 ..... 119
2. 묘도(북변, 남변) 포대 ..... 134
3.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의 화도진 ..... 136

## 미추홀구 / 연수구

141

1. 문학산성 ..... 147
  - 1) 내성과 외성
  - 2) 성문
  - 3) 봉수대
  - 4) 안관당
2. 문학산 주변의 관방유적 ..... 174
  - 1) 수리봉 왜성지
  - 2) 문학산 토둔
  - 3) 관교동 토성지
  - 4) 문학산 제사유적
3.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문학산성 ..... 184
4. 『인천고적조사보고서』의 문학산성 ..... 190



## 남동구

193

- 1. 화도진과 인천부 남변포대의 설치 ..... 199
- 2. 논현포대 ..... 206
- 3. 장도포대 ..... 209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213

- 1. 계양산성 ..... 219
  - 1) 계양산성의 현황
  - 2) 계양산성 문헌기록과 도면
  - 3) 계양산성 학술조사
  - 4) 계양산성의 연혁과 역사적 가치
- 2. 중심성지 ..... 247
  - 1) 중심성지의 현황
  - 2) 학술조사 결과와 주요 시설
  - 3) 중심성의 축성 배경
  - 4) 축성 경위와 사적비
  - 5) 중심성의 철거
- 3. 봉수 ..... 256
  - 1) 축곶봉수
  - 2) 백석산봉수
- 4. 연희진 ..... 276
- 5.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계양산성 ..... 288
- 6. 『인천고적조사보고서』의 계양산성 ..... 294



## 1. 인천의 지리적 환경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

인천지역은 고대 백제 한성시대(기원전 18~475년), 그리고 고려시대(918~1392년)와 조선시대(1392~1910년)로 이어지는 약 1천 5백 년 간 세 왕조의 수도를 위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인천은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하류 지역에 위치하면서 서해 연안은 물론 160여 개의 수많은 섬들을 오랜 역사의 현장으로 포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환경으로 인하여 인천지역은 오래 전부터 국방상의 요충지로 인식되었고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

\* 임학성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인천지역이 국방의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였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 문성왕(文聖王) 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을 8월에 혈구진(穴口鎭)을 설치하고, 아찬(阿飡) 계홍(啓弘)을 진의 우두머리로 삼았다.”<sup>1)</sup>

844년(문성왕 6) 8월(음력)에 혈구진(穴口鎭)을 설치하였다는 기사인데, 강화도에 설치된 혈구진은 경기 서해에 출몰하여 예성강·임진강·한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해적으로부터 이 유역을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수군진(水軍鎭) 역할도 병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혈구진은 후삼국시대 왕건(王建)이 고려를 건국(918년)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해상 군사력이 되기도 하였다.

인천의 지리는 물론 역사·문화·사회·경제적 영역에 속한 서해 도서(島嶼) 가운데에는 고려시대 때 수군진이 설치된 백령도(白翎島)도 있었다.

“백령진(白翎鎭)은 원래 고구려의 곡도(鵠島)인데 고려에 와서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진(鎭)으로 하였으며 1018년(현종 9) 진장(鎭將)을 두었다”<sup>2)</sup>

1)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성왕 6년 8월.

2) 『고려사』 지리지 안서대도호부 웅진현.



1018년 백령도에 수군진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었다는 내용인데, 서해에 출몰하는 해적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강화도에는 단군(檀君)이 세 아들을 시켜 쌓았다고 전해 내려오는 삼랑성(三郎城)이 있다고 하였다.

“강화현(江華縣)은 본래 고구려의 혈구군(穴口郡)으로 갑비고차(甲比古次)라고도 한다. 바다 가운데 있으며, … 전등산(傳燈山)은 일명 삼랑성(三郎城)인데 세상에 전하기를 단군(檀君)이 세 아들을 시켜 쌓은 것이라 한다.”<sup>3)</sup>

삼랑성은 전등사(傳燈寺)를 둘러싸고 있는 정족산성(鼎足山城)의 별칭이다. 단군과 관련된 전승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늦어도 통일신라 시기에는 정족산성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강화군 교동면의 화개산성(華蓋山城)과 하점면의 하음산성(河陰山城), 계양구의 계양산성(桂陽山城), 그리고 미추홀구의 문학산성(文鶴山城) 등도 문헌상 그 역사적 사실 관계가 명확치 않으나 대략 통일신라시기 이전을 그 축조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화개산성 또는 하음산성은 『삼국사기』(백제본기 진사왕 8년 10월 및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1년 10월)에 392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공략하여 함

3) 『고려사』 지리지 양광도 강화현.

락시켰다는 관미성(關彌城)으로 비정하기도 하며,<sup>4)</sup> 문학산성은 「광개토대왕릉비문」 396년(영락 6)에 왕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백제를 토벌하고 빼앗았다는 미추성(彌鄒城)으로 비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 인천지역에 있었던 고대 산성들은 지리적 특성상 한강유역을 방어할 목적으로 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강 유역은 삼국시대~후삼국시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여러 나라들의 치열한 격전장이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이후 한강 유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었다. 북방지역에서 발흥한 거란·여진 등의 침입으로 국방의 주요 거점을 북방 국경선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3세기에 들어와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한강 유역이 다시 군사적 요충지로 떠오르게 된다. 몽골[蒙古]의 제2차 침입을 앞두고 고려정부가 강화도로 천도(1232년)하면서 대규모의 산성 및 관방 시설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고려사』에서 확인되는 강화 천도 이후의 성곽 축조 사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4) 화개산성을 관미성으로 비정한 연구는 이병도의 『한국고대사연구』(박영사, 1976)와 김윤우의 「광개토왕의 남하 정복지에 대한 일고 : 관미성의 위치를 중심으로」(『용암차문섭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 1989)가 있으며, 하음산성을 관미성으로 비정한 연구는 윤명철의 「강화지역의 해양방어체제연구 : 관미성 위치와 관련하여」(『사학연구』 58·59합, 한국사학회, 1999)가 있다.

- ① 1233년(고종 20) 강화에 외성(外城)을 쌓았다.<sup>5)</sup>
- ② 1235년(고종 22) 최이(崔怡)가 재추(宰樞)와 의논하고 주군(州郡)에서 일품군(一品軍)을 징발하여 강화도 연강(沿江)에 제방을 추가로 쌓았다.<sup>6)</sup>
- ③ 1237년(고종 24) 강화에 외성을 쌓았다.<sup>7)</sup>
- ④ 1250년(고종 37) 강도(江都)에 중성(中城)을 쌓았다.<sup>8)</sup>

이처럼 강화도에는 천도 후 대몽항쟁을 위한 방어시설이 점차적으로 완비되어 갔는데, 위 기사내용으로 볼 때 강화도에는 내성(즉, 강화산성)과 중성, 외성의 3성 체제를 갖추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가운데 외성은 대략 1233~1237년에 걸쳐 완성되었으며 ‘연강에 제방을 쌓았다.’는 기사에서 보듯이 연안을 따라 제방을 쌓아 만든 토성(土城)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관방 요충지로서 강화도의 중요성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부각되었는데, 17세기 전반 정묘(1627)와 병자(1636)의 두 차례 호란을 겪으면서 유사시에 왕실과 조정이 피난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보장지처(保障之處)’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강화도는 암초에 둘러싸여 있고 물살이 세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지리 환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

5) 『고려사』 병지 성보(城堡).

6) 『고려사』 열전 반역(叛逆) 최충헌 부(附) 최이(崔怡). ; 『고려사절요』 고종 22년 12월.

7) 『고려사절요』 고종 24년 8월. ; 『고려사』 세가 고종 24년 10월.

8) 『고려사』 세가 고종 37년 8월. ; 『고려사절요』 고종 37년 8월.

다. 이에 병자호란 이후 강화도에 다양한 관방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강화도 북-동-남의 연안의 요충지에 설치한 12개의 진·보(鎭堡)와 53개의 돈대(墩臺) 시설이 그것이었다.

## 2. 강화도의 보장처로서의 설정과 관방시설

강화도는 한반도 중앙의 서쪽을 가로지르는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 등의 하구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서해 연안항로의 주요한 교통 요충지였으며, 전략적 요충지로도 기능하였다.

특히 강화도는 1천여 년 동안 수도의 길목 구실을 하였다. 예성강을 통해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들어가고, 한강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수도의 관문 역할을 하였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각종의 생산물을 싣고 올라오는 조운선은 물론이고, 외국과 교류하는 배들이 강화도를 거쳐 서울로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세력이 바닷길로 수도를 침범할 때도 강화도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프랑스와의 병인양요(1866)와 미국과의 신미양요(1871), 일본과의 운요호 사건(1875), 결국 강화도조약의 체결(1876) 등은 모두 강화도가 서울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한편, 강화도는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 보

장을 위한 피난지로 국가적 비중이 큰 지역이었다. 강화의 해안은 간만의 차이가 큰 갯벌로 둘러져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방어에 매우 유리하였을 뿐 아니라, 산이 많고 해안의 굴곡이 심하여 성곽과 진·보(鎭堡), 돈대(墩臺) 등의 방어시설을 설치·확충하기 매우 적합한 곳이었다.

병자호란 이후 강화도에 진·보 시설을 구축하려는 논의가 일찍부터 전개되었다. 그러다가 1656년(효종 7)에 조선전기부터 경기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월곶진(月串鎭 : 수군첨사진)과 초지진(草芝鎭 : 수군만호진)·제물진(濟物鎭 : 수군만호진)을 남양과 안산·인천 등지에서 강화도로 옮겨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효종~숙종에 이르기까지 강화도 3백 여리에 걸쳐 12개의 진·보를 설치하였다.<sup>9)</sup>

진·보의 설치와 아울러 1678년(숙종 4) 이후 돈대를 축조하여 각 진·보에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5개씩의 돈대를 배치하여 연안 방어를 강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1679년(숙종 5)에 48개, 이후 1696년(숙종 22)~1726년(영조 2)에 걸쳐 5개 등, 총 53개의 돈대가 설치되어 강화도의 연안을 방비하게 되었다(〈표 1〉 참조).

9) 박광성, 「병자란후의 강화도방비구축」, 『한국중세사회와 문화』, 인하역사학회, 1991. ; 김성철·이희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6집 : 강화의 국방유적』,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1.

〈표 1〉 조선 후기 강화도의 12진보 현황

진보	설치 시기	위치	관할 돈대	비고
월곶진	1656년 (효종 7)	강화읍 월곶리	적북돈, 휴암돈, 월곶돈, 옥창(옥포)돈	남양에서 이설
제물진		강화읍 갑곶리	망해돈, 제승돈, 염주돈, 갑곶돈	인천에서 이설
용진진		선원면 연리	좌강돈, 용당돈, 가리산돈	-
화도보	1656년 (효종 7)	선원면 연리	(화도돈, 오두돈) → 1710년부터 광성보에서 관할	1710년(숙종 36) 폐지
초지진	1656년 (효종 7)	길상면 초지리	초지돈, 섬암돈, 장자평돈	안산에서 이설
인화진	1657년 (효종 8)	하점면 인화리	무태돈, 인화돈, 광암돈, 작성돈, 귀등곶돈	-
승천보		송해면 당산리	석우돈, 소우돈, 속룡돈, 낙성돈, 빙현돈	-
광성보	1658년 (효종 9)	불은면 덕성리	오두돈, 화도돈, 광성돈, (용두돈)	용두돈 : 19세기에 설치
철곶보	1669년 (현종 10)	양사면 철곶리	철북돈, 초루돈, 불장돈, 의두돈, 천진돈	풍덕에서 이설
정포보		내가면 외포리	건평돈, 망양돈, 삼암돈, 석각돈	교동에서 이설
장곶보	1676년 (숙종 2)	화도면 정화리	장곶돈, 검암돈, 미곶(미루지)돈, 북일곶돈	-
덕진진	1677년 (숙종 3)	불은면 덕성리	덕진돈, 손석향돈	-
선두보	1706년 (숙종 32)	길상면 선두리	택지돈, 후애돈, 동검북돈	1706년 : 선두포 뚝 축조



뿐만 아니라 1691년(숙종 17)에는 외성(外城)을 축조하여 강화도 동부 연안의 방비를 더욱 견고히 하였고, 1710년(숙종 36)에는 강화부 부치(府治) 지역에 해당하는 내성(內城)을 개축하여 방비 구축을 완성함으로써 보장의 중지(重地)로서의 면모를 강화도가 구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 3. 조선후기 인천지역의 수군진 설치와 해방(海防) 시스템

조선정부는 국초부터 해금(海禁)과 함께 해방(海防)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왜란(임진, 정유)과 호란(정묘, 병자)이라는 두 차례의 큰 전란을 겪고 난 17세기 중반 이후로는 해방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대표적인 변화는 이전까지 ‘공도(空島)’ 정책을 추진하던 도서지역에 사람들을 들어와 살게 하는 ‘입도(入島)’ 정책으로의 변환이었다. 아울러 그 결과는 지리적으로 요충지에 해당하는 도서에 수군진을 설치하여 해로와 해안을 방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정부가 취한 도서정책의 결과와 영향은 인천지역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sup>10)</sup> 조선시기에는 중앙정부에서 파악한 인천지역의 도서가 15세기 전반기(『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에 14개(인천 5, 강화 8, 교동 1)

10) 임학성, 「조선시기 경기 도서지역의 공간인식 변화 - 국영목장 설치(조선전기)에서 수군진 설치(조선후기)로 - 」, 『도서문화』 4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4.

에 불과했다(〈표 2〉 참조). 이는 여말선초 왜구의 침략이 빈번하여 도서에 대한 조선정부의 군사적, 행정적 통제력이 극히 제한적이며 미약했기 때문이었다.

〈표 2〉 조선시대 관찬 문헌에 기록된 경기지역의 도서

시기 군현	15세기 전반 『세종실록지리지』	15세기 후반 『신증동국여지승람』	18세기 후반 『동국문헌비고』
인천	자연도, 삼목도, 용유도, 사탄도, 무의도 <5>	자연도, 삼목도, 용유도, 사탄도, 무의도, 원도, 수이도, 연질도, 덕적도, 사야곶도 <10>	자연도, 삼목도, 용유도, 사탄도, 무의도, 원도, 수이도, 알도, 덕적도, 사야곶도, 소도, 팔미도, 월미도, 신불도, 황간도 <15>
강화	매도, 파음도, 금음복도, 미법도, 말도, 장봉도, 주문도, 신도 <8>	매도, 보음도, 금음복도, 미법도, 말도, 장봉도, 주문도, 신도, 거도, 소도 <10>	매음도, 보음도, 금음복도, 미법도, 말도, 보문도, 신도, 거도, 소도, 석모로도, 서검도, 아차도, 소검도, 복도, 향산도, 시도, 월미도, 어리도 <18>
교동	송가도 <1>	송가도, 응암(도) <2>	송가도, 응암(도), 장봉도, 서도 <4>
부평	-	물차도, 호도, 응도, 정자도, 문지도, 청라도, 일도, 장도, 울도, 서천도, 기도 <11>	물차도, 호도, 응도, 정자도, 문지도, 청라도, 일도, 장도, 울도, 서천도, 기도 <11>
계	14개	33개	48개

그러다가 15세기 후반기(『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에 이르면 조선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도서가 33개(인천 10, 강화 10, 교동 2, 부평 11)로 증가하고 있다. 15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기록되지 않았던 부평에 속한 도서가 새롭게 파악 기록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15세기 중엽

이후 왜구의 침략이 멈춤에 따라 도서에 대한 조선정부의 통제력이 증대된 결과였다.

조선시대 도서에 대한 중앙정부의 파악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는 두 차례의 전란을 겪고 난 17세기 후반 이후였다. 이 시기는 국초부터 유지되어 오던 공도정책이 무너지고 입도 및 개발의 방향으로 그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한 시기였는데, 18세기 후반(1770년)에 편찬된 『동국문헌비고』에서 경기지역의 도서가 무려 48개로 파악 기록되고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 이 시기에 증가한 도서는 주로 인천과 강화, 교동에 속한 것들인데, 이는 17세기 후반(효종~숙종 연간) 강화·교동을 중심으로 한 인천 도서지역의 해방체제 구축<sup>11)</sup>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조선후기 정부의 도서정책 변환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국영목장의 폐지로 도서에는 경작 가능한 비옥한 토지가 상당히 있었으며 풍부한 수산자원의 이익 또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도서를 비워놓는 것보다 주민을 입도시켜 편안하게 살게 하면 유사시 외적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농지(屯田)를 경작하여 군량(軍糧)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국방상의 필요 때문도 있었다. 셋째,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술(造船術)과 항해술의 진전으로 도서를 제대로 파악하고 통제하는 게 용이

11) 배성수, 「해양과 방어체제-조선후기 관방을 중심으로-」 『바다와 섬, 인천에서의 삶』,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해졌던 것이다. 넷째, 17세기 말 이후 황당선(荒唐船) 및 해적이 서해지역에 자주 출몰함에 따라 연해 및 도서의 해방 비중이 커졌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다. 다섯째, 조선후기가 인구증가로 인해 농지 및 식량의 부족 현상이 항상적이었다는 점도 그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끝으로, 명·청 교체라는 동아시아 화이질서(華夷秩序)의 급변에 따라 그 동안 명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던 공마(貢馬)가 사라졌고 이에 목마(牧馬)의 필요성이 상당수 감소된 점도 그 주요 배경이었다.

조선후기 도서지역으로의 주민 입도가 다대하게 전개되었던 양상은 1697년(숙종 23) 서울에 몰려든 유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서해 도서지역으로 보내 농지를 개간케 하고 정착시켰던<sup>12)</sup>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1671년(현종 12)에 강화 매음도(煤音島)와 자연도(紫燕島 : 현 영종도)의 목장을 폐지하고 백성들을 모아 경작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sup>13)</sup> 1734년에는 강화 길상목장(吉祥牧場)의 말들을 인근 무의·용유·신도 등의 목장에 나누어 배치하고 길상목장의 비옥한 땅을 백성에게 경작해 먹을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4)</sup>

이렇듯 주민들이 입도하기 시작하면서 인천의 도서지역은 조선후기에 들어와 인구가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경작지도 대폭 증가

12) 『승정원일기』 370책, 1697년(숙종 23) 3월 11일(임술)조.

13) 『현종실록』 권19, 1671년(현종 12) 2월 무신(26일)조.

14) 『영조실록』 권38, 1734년(영조 10) 5월 신축(26일)조.

하게 되었다.

한편, 강화도가 17세기 중엽 이후 보장처로 인식되어 진·보·돈대 등이 설치되는 등 관방의 중핵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그 북쪽에 위치한 교동도에는 경기수영을, 그리고 아래 요해처에 위치한 자연도와 주문도, 장봉도, 덕적도, 영흥도, 대부도 등에는 수군진을 설치함으로써 강화도를 외곽 바다에서 방어하게 하였다. 특히 경기 서해지역은 중국과 서로 마주보고 있어 17세기 말 이후 황당선이 적잖게 출몰하고 있었으며, 조운선(漕運船)이 지나는 요충로였던 관계로 해방처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던 것이다.

조선후기 인천 도서지역에 설치된 해방 시설(수영, 수군진, 진·보, 돈대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조선시대 인천 도서지역의 해방 시설

지역	연혁
강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鎭)·보(堡) 12개와 돈대(墩臺) 53개 설치(17세기 중엽 이후)</li> <li>• 진무영(鎭撫營) 설치(1678)</li> </ul>
교동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南陽)에 있던 월곶진(月串鎭)을 이설(移設)(1629)</li> <li>• 경기수영(京畿水營) 설치(1629)</li> <li>• 삼도수군통어영(三道水軍統禦營) 설치(1633)</li> </ul>
자연도 (영종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南陽)에 있던 영종진(永宗鎭)을 이설(1653)</li> <li>• 첨사진(僉使鎭)으로 높이고 어영청에 소속시킴(1681)</li> <li>• 방어영(防禦營)으로 승격(1690)</li> <li>• 첨사진(僉使鎭)으로 강등(1866)</li> <li>• 방어영(防禦營)으로 다시 승격(1867)</li> <li>• 운양호사건(雲揚號事件)으로 폐진(廢鎭)(1875)</li> <li>• 방어영(防禦營) 복설(1883)</li> </ul>

지역	연혁
영흥도	• 남양(南陽)에 있던 화랑진(花梁鎭)을 이설(1872)
장봉도	• 진(鎭) 설치(1717)
주문도	• 풍덕(豐德)에 있던 철곶진(鐵串鎭)을 이설(1712)
덕적도	• 만호(萬戶) 둔영(屯營) 설치(1652) •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진(鎭)으로 승격(1708) • 진(鎭) 혁파(1723) • 진(鎭) 복설(復設)(1740)
백령도	• 임시로 진(鎭) 설치(1428) • 진(鎭)을 폐지하고 목장(牧場) 설치(1431) • 첨사진(僉使鎭) 복설(1609)
대부도	• 첨사진(僉使鎭) 설치(1871) • 진(鎭) 혁파(1871) • 진(鎭) 복구(19세기 후반)

서해 도서지역에 해방 시설이 설치된 시기는 17세기 이후임을 알 수 있다. 17세기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여진족이 발흥하여 명과 충돌하던 시기로 정묘(1627)년과 병자(1636)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다. 강화도 해안의 요충지마다 12개의 진·보 및 53개의 돈대를 설치한 것과 교동도에 수군진을 두거나 경기도(나중에 경기, 충청, 황해의 3도)의 수군을 총괄 지휘하는 수군통어영을 설치한 것, 그리고 강화도 남쪽의 자연도에 수군진을 둔 것은 바로 북방 여진족(나중에 청)과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시스템이었다.

한편, 18세기 이후에도 서해 도서지역에 수군진이 증설됨을 볼 수 있



다. 이는 보장처 강화도와 교동도에 설치한 해방 시스템을 보완하는 의미도 없지 않았지만, 이보다는 조운으로 운반되는 물자를 약탈하기 위해 서해에 출몰하는 중국 및 조선의 해적(즉, 황당선)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더군다나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잦아진 서구 이양선(異樣船)의 출현도 서해 도서지역의 수군진 설치 및 강화에 주된 이유가 되었다.

이상, 조선후기 서해 도서지역의 변화는 보장처이자 인후처(咽喉處)로 인식된 강화도를 외호하기 위해, 아울러 황당선 및 해적을 저지·축출하거나 조운선을 안보하기 위해 주요 요충지에 해당하는 도서에 수군진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자연도와 덕적도를 비롯하여 장봉도, 주문도, 대부도 등에 수군진이 설치된 사실은 조선후기 도서에 대한 정부의 공간인식 및 정책 변환의 결과였다.

#### 4. 19세기 말 서구와의 충돌과 인천 해방체제의 변화

병자호란 이후 커다란 혼란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오던 인천 지역 사회는 기존의 동아시아 중화질서체제와는 전혀 다른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받게 된다. 바로 서구 ‘이양선’의 출현이었다.

해금과 해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던 ‘은둔의 왕국’ 조선의 앞바다에 서양의 이양선들이 본격적으로 출몰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

와서였다. 이양선의 출현은 세계문명사적 측면에서 해석하면 ‘근대(문명)’의 침입이었지만, 조선정부는 해양을 통해 온 근대를 악령으로 받아 들였다.<sup>15)</sup> 더군다나 중국(청)이 아편전쟁(1840~1842)으로, 그리고 일본(에도막부)이 함포외교(1854)로 서구세력에 문호를 개방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조선정부는 서구의 침략에 대한 경외심이 더욱 커져갔던 것이다.

물론 이양선의 출몰은 이미 17세기부터 시작되었는데 네덜란드의 상인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제주에 도착한 일이 있었지만 당시의 사건은 풍랑에 휘말려 표류한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19세기 한반도 연근해에 출몰한 이양선들은 제주도, 울릉도 등의 여러 섬을 측량하거나 우리 근해에 접근하여 정탐하고 해도(海圖)를 작성하기도 하는 등<sup>16)</sup> 조선과의 통상 및 침략을 위한 물밑 작업이 목적이었다. 이양선의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조선과 서구열강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이후 군사체제나 무기체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조선의 군사력은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을 강제로 개항시켰던 서구열강의 무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말 인천 앞바다와 강화도 해안 및 내륙에서 벌어진 서구세력과의 충돌은 1866년(고종 3) 9월(~11월)에 발생한 ‘병인양요’와

15) 박천홍,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 서양과 조선의 만남』(현실문화, 2008) 참조.

16) 이영호, 「서구열강의 인천해역 탐사」(『섬의 시대, 바다의 시대를 열다 : 제6회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집(2)』).

1871년(고종 8) 5월(~7월)에 발생한 ‘신미양요’였다. 병인양요는 1866년 2월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조선인 천주교 신도 수천 명이 학살당한 ‘병인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극동함대 사령관 로즈(P. G. Roze)가 군함을 이끌고 조선에 침략한 사건이다. 로즈 제독은 강화도 읍치와 통진의 문수산성을 점령하는 전과를 얻었으나, 양헌수(梁憲洙) 부대와 의 정족산성 전투에서 패한 후 강화도에서 철수하고 조선해안을 떠나면서 종료되었다.

신미양요는 1866년 8월 대동강에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격침되고 선원 24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발생한 조·미간의 전쟁이다. 1871년(고종 5) 미국 아시아함대 사령관 로저스(J. Rodegers)가 군함을 이끌고 조선에 침략하여 강화도의 해방시설들(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등)을 차례로 점령한 후 철수하면서 종료되었다.

두 차례의 ‘양요’에서 보장처 강화도가 쉽게 점령당하자 조선정부는 해방 시스템을 수정하게 되었다. 신미양요 직후 강화 앞바다에서 도성(한강)으로 진입하는 길목인 염하수로(鹽河水路)의 초입에 위치한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용진진 등에 포대(砲臺)를 축조하여 도성으로 향하는 수로를 방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sup>17)</sup>

이는 강화도가 보장처에서 도성의 해상출입구를 지키는 ‘인후처(咽喉處)’로 그 역할이 변모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강화도 남쪽에 늘어

17) 박광성, 「양요후의 강화도방비책에 대하여」(박광성, 앞의 책에 수록).

서 있던 인천 도서의 수군진들도 보장처 강화도를 위호하는 것에서, 도성으로의 출입 해로를 지키는 인후처로 그 역할이 변모하였던 것이다.

## 5. 강화도조약 이후의 화도진·연희진 설치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서해 연안지역을 개항장으로 개설하기 위한 일본과의 교섭이 전개되었다. 조선정부는 장차 일본이 인천 제물포를 개항장으로 제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방비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인천과 이웃한 부평을 강화도에 못지않은 해문 요충지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부평 연안에 대한 방비책은 1878년(고종 15) 8월(음력)에 이르러 진을 창설하여 포대를 설치하자는 방향으로 구체화 되었고, 이듬해 7월 1일(음력) 인천 화도진(花島鎭)과 부평 연희진(連喜鎭)의 창설로 완성되었다. 아울러 화도진 소속으로 제물포포대·북성곶포대·묘도(깡이부리)포대, 논현(호구포)포대 등을 두었고, 연희진에는 연희(용두)포대·가정포대를 두어 관할하게 하였다.<sup>18)</sup>

이후 인천 연안의 방비에 주력하였으나, 1894년의 갑오경장으로 군제가 개편되면서 두 진은 철폐되고 말았다.

18) 박광성, 「인천개항과 연안방비책에 대하여」(박광성, 앞의 책에 수록).

## 6. 인천의 관방유적 현황 및 특징

2019년 인천광역시사 제10호 『인천의 관방유적』을 편찬하기 위해 의뢰한 집필원고를 정리하면 인천지역의 관방유적은 대략 160여 건으로 파악된다(〈표 4〉 참조).

〈표 4〉 인천지역의 관방유적 분포 현황

종류 지역	성곽 (城郭)	군영 (軍營)	진(鎭)· 보(堡)	돈대 (墩臺)	포대 (砲臺)	수군진 (水軍鎭)	봉수대 (烽燧臺)	요망대 (瞭望臺)	목장 (牧場)	계
중구	-	-	1	-	4	1	1	-	3	10
동구	-	1	-	-	2	-	-	-	-	3
미추홀구	4	-	-	-	-	-	1	-	-	5
연수구	1	-	-	-	-	-	-	-	-	1
남동구	-	-	-	-	2	-	-	-	-	2
부평구	-	-	-	-	-	-	-	-	-	0
계양구	2	-	-	-	-	-	-	-	-	2
서구	-	1	-	-	7	2	-	-	-	10
강화군	12	5	12	54	9	1	14	3	7	117
옹진군	-	-	-	-	-	5	4	-	3	12
계	19	7	13	54	24	9	20	3	13	162

비고 : 연수구의 성곽 1개는 미추홀구와 공유하는 ‘문학산성’을 말함.

지역(군구)별로는 아무래도 조선후기 보장처로 기능하며 다양한 관방시설을 설치했던 강화군(강화도)이 117건(전체의 약 7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조선후기 수군진이 설치된 도서지역인 용진군이 12건(약 7%), 역시 수군진이 설치된 영종도와 화도진·연희진의 포대들이 포함된 중구와 서구가 각 10건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미추홀구(5건)와 동구(3건), 남동구·계양구(각 2건), 연수구(1건) 등은 적은 분포를 보였으며, 부평구의 경우 행정구역의 개편(1995년 계양구와 부평구의 분구)으로 단 1건의 관방유적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 유적의 종류별로는 강화도에 대량 설치된 돈대가 54건(약 33%. 19세기에 추가 설치된 용두돈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포대가 24건(약 15%), 봉수대가 20건(약 12%), 성곽이 19건(약 12%) 등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밖에 진·보와 목장이 각 13건(약 8%), 수군진이 9건, 군영이 7건, 요망대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럼 지역(구군)별로 주요 관방유적을 선택하여 소개·정리해 보겠다.<sup>19)</sup>

## 1) 중구 영종진(永宗鎭)

정묘호란 이후 인조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양방어체제를 개편 하면서 1627년(인조 5) 강화도를 유수부로 승격하고, 1629년(인조 7)에는

19) 이 책의 각 구군별 해당 집필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경기수영을 교동도로 이전하였으며, 1633년(인조 11)에는 경기 수영을 삼도수군통어영으로 승격시켰다.

효종 임금도 이전부터 경기 연안에 설치되어 있던 수군진을 이설시키거나, 새로 창설함으로써 강화도에 12개의 진·보를 설치하여 방비시설을 강화하였다.

인천 중구에 있었던 영종진 또한 남양에 있던 것을 1653년(효종 4)에 자연도(현 영종도 구읍벚터)로 이전 설치한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국가의 보장처였던 강화도의 방비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이후 영종진은 설치 이후 여러 차례 변천을 거치다가 1758년(영조 34)에 이르러 독진(獨鎭)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1875년 9월 22일(양력), 이른바 ‘운양호 사건’으로 영종진이 피격·함락당하면서 폐진되었다. 이후 인천 해안방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1883년에 복설되었다가 1895년 갑오개혁으로 혁파되기에 이르렀다.

## 2) 미추홀구 문학산성(文鶴山城)

해발 217m인 문학산(文鶴山)은 인천의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미추홀구의 문학·학익동과 연수구의 선학·연수·청학동에 걸쳐있다. 문학산 일대에는 비류(沸流)의 백제 건국신화를 비롯한 다양한 설화가 분포하며,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문화유산들이 집약되어 있는 인천 역사의 태동지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 이래 문학산과 맞은 편

승학산 사이의 분지에 읍치(邑治)가 형성되어 전통시대 인천의 행정·교육·문화의 중심지였고, 더불어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문학산성은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성곽(산성) 관방유적으로 문학산 정상에 봉우리를 둘로 둘러싼 테피식 석축성이다. 성곽의 규모는 둘레 587m, 면적 20,800㎡(약 6,300평)이며, 현재 390m의 성벽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에는 토성(土城)이던 것을 삼국시대 말기, 혹은 통일신라시대를 거치면서 석성(石城)으로 개축되었고, 이것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 3) 남동구 논현포대(論峴砲臺)

일명 ‘호구포대(호구포포대)’라고도 하는데, 논현의 ‘호구(범아가리)’라는 포구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이다.

논현포대는 화도진에 소속되어 인천부 남변의 승기갯골수로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였다. 논현포대는 1982년 3월 2일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 6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고, 당시의 화포와 함께 복원되어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다.

#### 4) 계양구 계양산성(桂陽山城)

계산동 산10-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계양산성은 미추홀구의 문학산성과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인 고대 산성으로, 1992년 5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다. 계양산성은 둘레 1,180m, 면적 62,863㎡에 달해 삼국시대의 산성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성벽은 다듬은 돌을 쌓아 올려 만들었는데, 성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은 그 높이가 7m에 이른다. 성곽은 계양산 정상이 아닌 동쪽의 낮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축조되었는데, 이런 입지와 형태적 특성 때문에 “사모봉(紗帽峰)”형의 산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동안 9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북문지, 치성 2개소, 집수시설 3개소, 대형건물지 1개소, 건물지 9개소, 제사유적 1개소 등의 성내 잔존유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초축 시기와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술조사 초기에는 1~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의 축조방식과 백제계로 판단되는 출토유물을 근거로 한성백제 후기(5세기)에 축조된 산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4차 발굴조사 이후 계속 이어진 학술조사에서 후기신라(6세기)와 통일신라(8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유구와 유물이 다량 확인되면서 계양산성을 6세기 후반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신라에 의해 축조된 후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이 지역의 ‘치소성(治所城)’으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계양산성이 한강하류와 서해안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국의 치열한 각축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이었고 주 사용시기가 통일신라시대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 5) 강화군 교동면 교동읍성(喬桐邑城)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에 있는 조선후기의 읍성으로 둘레 약 430m, 높이 약 6m이다. 1995년 3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었다. 읍성은 정묘호란 직후인 1629년(인조 7)에 쌓았다고 한다. 교동읍성을 쌓은 목적은 교동도에 경기·충청·황해 3도의 수군을 총괄하는 '삼도수군통어영(三道水軍統禦營)'을 설치하면서이다.

원래 이 읍성에는 세 곳에 문루를 갖춘 성문이 있었는데 동문에는 통삼루(統三樓), 북문에는 공북루(拱北樓), 남문에는 유량루(庾亮樓)란 문루가 있었다고 한다.

1753년(영조 29)에 성곽과 여장(女牆)을 고쳐 쌓았고, 1884년(고종 21)에는 남문을 증건하고 또한 문루와 성벽을 수리하였는데 공사를 끝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뒤 1890년(고종 27)에는 동문과 북문을 고쳐 세웠는데 세월이 흘러 무너졌다고 한다. 특히 남문의 유량루는 1921년의 폭풍으로 무너져 홍예(虹霓) 부분만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2018년 남문 문루를 복원하였다.

## 6) 웅진군 백령면 백령진 터(白翎鎭址)

웅진군 백령면 진촌리 804-24, 807-1번지 일대 백령도 천주교회 일대가 진이 설치되어 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백령도에 설치되었던 백령진은 현재 웅진지역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수군진으로 기록되어 있다.

백령진은 고려조에 설치되어 조선시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한 수군의 방어시설이었다. 진촌리 동편 구릉 위에 축조된 성으로 성의 평면 형태는 북서-남동 방향을 장축으로 하는 장방형으로 장축길이가 약 100여 미터 정도로 추정된다. 성벽 주변에서는 다량의 기와편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 7) 웅진군 북도면 장봉진 터(長峯鎭址)

웅진군 북도면 장봉3리는 일명 진촌(鎭村)이라 불리는 곳으로 그 일대는 1717년(숙종 43)에 설치된 장봉수군진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그 정확한 위치는 찾을 수 없으나, 근처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발 주변에 여러 가지 토기조각들이 발견되는 점, 장봉3리 진촌에서 ‘대빈창’으로 넘어가는 ‘비석거리’ 언덕에 여러 기의 장봉진 수령이었던 만호(萬戶)의 선정비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진촌리 일대에 장봉진이 자리하였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후기 장봉진을 설치한 목적은 강화도로 향하는 수로의 방비를 강화하려는 숙종대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장봉진의

설치 문제는 1678년(숙종 4)에 거론되었으나, 1717년(숙종 43)에 가서야 진의 설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봉진에는 수군만호(水軍萬戶)가 배치되어 감목관(監牧官)을 겸하였다.

이상, 인천지역 관방유적의 분포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인천지역 관방유적의 거의(70% 이상)가 강화도에 집중되었으며, 그 종류는 돈대와 포대, 그리고 진·보, 수군진 등이었다.

이들 유적은 병자호란 이후 북벌론의 대두와 강화도의 보장처 기능이 정립되면서, 추후 유사시를 대비하여 강화도를 국방 요새로 건설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보장중지로서의 강화도 건설은 강화도를 위호하기 위해 그 주변 여러 도서에 수군진을 설치하는 해방 시스템의 구축으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인천지역 관방유적의 특징은 ‘해양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후기 뿐 아니라 고대 여러 산성(문학산성, 계양산성, 화개산성, 하음산성 등) 또한 인천지역의 해양방어가 그 주된 목적·기능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인천의 관방유적

#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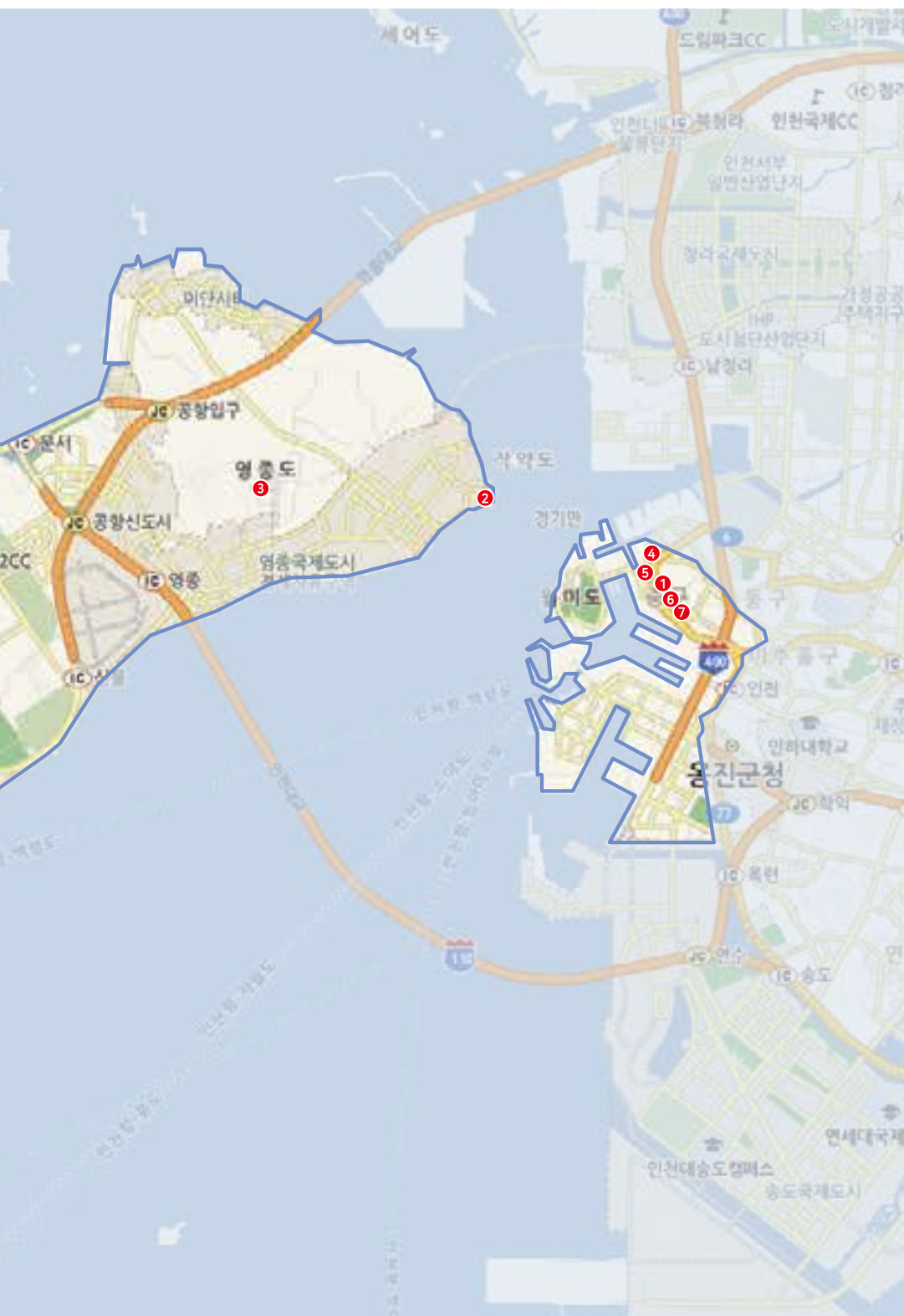


## 종구

### | 관방유적 위치 |

- ❶ 제물량
- ❷ (구)영종진터
- ❸ (신)영종진터
- ❹ 북성곶 북변포대
- ❺ 북성곶 남변포대
- ❻ 제물 북변포대
- ❼ 제물 남변포대









## 중구

인천광역시 중구는 서울로 통하는 육로의 끝 지점인 동시에 시작 지점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관방 유적이 많이 설치되지 않았다. 고려시대의 중심은 개경이었고, 7대 어향임에도 인천은 강도(江都) 시기를 제외하고는 관방적인 측면에서 크게 주목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 들어서 인천군 서쪽 성창포에 제물량(濟物梁)이 설치되어 수군 만호가 지켰다. 성창포에 있던 제물량은 효종의 북벌 정책과 맞물려 강화도가 관방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강화도 갑곶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남양도호부의 영종진이 자연도(현 구읍벚터)로 이전 설치되었고, 이후 자연도의 명칭이 아예 영종도로 변하였다. 영종진이 우리 역사에서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의해서였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 일으킨 영종진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영종진은 한차례 이전하였다가 혁파되어 지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

영종진 피격사건 이후, 쇄국정책을 강화하던 조선 조정은 수로를 따라 한양에 들어오는 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천부와 부평부 연안에 진과 포대를 설치하였는데 그 중 북성곶 포대와 제물 포대가 현재 중구에 속한다. 화도진도에 따르면 북성곶 북변포대(3혈), 북성곶 남변포대(5혈), 제물 북변포대(8혈), 제물 남변포대(5혈)가 있었는데, 적의 상륙이 예상되는 주요 해안에 토루(土壘)를 구축하고 각 포로 화망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중구의 관방 유적은 많이 설치되지도 않았고, 흔적 또한 대다수 남아있지 않다.

## 1. 제물량

조선초기 기록을 살펴보면, 인천에는 제물량(濟物梁)이라는 수군기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자료의 부족으로 제물량 설치 초기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는 알 수 없고, 사료에 간간히 등장할 뿐이다.

우선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좌도 수군 첨절제사영(左道水軍僉節制使營)은 남양부(南陽府) 서쪽 화지량(花之梁)에 있고, 【항상 중대선(中大船) 3척과 쾌선(快船) 10척, 무군선(無軍船) 13척을 거느리고 강화(江華)를 수어(守禦)하는데, 장번 수군(長番水軍)이 69명이요, 각관(各官)의 좌·우령(左右領) 선군(船軍)이 총 1천 5백 97명이다. 대개 배 1척에 각기 뿔나무와 물을 실어 나르는 삼판소선(三板小船)이 있으며, 그 무군선은 만일 경급(警急)한 일이 있으면 영선군(領船軍)을 모두 징발하여 태우는 것이니, 뒤의 것도 모두 이와 같다.】 영종포 만호(永宗浦萬戶)는 남양부(南陽府)의 서쪽에 있고, 【중대선(中大船) 3척, 맹선(孟船) 1척, 무군선(無軍船) 3척이요, 각관의 좌·우령(左右領) 선군(船軍)이 총 5백 10명이다.】 초지량 만호(草芝梁萬戶)는 안산(安山) 서남쪽 사곶(沙串)에 있고, 【중대선 5척, 무군선 4척이요, 장번 수군(長番水軍)이 8명이며, 각관의 좌·우령 선군이 총 6백 15명이다.】 제물량 만호(濟物梁萬戶)는 인천군(仁川郡) 서쪽 성창포(城倉浦)에 있다. 【병선(兵船) 4척, 무군선 4척이며, 각관의 좌·우령

선군이 총 5백 10명이다.】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위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물량은 인천군 서쪽 성창포에 있었고, 그 책임자는 만호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병선 4척, 무군선(無軍船) 4척, 병력이 510명에 달하였다. 영종포, 초지량과 비슷한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제물량과 관련된 다른 기록이 하나 더 확인된다.

제물량(濟物梁) 【군(郡) 서쪽 15리에 있다. 성창포(城倉浦)에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있어서 수어(守禦)한다.】 자연도(紫燕島) 【제물량 서쪽 수로(水路) 3리에 있다. 둘레가 25리인데, 나라의 말 3백 58필을 놓아 먹이며, 수군(水軍)·목자(牧子)·염부(鹽夫)가 있는데, 모두 30여 호이다.】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인천군

위 사료에서도 제물량의 위치를 ‘인천군 서쪽 15리’라고 비교적 상세히 기재하였다. 인천군 서쪽 15리에 있는 성창포의 수군 만호가 제물량을 지켰다. 제물량의 서쪽 수로 3리에는 자연도(지금의 영종도)가 위치하고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기록은 좀 더 상세하다.



【관방】화량진(花梁鎭) 부 서쪽 30리 되는 곳에 있다. 좌도수군 첨절제사영(左道水軍僉節制使營)이 있는데 관할하는 곳은 영종포(永宗浦)·초지량(草芝梁)·제물량(濟物梁)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경기, 남양도호부

동쪽으로 안산군(安山郡) 경계까지 41리 금천현(衿川縣) 경계까지 34리, 남쪽으로 큰 바다까지 7리, 서쪽으로 제물량(濟物梁)까지 17리, 북쪽으로 부평부(富平府) 경계까지 24리, 서울까지 77리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경기, 인천도호부

【관방】제물량영(濟物梁營) 부 서쪽 19리 되는 곳에 있다. 수군만호(水軍萬戶) 한 사람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9, 경기, 인천도호부

위 사료에 의하면 조선 세종 때 남양도호부의 화량진에 좌도수군 첨절제사영에서 제물량을 관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도호부 서쪽으로 17리 거리에 제물량이 있었고, 인천도호부 서쪽으로 19리 거리에 제물량영이 있는데 수군 만호 1명이 있다고 하였다.

『대동지지』에서는 제물진이 인천도호부 서쪽 18리에 있고 수군만호가 있으며, 효종 때 강화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의 둘레가 250보

라 하였는데, 인천에 있을 때의 규모인지 강화에서의 규모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형상의 『강도지』에서는 제물진의 이설 시기를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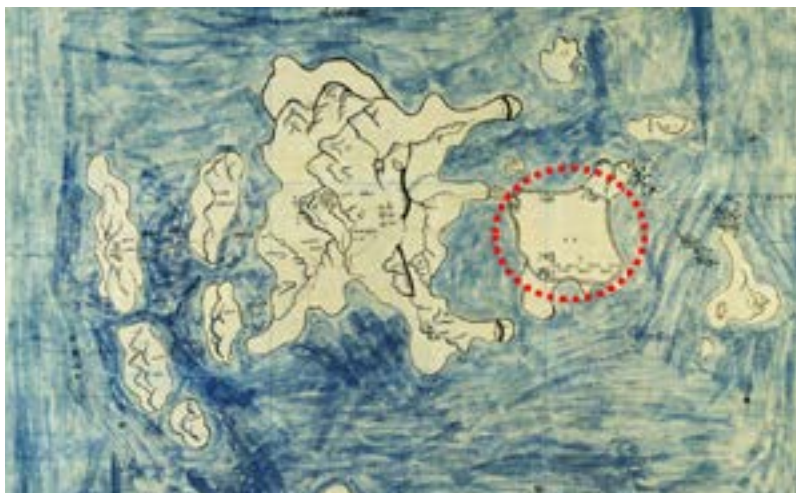
【제물진(濟物鎭)】 관아의 동쪽으로 8리, 장령면(長嶺面)에 있으며 즉 갑곶(甲串)이라 불리는 곳이다. 남으로 용진진(龍津鎭)까지 7리에 이른다. 원래 제물진은 인천(仁川)에 있었는데 병신년(丙申年, 1656년)에 본 부로 이설(移設)되어 수군만호(水軍萬戶)가 다스리다가 을사년(乙巳年, 1665년)에 병마만호(兵馬萬戶)로 고쳤다.

이형상, 『강도지』

이형상의 『강도지』에 따르면 인천에 있던 제물진은 1656년 강화로 이설되었다. 당시 효종의 북벌정책과 맞물려 강화도의 방비가 중요시되는 시기였던 만큼 인천도호부에 있었던 제물진이 강화도 갑곶으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기록에서 나타나는 제물량, 제물진 등은 강화도의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인천도호부의 제물량, 제물진 등은 지금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토사학자들이 올림푸스호텔 일대 등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 2. 영종진 터



『1872년 지방지도』의 영종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종도(永宗島)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속된 섬으로, 지정학적으로 동경 126° 31′, 북위 37° 29′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영종도 본 섬을 비롯하여 삼목도, 신불도, 용유도, 무의도가 군도를 형성하였다. 1914년 부천군 영종면과 용유면으로 편제되었다가 1973년 부천군 폐지로 경기도 용진군의 영종면과 용유면으로 편제되었다. 1989년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동, 용유동으로 편입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동, 용유동으로 변경되었다.

영종도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매립된 것은 2001년이다. 인천공항

개항으로 무의도를 제외한 4개의 섬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2012년에는 영종출장소 운서지소를 행정동 운서동으로 승격시켰다. 영종동, 용유동, 운서동을 합한 면적은 2017년 기준으로 약 125.73km<sup>2</sup>이며,<sup>1)</sup> 주민등록상 총 인구는 2019년 3월 기준으로 78,770명이다.<sup>2)</sup>

영종도에는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종도 여러 지역에서 마제석기 및 토기 파편들이 발견되고, 운남동에서는 고인돌이 발견되어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종도의 옛 지명은 자연도(紫燕島)였다. 섬에 제비가 많아 붙은 이름이다. 삼국시대에 들어서 영종도는 중국과 내왕하는 기항지로서 기능하였다. 왕산포구에 있는 조천대(朝天臺)는 천자를 만나러 가는 길목이었음을 의미한다. 고려시대에도 영종도는 중국과 왕래의 무대가 되어 중국 남송(南宋)과 무역거점인 경원정(慶源亭)이 설치되었다. 서경(徐兢)의 『고려도경』(1123년)에 의하면 흑산도에는 객사, 군산도에는 군산정, 마도에는 안흥정, 자연도에는 경원정, 예성강에는 벽란정이 설치되어 고려시대 송과의 내왕에 중요한 명주항로(明州航路)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경원정은 명주와 개경을 잇는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였다. 『대명일통지』(1461년)에도 자연도에 있는 객관의 이름

1) 인천광역시 중구, 『제30회 중구기본통계연보』, 2019.4.

2)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민등록인구 참조.

을 경원정이라 기록하였다. 또한 1197년(신종 원년) 11월, 자연도에 유배된 고려 공신 두경승 장군이 독살되는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1211년(희종 7) 12월, 최충현에 의하여 고려 희종이 폐위되어 자연도로 이거하였다.

1653년(효종 4) 남양도호부의 영종포 만호를 자연도(지금의 영종도)로 이전하였고, 이후 자연도의 지명이 영종도로 변경되었다. 영종진의 설치로 인천도호부의 부속 도서였던 자연도·삼목도·용유도·신불도·물치도 등의 섬을 영종진에서 관할하게 되었다. 인천과 별도의 독자적 지방행정구역으로 개편되어 조선후기까지 영종진에 군사가 주둔하여 서해안 방어를 담당하였다.

1653년(효종 4) 남양도호부로부터 이전한 영종진은 『해동지도』, 『광여도』, 『해서경기해로도』, 『영종방영도(永宗防營圖)』, 『경기지』, 『경기읍지』, 『영종방어영도』, 『화도진도』 등 여러 고지도에서 그 모습이 확인된다.

18세기 제작된 『해동지도』<sup>3)</sup>에서는 영종진의 객사(客舍), 아사(衙舍)와 태평루(太平樓)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알 수 없다. 아사에 서는 영종도 본 섬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에서는 영종진성의 모습과 영종진과 본 섬을 잇는 만세교(萬世橋)가 확인되지 않는다.

3) 규장각 소장(고대4709-41), 편찬연도 : 1724년(영조 1)~1776년(영조 52).



『해동지도』에 나타난 영종진(점선 부분)



『광여도』에 나타난 영종진(점선 부분)

마찬가지로 18세기 제작된 『광여도』<sup>4)</sup>에서는 객사, 아사와 태평루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해동지도』와는 다르게 아사는 ‘아(衙)’로만 기재되었으나 동일한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영종진성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영종진과 본 섬을 잇는 만세교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해동지도』와는 다르게 본 섬과 영종진이 펼쳐 있고 사이에 뻗어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18세기 중반 제작된 『해서경기해로도』<sup>5)</sup>는 『해동지도』, 『광여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영종방영(永宗防營)이라 하여 영종방어영이 존재하고 있을 시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객사와 아사의 표시는 별도로 없고, 태평루만 표기되어 있다. 다리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종진과 본 섬을 잇는 다리가 확인된다.

한편 18세기 중반 제작된 『영종방영도(永宗防營圖)』<sup>6)</sup>에서는 건축물이 좀 더 상세하게 표기되었다. 태평루는 없어진 듯 태평암이라 표기되어 있다. 7동의 건축물이 확인되며, 영종진과 본섬을 연결하는 만세교가 보인다. 지도의 이름이 『영종방영도』인 까닭에 영종진을 상세하게 기록한 듯하다.

4) 규장각 소장(古4790-58), 편찬연도 : 1737년(영조 13)~1776년(영조 52).

5) 규장각 소장(奎軸12153), 편찬연도 : 18세기 중반.

6)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편찬연도: 18세기 중반.



『영종방영도』에 나타난 영종진(점선 부분)



『영종방영도』에 나타난 영종진(점선 부분)



19세기 중반 제작된 『경기지』<sup>7)</sup>에서는 영종진에 조성된 건축물의 명칭이 좀더 뚜렷하다. 물치도 맞은편에 태평암이 보이고, 영종진에는 내아(內衙), 중영(中營) 등을 비롯하여 10동의 건축물이 확인된다. 영종진과 본섬을 연결하는 만세교에는 길이와 폭까지 명시되어 만세교의 규모를 알 수 있다.

1871년 제작된 『경기읍지』<sup>8)</sup>에서는 영종진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강조되어 그려졌다. 영종진의 건축물이 상세히 묘사되었고, 다른 지도와 다르게 영종진성의 모습이 확인된다. 영종진성은 태평루, 만세교 일원을 제외한 영종진 대부분의 지역을 두르고 있다.

1872년 제작된 『영종방어영도』<sup>9)</sup>는 『경기도지도』에 수록된 것으로, 영종진 피격사건(1875년) 이전의 지도다. 영종진성의 모습이 확인되는데, 영종진성은 내성(內城)으로 표기하였다. 영종진성에는 동서남북 4곳의 문이 확인되며, 특이하게도 성내 남문 쪽에 봉대(烽臺)라고 하여 봉수대가 기록되어 있다.

영종진 피격사건이 있는 후인 1879년경에 제작된 『화도진도』<sup>10)</sup>에서는 기존의 태평암에 있던 영종진성이 ‘구읍’으로 표기되고, 백운산 아래에 ‘신읍’이 표기된 것을 주목할 만하다.

7) 규장각 소장(奎12178), 1842년(헌종 9)~1843년(헌종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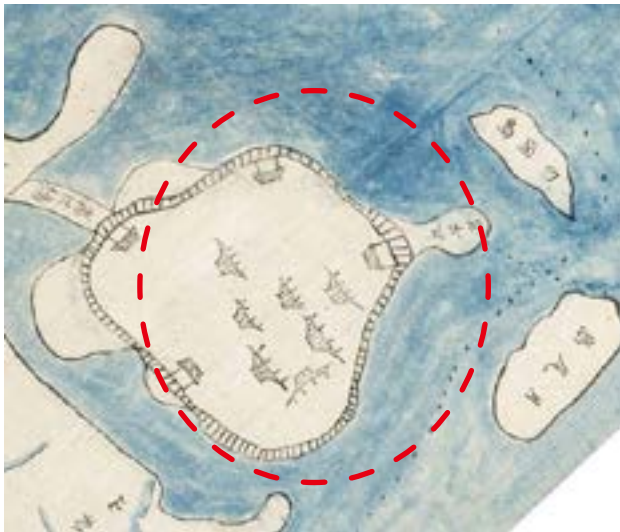
8) 규장각 소장(소장번호 奎12177), 편찬연도 : 1871년(고종 8).

9) 규장각 소장(奎10347), 편찬연도 : 1872년(고종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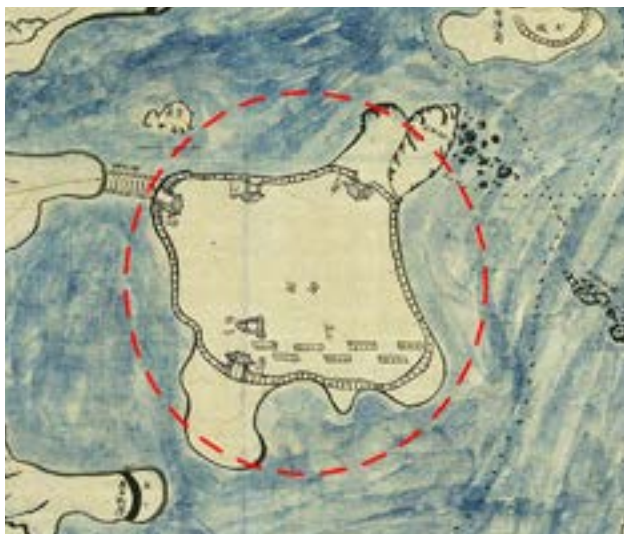
1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古朝鮮61-79), 편찬연도 : 1879년(고종 16).



『경기지도』에 나타난 영종진(점선 부분)



『경기읍지』에 나타난 영종진(점선 부분)



『영종방어영도』에 나타난 영종진(점선 부분)



『화도진도』에 나타난 영종진(점선 부분)

영종진은 애초에 인천 중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양도호부에 설치된 것이었다. 조선 세종 이전에 남양도호부 영종포가 인천으로 옮기면서 ‘영종’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따라온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통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종포만호(永宗浦萬戶)는 남양부(南陽府)의 서쪽에 있다. 중대선(中大船) 3척, 맹선(孟船) 1척, 무군선(無軍船) 3척이요, 각관의 좌·우령(左右領) 선군(船軍)이 총 510명이다. (永宗浦萬戶, 泊南陽府西. 中大船三隻, 孟船一隻, 無軍船三隻. 各官左右領船軍, 總五百十名.)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남양도호부

영종포(永宗浦)는 부 남쪽에 있으니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지키고 방어한다. (永宗浦, 在府南, 水軍萬戶守禦.)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남양도호부

위 기록을 통해 영종진은 당초 조선 세종 이전에 남양도호부 ‘영종포’에 설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남양도호부 서쪽에 위치한 영종포는 중대선(中大船) 3척, 맹선(孟船) 1척, 무군선(無軍船) 3척 등 7척의 병선을 보유하였고, 각관의 좌·우령(左右領) 선군(船軍) 등 총 510명의 병력을 보유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연대를 감안했을 때, 남양도호부



『세종실록』의 영종포 관련 기사

영종포에 군진을 설치하고 수군 만호를 두었던 것은 세종 이전이라고 추정된다.

한편 『세종실록지리지』의 경기수군 편성을 보면, 경기수군은 교대 없이 근무하는 장번수군(長番水軍)과 각 포(浦)에 배정되어 해안방어를 담당하던 선군(船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경기수군은 선군이 5,174명, 장번수군이 610명, 군선 97척과 무군선 10척이었다. 대부분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되었다.

### 경기수군 편성

관별	위치	병력 구성	전선의 수
좌도수군 첨절제사	남양부 화지랑	장번수군 69명 선군 1,597명	26척 무군선 13척
영종포 만호	남양부 남쪽	선군 510명	7척 무군선 3척
초지랑 만호	안산서 남사곶	선군 615명	9척 무군선 4척
제물랑 만호	인천군 서성창포	선군 510명	8척 무군선 4척
우도수군 첨절제사	교동현 응암랑	장번수군 295명 선군 1,313명	26척 무군선 13척
정포 만호	강화부 서쪽	장번수군 246명 선군 1,170명	21척 무군선 10척
합계		총 5,784명 선군 5,174명 장번수군 610명	총 97척 전선 50척 무군선 47척

자료 : 『세종실록지리지』

‘영종포’가 남양도호부에 배속된 것은 왜구의 방어를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상 영종포 설치 이전 남양부 일대 왜구 침입 기사 4건이 나타나는데, 영종포 설치 이후 왜구 침입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정학적 위치상 남쪽으로부터 북상하는 왜구를 막기에 적합한 위치였다고 보인다. 또한 영종포는 왜구의 방어 이외에도 소홀도(召忽島)·이작도(伊作島)·독갑도(禿甲島)·사야곶도(士也串島)·풍도(楓島)·승황도(昇荒島) 등 6개 섬의

목장(牧場)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해안 방어 체제의 변경과 함께 영종포의 이설 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 조선전기 경기지역의 해안 방어의 목표는 남에서부터 올라오는 왜구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조선후기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경기지역의 해안 방어 체제의 변경이 요구되었다. 경기지역 수군은 유사시 왕의 피난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되었는데, 바로 강화로 향하는 왕실의 피난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영종만호(永宗萬戶)는 남양의 작은 포구 옆에 치우쳐 있어 바다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가장 긴요치 않은 곳입니다. 이곳으로 옮겨 설치하되, 전의 호청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감목(監牧)을 겸하도록 하고 다시 형편을 살펴 그 직품을 올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만호가 신설된 곳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조로 하여금 그의 사람됨을 살펴서 혹은 체직시키고 혹은 그대로 두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永宗萬戶，僻在於南陽小浦之邊，距海頗遠，最爲不緊，以此移設，勿改前號，仍兼監牧，更爲觀勢，陞其職品，而萬戶之可堪新設與否，令該曹，審察其爲人，或遞或仍宜當，以此分付何如，答曰，允。

『비변사등록』 1653년(효종 4), 3월 3일

실제 정묘호란 이후 인조는 남양부 중심의 경기해안방어 체제를 강화 중심으로 개혁하였다. 1624년(인조 2) 경기수영을 남양의 화랑진에서 강화도로 이전하고, 1627년(인조 5) 강화도를 유수부로 승격하였다. 1629년(인조 7) 경기수영을 강화도에서 교동으로 이전하였고, 1633년(인조 11) 경기수영을 삼도수군통어영으로 승격시켰다. 이어 효종 역시 경기 연안의 수군진을 강화도 연안으로 이동시키거나 신설하고자 하였다.

1653년(효종 4) 효종은 남양도호부의 영종진을 자연도(구읍벚터)로 이전 설치하였다. 기록에 따라 “영종포 만호를 자연도로 옮겼다” 혹은 “영종진 만호를 자연도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영종포와 영종진이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는 영종포에 군진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영종포 군진(영종진)의 만호를 자연도로 옮겼다는 것은 군진 자체를 자연도로 이전 설치하였다는 의미이다. 영종진의 이전 설치로 자연도가 방어상의 요충지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조선후기 국가의 보장처였던 강화도의 방비 강화 목적이었다. 한편 이를 효종대 북벌론과 연결시키는 해석도 있다.

영종진이 자연도로 이전하며 영종진 만호는 감목관(監牧官)을 겸임하였다. 조선시대 감목관은 지방의 목장 업무를 담당하던 종6품 관직으로, 이를 통해 자연도 및 인근 섬에 목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 지지(地誌) 자료에 나타난 영종진 이설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과 같다.



영종(永宗)은 옛날에 자연도(紫燕島)라고 불렸다. 송정 계사년(1653년)에 남양부에 있던 영종진만호(永宗鎭萬戶)를 본 섬으로 옮기고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하였다.

永宗古號紫燕島. 崇禎癸巳, 南陽府永宗鎭萬戶移設於本島, 兼監牧官.

『영종방영도지』

영종은 옛날에 자연도라고 불렸다. 송정 계사년(1653)에 진이 설치된 초기에 수군만호와 감목관을 겸하게 했다.

永宗古號紫鷺島. 崇禎癸巳設鎭, 初以水軍萬戶兼監牧官.

『영종진읍지』

영종은 옛날에 자연도라고 불렸다. 송정 계사년(1653)에 진이 설치된 초기에 수군만호와 감목관을 겸하게 했다.

永宗古號紫鷺島. 崇禎癸巳設鎭, 初以水軍萬戶兼監牧官.

『영종진도지』

효종 4년(1653) 남양(南陽)의 영종포만호를 자연도로 옮겼다.

孝宗四年, 移南陽永宗浦萬戶于紫燕島.

『대동지지』 「영종포진」

영종진이 자연도로 이설된 후, 명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자연도의 지명이 영종진의 ‘영종’을 따라 영종도로 변경되었다. ‘제비가 많은 섬’이라는 자연 지명 자연도에서 ‘영종진이 있는 섬’이라는 의미의 영종도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영종진은 혁파될 때까지 영종도에 위치하며 많은 변천을 거쳤다. 1681년(숙종 7) 영종진의 책임자가 종4품 만호에서 종3품 첨절제사(僉節制使)로 승격되었다. 영종진 책임자의 격(格)이 승격되었다는 것은 영종진의 격이 승격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영종진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해 영종진을 어영청(御營廳)에 배속하였는데, 유사시 강화로 향하는 왕실의 피난 수로 확보가 주목적이었다.

1690년(숙종 16) 영종진의 책임자를 종3품 첨절제사에서 종2품 방어사(防禦使)로 승격시켰다. 이는 해양 방어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직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영종진의 군사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18세기에 들어 영종진은 소속이 두 차례 변경되었다. 1715년(숙종 41) 영종진은 기존 어영청에서 교동수영으로 배속되었다. 1758년(영조 34)에는 영종진이 교동수영에서 다시 어영청으로 환원되었는데, 이때 영종진은 독진(獨鎭 : 독립된 진)으로 설정되었다.

강희(康熙) 신유년(1681)에 첨사(僉使)로 승격시켜 어영청(御營廳)에 속하게 하였다. 바다를 방어하는 긴요하고 중요한 곳이지만 관직이 낮아 조정에서 설치하려는 뜻이 어긋남이 있어, 지난 경오년(1690)에 방어사(防禦使)로 승격시켰다. 을미년(1715)에 교동수영에 속하게 하였다. 무인년(1758) 다시 어영청에 소속시켜, 독진(獨鎭)으로 만들었다.

康熙辛酉陞僉使屬御營廳。海防緊重，位號卑微，則有違 朝家設施之意。四去庚午陞防禦使，乙未屬之喬桐水營，戊寅復屬御營廳，設獨鎭。

『영종진읍지』

근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확보를 위한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영종진이 국제관계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 단초가 되었던 것은 1866년(고종 3) 병인양요였다. 1866년 9월 5일(음력) 영종진 첨사 심영규(沈永奎)의 보고에 따르면, 프랑스 군함 7척이 팔미도(八尾島) 외해(外海)에서부터 부평 경계의 물치도(勿雉島)와 호도(虎島) 사이에 정박하였다. 이에 경기감사 유치선(兪致善)은 감시와 방비를 계속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9월 6일(음력) 프랑스군은 갑곶진에 상륙하여 주둔하였다가 9월 7일(음력) 강화부 경찰에 나선다. 다음날인 9월 8일(음력) 프랑스군이 강화부 남문을 공격하여 강화부는 함락되었다. 9월 15일(음력) 새로 부임한 영종진 첨사 백낙신(白樂莘)이 강화로 가서 방비하였다. 10월 10일(음력)에는 전 우후(虞候) 신효철(申孝哲)을 유격장으로

로 임명하여 관서의 포수 200명을 거느리고 영종진으로 이동하였다.

서양의 군함이 서해에 나타나자 1867년(고종 4) 고종은 영종도에 다시 방어영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4월 15일(음력), 영종을 좌방어사(左防禦使), 교동을 우방어사로 임명하였다.

이듬해인 1868년 오페르트의 영종진 습격이 있었다. 남연군 묘 도굴을 감행하다가 실패한 오페르트가 영종진 앞에 머물며 흥선대원군에게 서한을 발송하였다. 오페르트는 남연군 묘를 강탈하려고 했으나 과도한 것 같아 그만두었다고 언급하며 교섭을 요청하였다. 한편 영종방어사 신호철은 오페르트에 외국의 전선(戰船)에 대한 방비가 되어 있다고 대응하였다. 4월 25일(음력) 오페르트는 중선과 소선 2척으로 나누어 영종진의 영종성을 침입하였다. 신호철은 100명의 무사와 10명의 교리를 거느리고 오페르트와 교전하여 섬멸하고 2명의 머리를 동문 밖에 효시(梟示)하였다.

잇따른 외세의 등장에 1868년 4월 26일(음력) 조정에서는 영종진에 군수물자 분급 및 방어대책 강구를 지시하였다. 진무영(鎭撫營)에서 장의군(壯義軍)과 사수(射手)·포수(砲手)를 징발하여 영종진을 지원하도록 하고, 진무사(鎭撫使)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서울에서 징발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갑곶진(甲串津)에 정박하고 있는 세곡(稅穀) 일부를 영종진 군량으로 분급하였다.

한편 1868년에는 일본에서 정한론(征韓論)<sup>11)</sup>이 대두되었다. 일본 내에서는 메이지유신 이후 조선을 무력 침공하여 정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이는 조선에서 일본의 외교문서가 에도시대의 형식과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을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영종진은 1869년 지자총통 1문, 대포 3문, 불랑기 6문, 화약 1천 근 등을 추가로 배치하며 군비를 증강시켰다.

1870년대 초반, 일본의 정한론은 절정에 이르렀다. 이는 서구 열강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한 시도에서 일본의 실패와 메이지유신에 따른 개혁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시 정한론은 점진적 정한론자와 급진적 정한론자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일본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쇄국정책을 고수하였고, 병인양요(1866년)와 신미양요(1871년)를 겪은 이후 더욱 군비 강화에 주력하는 상황이었다. 흥선대원군이 퇴진한 1873년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종 역시 쇄국정책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1874년 영종진에는 어영청에서 대포, 중포, 소포 등이 다시 분급되어 군비가 강화되었다.

정한론에 불을 붙인 것은 1875년 9월 19일(양력)에 발생한 운요호[雲揚號]<sup>12)</sup> 사건이었다. 1875년 5월 25일(양력), 부산항에 운요호가 들

11) 일본의 에도막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 초기에 당시 정부의 수뇌인 사이고 다카모리, 이타가키 다이스케, 에토 신페이, 고토 쇼지로, 소에지마 다네오미 등에 의해 주장된 정한론은 무력을 이용해 조선을 정벌하려는 정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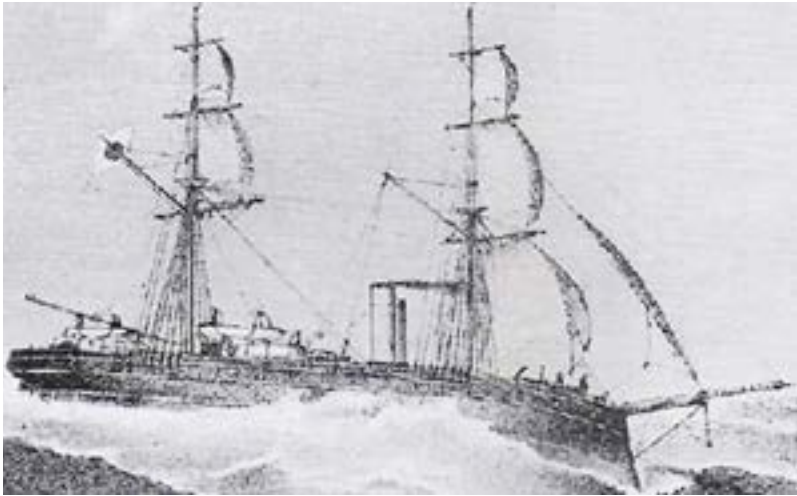
12) 기록에 따라서는 운요함[雲揚艦]이라고 한다. 운요호는 1868년 스코틀랜드 애버딘에서 건조되어 1869년 취역한 군함으로 일본 조슈번(長州藩)의 포함(砲艦)으로 1871년 5월 일본 해군에 편입되었다.



일본의 정한(征韓) 논쟁 모습(일본의 상상도)

어서자, 동래부사는 사전 예고 없이 군함이 입항하였음을 항의하였다. 이어 6월 20일(양력), 동해안을 향해하던 운요호는 7월 1일 나가사키로 회항하였다. 당시 일본 해군성은 운요호 함장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에게 조선 서해안에서 중국 우장(牛莊)에 이르는 해로를 연구하라는 훈령을 하달한 상태였다.

운요호는 인천 연안에 출현하여 조선군과 전투를 벌였다. 1875년 9월 19일(양력), 강화도에 출현한 운요호는 월미도 앞바다에 일단 정박하였다. 9월 20일, 운요호에 탑승한 일본군은 보트를 타고 담수(淡水)를 구한다는 구실로 부평 연안의 난지도(蘭芝島)에 정박하고 강화도 연안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군은 초지진포대에서 일본군에 경고 포격을 실시하였고 일본군은 소총으로 응사하며 난지도로 후퇴하였다. 9월 21일(양력), 운요호가 항산도(項山島) 상류에서 초지진포대를 포격



항해 중인 윤요호



1875년 윤양호가 나가사키에서 중국 무장으로 향하였다고 기록된 문서  
太政官, 「明治八年朝鮮江華島砲撃始末」, 1875(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영종진에 상륙하는 일본군 (일본의 상상도)

하자 초지진에서는 대응 사격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일본군은 항산도 점령 후 불을 질렀다.

강화도에 출현한 운요호에 대하여 조선이 대응하자, 운요호는 영종진으로 항로를 변경했다.<sup>13)</sup> 1875년 9월 22일(양력), 영종진 피격사건이 발발하였다. 운요호에 탑승한 일본군 보병부대 56명은 2척의 보트에 나누어 탑승 후 영종도에 상륙하였다. 조선군이 대응 사격을 하자, 운요

13) 일본에서는 1875년 9월 20일부터 22일(양력)까지 강화도와 영종진에서 발생한 일련의 전투를 통칭하여 “강화도사건(江華島事件)” 혹은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이라 부른다. 본 글에서는 강화도에서 발생한 전투와 영종진에서 발생한 전투를 구분하기 위하여, 영종진에서 발생한 전투를 “영종진 피격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일본 측 원문을 인용하는 경우 원문대로 사용한다.



호는 영종진에 함포 사격을 실시하였고 상륙한 보병부대는 진군하였다. 이때 영종진이 함락되고 군기(軍器)가 약탈되었다.

영종진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조선군 35명이 전사하고 16명이 포로가 되었다. 일본군은 영종진 점령 후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조정에서 전몰자에게 급료와 위문금을 하사하였고, 위령제를 시행하였다.<sup>14)</sup>

일본군에게 약탈당한 영종진의 군기 목록은 다음과 같다.

경기수군 편성

동제포(銅製砲) 21문 동후장포(銅後裝砲) 14문과 탄환 약간 동구포(銅臼砲) 1문 소총(小銃) 동연환(同鉛丸) 약간 삼연포(三連砲) 1문 큰 북 작은 북 북 창 칼 활과 화살 갑옷과 투구	깃발 자루가 긴 도끼 지휘채 군복과 모자 병서류와 그 외 거문고 가야금 횡적(橫笛) 징 기묘한 낫 각 방의 문액(門額) 평상복과 모자 영종성 도면
---	---

영종진이 함락되었다고 조정에 보고되자, 조정에서는 영종방어사 이민덕을 파면하고 전몰자에 대한 보상과 부상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고종실록』에 이와 관련된 상세한 기사가 있어 참고가 된다.

14) 전몰자 위령제는 1910년 폐지되었다가 최근 다시 시행되고 있다.



영종진 전리품 목록

太政官, 「海軍省ヨリ雲揚艦江華島於テ砲撃ノ節分捕及死傷者等届出」, 1875(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영종진을 지켜내지 못하였다는 보고를 받다.

삼군부(三軍府)에서 아뢰기를,

“영종(永宗)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보고가 방금 도착하였습니다. 어떤 추악한 놈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외진 성의 잔군(殘軍)으로는 설령 막아낼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많지도 않은 적도들이 함부로 날뛰도록 놓아두어 관청이 몽땅 불에 타버리고 인신(印信)이 섞여 들어가 녹아버렸는데도 한 놈의 괴수의 목도 베지 못한 채 밖으로 퇴각해 머물렀다고 하니, 그렇다면 방어한 것은 어떤 일입니까? 사율(師律)로 헤아려볼 때 놀라운 일입니다. 해당 방어사 이민덕(李敏德)을 우선 파출(罷黜)시키고 임무가 교대되는 대로 해부(該府)에서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그 후임은 해조(該曹)에서 상격(常格)에

구애되지 말고 각별히 가려서 차임(差任)하게 하여 당일로 말을 주어 내려보  
내게 하고, 인신도 즉시 만들어 주도록 예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六日. 三軍府啓 “永宗失守之報, 纔到矣. 何許小醜, 驀地蹶突, 孤城殘軍,  
縱云莫遏. 無多賊徒, 任其跳踉, 解宇焉蕩爲灰燼, 印信則混入銷化, 而不斬  
一禽之誡, 退駐五里之程. 然則其所備禦者何事? 揆以師律, 萬萬駭然. 該防  
禦使李敏德, 爲先罷黜, 待交符, 令該府拿問定罪. 其代令該曹勿拘常格, 各別  
擇差, 當日給馬下送, 印信卽爲造給事, 分付禮曹何如?” 允之.

『고종실록』 권12, 1875년(고종 12), 8월 26일(음력) 경인

영종진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장사비용을 넉넉히 주라고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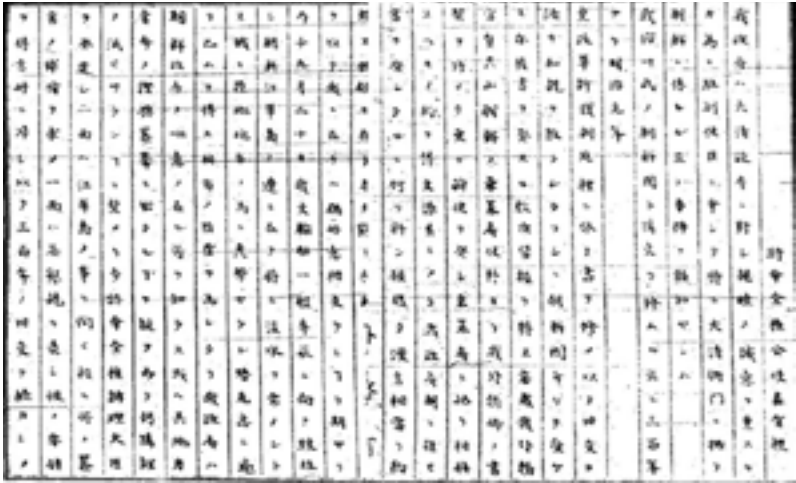
전교하기를, “영종진(永宗鎭)에서 불에 탄 민가와 죽거나 다친 교졸(校卒)이  
아직 숫자가 집계되어 보고되지는 않았으나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장례  
비용을 넉넉히 지급하고 부상당한 사람에게는 약물을 베풀어 구호하며 안집  
(安輯)하게 하는 방도를 가장 급선무로 삼도록 할 것과 아울러 본도(本道)에서  
특별히 위로하고 보살펴 즉시 집을 지어 주게 하여 조정에서 백성들을 돌보아  
주는 뜻을 보여주도록 하라.” 하였다.

敎曰 “永宗鎭人戶之被燒, 校卒之死傷, 姑未有臚數登聞者, 而已死者厚給葬  
需, 被傷者救施藥物. 安輯之方, 最爲急務, 竝自本道, 另加接慰, 俾卽結構,  
以示朝家愍恤之意.”

『고종실록』 권12, 1875년(고종 12), 8월 26일(음력)

영종진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파괴된 영종진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1875년 9월 25일(음력), 조정은 인천부를 방어영으로 승격시키고 영종진을 이속시킨다. 영종진 피격사건 이후 영종진은 종3품 첨절제사가 부임하는 것으로 격하되었고, 영종방어사가 데리고 있던 어영청의 별후부(別後部) 천총(千摠)과 파총(把摠)은 인천방어영으로 이속되었다. 영종진은 종3품 첨절제사를 총 책임자로 하는 독진(獨鎭)으로 시행되었고, 영종진의 첨절제사는 옛 예에 따라 감목관을 겸하였다. 영종진에서 시행하던 도시(都試) 포과(砲科)는 방어영인 인천부로 옮겨 시행하였다. 영종진 피격사건 이전의 영종진은 방어영으로 종2품 방어사가 부임하던 곳이기에 영종진의 격이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큰 피해를 입은 영종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영종진은 9월 30일(음력) 구읍에서 신읍으로 옮겨 재설치된다. 지금의 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운남동 799번지) 일대 부지다. 1875년 11월 12일(음력), 영종진 관아의 신축을 위해 고종은 내탕전(內帑錢)을 하사하였다. 경기감사 민태호(閔台鎬)가 물력전(物力錢) 2만 냥을 요청하였으나, 우선 내탕전(內帑錢) 5천 냥을 하사한 것이다. 1883년 영종방어영이 복설되고 인천부가 독진이 되었다. 인천부의 방어영을 영종진으로 다시 옮겨 설치하고 인천부는 독진으로 시행하여 영종진 피격사건 이전의 형태로 복귀하게 되었다. 또한 감목관은 오로지 영종에 이속하기로 하였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영종진은 혁파되고 영종진이 관할



1875년 12월 20일(양력) 일본이 중국에 영종진 피격사건에 관하여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문서  
 寺島宗則(外務卿), 『黒田辦理大臣使鮮始末 拔萃』, 「前在清公使館 書記官 中島雄으로부터 引繼된  
 清韓 兩國에 관한 서류」 제1권

하던 구역은 인천부 영종면에 소속되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편의상 구읍나루에 위치했던 영종진을 (구)영종진, 영종진 피격사건 이후 백운산 아래로 이전 설치된 영종진을 (신)영종진으로 지칭하고 있다.

영종진에 대한 조사는 여러 차례 수행되어 왔지만 학술목적의 조사라기보다는 주로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에서 목적사업으로 수행한 것이었다.<sup>15)</sup>

15) 인하대학교 박물관, 『신공항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1994), 『수도권신공항건설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1996). ; 인천시립박물관, 『영종옹유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1994), 『영종도 송산유적』(1996). ; 인천대학교 지역사회연구소, 『영종옹유 민속조사 보고서』(1995). ;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인천의 선사문화』(1997).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영종도 논들유적』(1999). ; 한양대학교 박물관, 『영종도 문화유적』(1999), 『옹유무의관광단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2000).

따라서 영종진 자체에 대한 조사보다는 사업대상 인근 지역의 문화 유산을 조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영종진 피격사건 이후, 일본은 조선에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하면서 조선의 개항을 주장하였다. 그 결과 1876년 2월 3일 (음력) 강화도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약이자 불평등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고 차례로 미국, 영국을 비롯한 각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하였다. 결국 영종진 피격 사건은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대항하여 장렬히 희생한 사건인 동시에 강화도 조약의 빌미를 제공하여 개항하게 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구)영종진만을 대상으로 한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sup>16)</sup> 이 조사로 2003년 당시 (구)영종진의 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사보고서에 기록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6)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 (구)영종진지 지표조사보고서』, 2003.

이 지역에 이미 민가와 행락시설들이 들어서 있고 지형 변경이 많이 일어나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사 결과 영종진의 성벽으로 판단되는 내·외성벽의 축조상태와 범위를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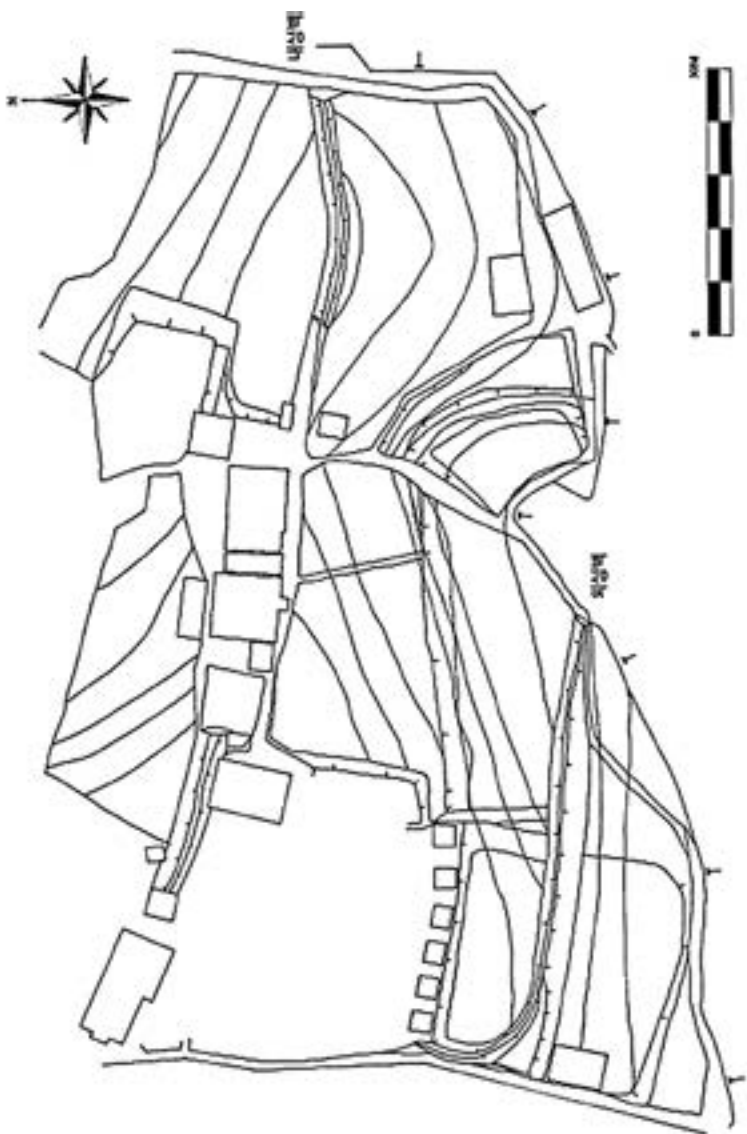
외성벽은 고지도에 나타난 모습을 보았을 때 구릉 전체를 감싸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구릉 남쪽 일부에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성벽은 3~4단 정도만 잔존한 상태로 여장 등 구체적인 성벽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내성벽은 구릉 정상부를 따라 외성벽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현재는 흙으로만 쌓여진 형태이나 일부 성벽에 석축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 외벽이 석축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종진 내 건물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데 관청이 있던 곳으로 추정되는 구릉 북쪽지역에 민가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와, 자기, 토기편으로 대부분 조선시대 유물들이다. 현재 출토된 유물들이 오랜 경작과 지형변경으로 인해 대부분 작은조각으로 출토되어 정확한 시기와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삼국~조선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역사적 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 (구)영종진지 지표조사보고서』, 2003, 53쪽.



(구)영종진지 유적 평면도(1:600)





(구)영종진 외성벽 석축(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구)영종진 출토 기와(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3)

### 3. 북성곶(북변, 남변) 포대와 제물(북변, 남변) 포대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 등 두 번의 양요로 인하여 조선 조정은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 결과 앞서 알아본 것처럼 일본은 영종진 피격(1875)을 감행하여 강화도조약(1876)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1878년 조선 조정에서는 인천부와 부평부의 연안 방비를 위하여 진(鎭)과 포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어영대장 신정희(申正熙)에 의하여 두 진의 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듬해 인천에는 화도진, 부평에는 연희진(連喜鎭)이 신설되기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화도진 관할구역의 군사도인 『화도진도(花島鎭圖)』를 살펴보면 각 진영의 포대시설을 상세히 파악할 수가 있다. 지도 상에서는 묘도 북변포대(5혈), 묘도 남변포대(5혈), 북성곶 북변포대(3혈), 북성곶 남변포대(5혈), 제물 북변포대(8혈), 제물 남변포대(5혈), 논현포대(2혈), 장도포대(3혈) 등이 표시되어 있다. 적의 상륙이 예상되는 주요 해안에는 토루(土壘)를 구축하고 각 포로 화망을 구성하였다. 이 중 북성곶 북변포대와 북성곶 남변포대, 제물 북변포대, 제물 남변포대 등이 지금의 중구지역에 있던 관방시설이다.

북성곶 포대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있었던 포대이다. 여기서 북성은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지역에 있었던 ‘제물진성(濟物鎭城)’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

여지승람』에는 제물량, 제물포영, 제물진 등의 지명이 보이고 이 지명들이 지금의 제물포 지역인 점을 들어 여기서 말하는 군영 또는 군진이 있던 곳을 북성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북성의 위치는 지금 자유공원이 있는 응봉산 자락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효종 때 이 지역에 있던 제물진이 강화도로 옮겨가면서 성은 사라지고 북성이라는 지명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화도진도』에서는 이 포대를 “북성곶남북변포대”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포혈의 숫자는 남변포대 5혈 북변포대 3혈이었다.

또한 북성곶 포대는 『화도진도』에 주기에 의하면 화도진으로부터 서쪽으로 1리 거리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1932년 옛 외국인묘지가 있던 성광아파트 일대가 북변포대, 현재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뒤쪽이 남변포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물포대는 옛 제물진이 있던 자리에 설치된 포대다. 제물포는 『세종실록지리지』 경기 인천군조에 제물량(濟物梁)이 있는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제물’이라는 이름의 나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



북성포 북변포대 터(추정)



북성포 남변포대 터(추정)



제물 북변포대 터(추정)



제물 남변포대 터(추정)

창포(城倉浦)에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있어서 수어(守禦)한다.”라는 제물량(濟物梁)의 세주와 “제물량 만호(濟物梁萬戶)는 인천군(仁川郡) 서쪽 성창포(城倉浦)에 있다.”라는 『세종실록지리지』 경기의 기록을 보면 실제 인천항의 옛 이름은 성창포였고 제물량 즉 제물포는 성창포에 있는 작은 나루였던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고종 때 화도진이 제물포에 설치되면서 남쪽과 북쪽에 포대가 설치된다. 현재 이들 포대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제물 포대의 위치에 대해 『화도진도』의 주기에 의하면 화도진으로부터 2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제물남북변포대’가 있었다고 한다. 포대의 위치를 추측해보면 북변포대는 현재 인천역 앞에 있는 언덕에 있는 거리이고 남변포대는 옛 해관 창고가 있었던 곳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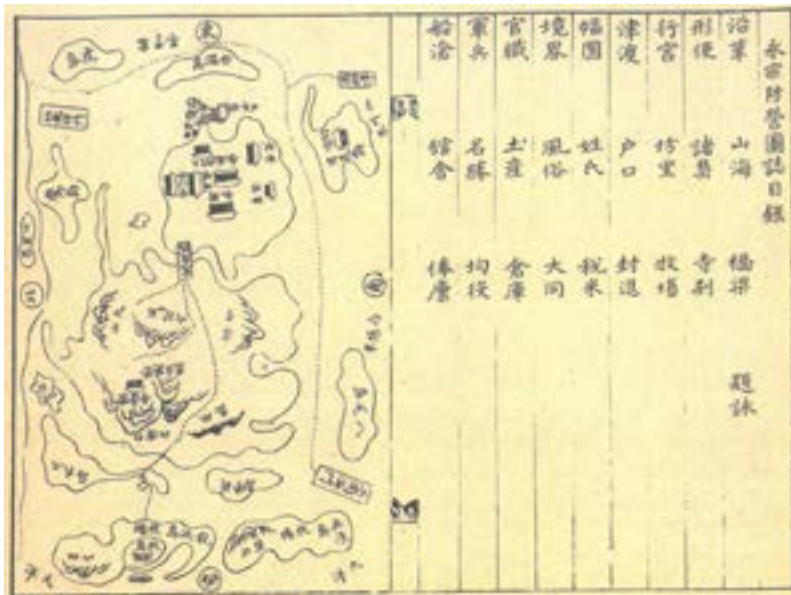
17)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 2002.

## 4.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영종진

### 1) 『여지도서』 「영종방영도지(永宗防營圖誌)」(1757년경)

#### 【건치연혁(建置沿革)】

永宗古號紫燕島. 崇禎癸巳, 南陽府永宗鎮萬戶移設於本島, 兼監牧官. 康熙辛酉, 陞僉使, 屬御營廳. 海防緊重, 位號卑微, 則有違朝家設施之意. 庚午陞防禦使. 乙酉屬之喬桐水營. 戊寅復屬御營廳, 設獨鎮.



『여지도서』의 「영종방영도지」

영종(永宗)은 옛날에 자연도(紫燕島)<sup>18)</sup>라고 불렸다. 승정 계사년(1653년)에 남양부에 있던 영종진만호(永宗鎭萬戶)를 본 섬으로 옮기고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하였다. 강희 신유년(1681)에 첨사(僉使)로 승격시켜 어영청(御營廳)에 속하게 하였다. 바다를 방어하는 긴요하고 중요한 곳이지만 관직이 낮아 조정에서 설치하려는 뜻이 어긋남이 있었으므로 경오년(1690년)에 방어사(防禦使)로 승격시켰다. 을유년<sup>19)</sup>(1705)에 교동수영(喬桐水營)에 속하게 하였다. 무인년(1758)에 다시 어영청에 소속시켜 독진(獨鎭)으로 만들었다.

#### 【형편(形便)】

本鎭在於江都一息之地，地勢如龜伏形，東頭西尾。環海爲池，繞山爲郭，捍蔽江都之一面，爲控扼之勢。漕船商舶，咸過於此，爲水路之咽喉。東有濟物津，緩急之際，或值冬節，江都甲串津流漸蔽江，船路難通，則自仁川府渡本鎭，以達江都。南有月尾島，建置行宮，以爲臨急駐蹕之所，并置水陸軍兵，專爲迎駕扈衛之計。西有龍流島，十里隔浦。潮至而成海，潮退而成陸。淤泥沒人。若值潮生，雖土人亦難尋路。荊州之夏口，金陵之采石，未見其如何。而畿輔形勢之可恃者，未有勝於此也。

18)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의하면 “그 산의 동쪽 한 섬에 날아다니는 제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라고 하여 섬의 이름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후 1653년(효종 4)에 남양부에 있던 영종진이 옮겨와 ‘영종(永宗)’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19) 1842년에 간행된 『영종진읍지』에는 을미년(1715)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승정원일기』 1758년(영조 34) 7월 25일자 기사에서도 영종진이 교동수영에 속하는 시기가 1715년(숙종 41)로 기록되어 있어 위의 을유년은 을미년의 오키로 보인다.

본진(本鎭)은 강도(江都)에서 1식(息)<sup>20)</sup> 거리에 있는 땅으로 땅의 형세는 거북이가 엎드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동쪽이 머리가 되고 서쪽이 꼬리가 된다. 둘러싼 바다가 해자(垓字)가 되고 에워싼 산이 외성(外城)이 되니 강도(江都)의 한 쪽 면을 덮고 있어 적을 막아 지키는 형세를 이루고 있다. 조운선(漕運船)과 상선(商船)들은 모두 이곳을 지나니 물길의 인후(咽喉)가 된다. 동쪽으로는 제물진(濟物津)이 있는데 긴급한 때나 혹 겨울에 강도(江都)의 갑곶진(甲串津)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강이 막혀서 뱃길이 통하기 어렵게 되면 인천부(仁川府)에서 본진(本鎭)으로 건너 강도(江都)에 이른다. 남쪽에는 월미도(月尾島)가 있는데 행궁을 지어 위급할 때 머무르는 장소로 삼고 아울러 수군과 육군을 두어 오로지 어가(御駕)를 맞이하여 경호하는 계책으로 삼았다. 서쪽에 용유도(龍流島)가 있어 포구와는 10리 떨어져 있다. 밀물 때는 바다가 되고, 썰물 때는 육지가 된다. 진흙에 사람이 빠지므로 만약 밀물을 만나면 토착인이라고 해도 길을 찾기 어렵다. 형주(荊州)의 하구(夏口)<sup>21)</sup>와 금릉(金陵)의 채석(采石)<sup>22)</sup>도 이와 같지는 않다. 서울과 경기(京畿)를 돕는 형세로 믿을 만한 것으로는 아직 이곳보다 뛰어난 곳은 없다.

20) 1식(息)은 1참(站)이라고도 한다. 1902년 도량형 개혁 때 1자(尺)는 20cm, 1보(步)는 6자 즉 1.2m, 1리(里)는 420m, 1식(息)은 12.6km이 되었다.

21) 중국 호북성의 성도(省都)인 무한시(武漢市) 한구(漢口)로 서기 208년 조조(曹操)가 손권(孫權)과 유비(劉備)의 연합군과 싸웠던 적벽대전(赤壁大戰)의 무대이다.

22) 채석기(采石磯)라 불리는 안휘성(安徽省) 당도현(當塗縣) 우저산(牛渚山) 북쪽 장강의 한 강변.



【행궁(行宮)】<sup>23)</sup>

[在月尾島, 子坐午向] 正殿八間, 東月廊四間, 西月廊四間, 南月廊七間, 守直間三間, 內中門一間, 外中門一間. [古臨海寺基址. 仁川府使尹檄創建, 爲關防之備. 其後本鎮僉使韓碩良重修. 守直軍三名恒居, 除身役戶役].

[월미도에 있으며 정남쪽을 향하고 있다.] 정전(正殿)은 8칸이고, 동월랑(東月廊)은 4칸이며, 서월랑(西月廊)은 4칸이고, 남월랑(南月廊)은 7칸이다. 수직(守直)간은 3칸이고 내중문(內中門)은 1칸이며 외중문(外中門)은 1칸이다. [옛 임해사(臨海寺) 터이다. 인천부사 윤부(尹檄)가 창건하여 관방(關防)의 대비책으로 삼았다. 그 후 본진(本鎭)의 첨사 한석량(韓碩良)이 중수(重修)하였다. 수직군(守直軍) 3명이 항상 살고 있다. 신역(身役)<sup>24)</sup>과 호역(戶役)을 면제 받았다.]

【진도(津渡)】

濟物津 [在鎭前. 東距仁川界十里. 有津船二隻. 本營水操時, 行海渡, 習儀水陸軍兵, 各乘待變船, 左右挾衛等, 節依備邊司節目, 舉行].

23) 행궁(行宮)이란 왕이 거동할 때 머무는 별궁(別宮) 또는 이궁(離宮)을 말한다.

24) 신분에 따른 역(役)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국역(國役)은 신역(身役)과 요역(徭役)으로 구분되며, 신역(身役)에는 직역(職役)과 군역(軍役)이 있었다. 이러한 국역(國役)의 부과대상은 16세부터 60세에 이르는 모든 인정(人丁)이었다.

제물진(濟物津)<sup>25)</sup> [진(鎭) 앞에 있다. 동쪽으로 인천 지역과 10리 떨어져 있다. 나룻배는 2척이 있다. 수영에서 수군을 훈련할 때, 바다를 건너는 연습을 하고 수군과 육군의 병사들은 각기 대변선(待變船)<sup>26)</sup>에 올라 좌우를 협위(挾衛)하는 등의 절차는 비변사 절목에 의거하여 거행한다.]

#### 【진지폭원(鎭地幅圓)】

長自東至西三十里, 廣自南至北十里, 周回七十里.

길이는 동서로 30리이고, 너비는 남북으로 10리이며, 주위는 70리이다.

#### 【경계(境界)】

東距仁川界 [水路十里], 西距外洋 [水路五十里], 南距南陽界 [水路五十里],  
北距江華界 [水路二十里, 陸路八十里], 北距喬桐水營 [水路一百八十里, 陸路一百五十里], 東距京城 [水路二百里, 陸路八十里], 南距德積鎭 [水路九十里]

동쪽으로는 인천과 경계를 하고 있다. [물길로 10리 떨어져 있다.] 서쪽으로는 바다와 떨어져 있다. [물길로 50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남양(南陽)과 경계를 하고 있다. [물길로 50리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25) 영종진 앞 현재의 구읍나루터이다. 조선시대 나루터 이름은 상대하는 반대편 나루터 이름과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인천의 제물진과 영종의 구읍나루터는 모두 '제물진'이란 이름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26) 조선후기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연해의 요해지에 주둔시켰던 군선(軍船). 대변선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지만, 훈련도감의 대변선은 쌀 수백 석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강화의 경계를 하고 있다. [물길로 20리, 육로로 80리 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교동수영과 떨어져 있다. [물길로 180리, 육로로 150리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는 서울과 떨어져 있다. [물길로 200리, 육로로 80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는 덕적진(德積鎭)과 떨어져 있다. [물길로 90리 떨어져 있다.]

#### 【관직(官職)】

防禦使 [武從二品] 兼僉使 [武從三品] 二周年交遞. 句管邑 [仁川 富平 安山]. 營屬中軍一 把總二 哨官八 教鍊官八 旗牌官十五 帶率軍官二 防營軍官一百六十 輪回立番. 待變軍官六十, 輪回立番. 舟師將一 軍器監官一 別破陣十八 營吏一 鎭撫十五 知印十二 使令二十五 吹手二十五 官奴十二 官婢十二.

방어사[무관으로 종2품]는 첨사[무관 종3품]를 겸하며 2년 주기로 교체된다. 관리하는 읍은 [인천, 부평, 안산]이다. 영(營)에 소속된 것으로는 중군(中軍) 1명, 파총(把總) 2명, 초관(哨官) 8명, 교련관(教鍊官) 8명, 기패관(旗牌官) 15명, 대솔군관(帶率軍官) 2명, 방영군관(防營軍官) 160명이며 돌아가며 번을 선다. 대변군관(待變軍官) 60명이 돌아가며 번을 선다. 주사장(舟師將) 1명, 군기감관(軍器監官) 1명, 별파진(別破陣) 18명, 영리(營吏) 1명, 진무(鎭撫) 15명, 지인(知印) 12명, 사령(使令) 25명, 취수(吹手) 25명, 관노(官奴) 12명, 관비(官婢) 12명이다.

【수·육군병(水陸軍兵)】

水軍二百七十九, [仁川六十七名, 富平九十四名, 本鎭六十名, 通津三名, 長湍一名, 楊根罰定一名] 陸軍別隊軍八哨, 大旗手四十八.

수군은 279명[인천에 67명, 부평에 94명, 본진(本鎭)에 60명, 통진에 3명, 장단(長湍)에 1명, 양근벌정(楊根罰定) 1명], 육군별대군(陸軍別隊軍) 8초, 대기수(大旗手) 48명이다.

【선창(船倉)】

防船二, 兵船二, 艀舳船一, 汲水船四, 待變軍餉米一百五十石, 蒸米六石, 米食三石, [間三年改色], 醬二十七石 [間五年改色] 鹽眞魚二十束 蘇魚醃五百級 [逐年改色] 土花醃四石十一斗 [間三年改色], 炭一百石 [埋置白雲山瞿曇寺洞口, 自鎭西距十里].

방선(防船)<sup>27)</sup> 2척, 병선(兵船)<sup>28)</sup> 2척, 거도선(艀舳船)<sup>29)</sup> 1척, 급수선(汲水船) 4척이다. 변고에 대비한 군량미는 150섬이고 찌쌀은 6섬이고, 미수가루는 3섬이다. [3년 안에 바꾼다]. 장은 27섬이고 [5년 안에 바꾼다],

27)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군선은 대선·중대선·중선·병선·쾌선·맹선·중맹선·별선·무군선·선·왜별선·추왜별선·추왜별맹선 등 13종에 829척이다. 방선(防船)은 조선초기의 중맹선을 개조한 것으로 대략 60명이 탈 수 있었다.

28) 주로 적선을 추격할 때에 쓰는 비교적 작은 전투용 함선이다.

29) 거룻배 또는 거루, 주로 항만에서 육지와 본선(本船) 사이, 또는 배와 배 사이를 오가는 배.

소금에 절인 준치는 20속이며, 밴댕이젓갈[蘇魚醢]은 500급이다[매년 바꾼다]. 토화(土花)젓은 4섬 11두이고 [3년 안에 바꾼다], 숯은 100섬이다[백운산(白雲山) 구담사(瞿曇寺) 입구에 묻는데, 진(鎭)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 【산과 바다(山海)】

白雲山 [在鎭西十里, 禁山], 石花山 [在鎭西五里], 王山 [在鎭西四十里龍流島, 禁山], 大山 [在鎭北十里, 禁山], 松山 [在鎭南七里], 八尾海 [在鎭南水路五十里, 船路咽喉], 無根海 [在鎭前], 虎島洋 [在鎭北十五里], 黃山洋 [在鎭北二十里, 江都捍門], 王山串海 [在鎭西六十里].

백운산(白雲山) [진(鎭)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다. 금산(禁山)이다.] 석화산(石花山) [진(鎭)에서 서쪽으로 5리 떨어진 곳에 있다.] 왕산(王山) [진(鎭)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진 용유도에 있고 금산(禁山)이다.] 대산(大山) [진(鎭)에서 북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다.] 금산(禁山)이다. 송산(松山) [진(鎭)에서 남쪽으로 7리 떨어진 곳에 있다.] 팔미해(八尾海) [진(鎭)에서 남쪽으로 물길로 50리 떨어진 곳에 있다.] 뱃길의 인후(咽喉)이다. 무근해(無根海) [진(鎭) 앞에 있다.] 호도양(虎島洋) [진(鎭)에서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있다.] 황산양(黃山洋) [진(鎭)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강도로 가는 입구이

다.] 왕산곶해(王山串海) [진(鎭)에서 서쪽으로 60리 떨어진 곳에 있다.]

#### 【여러 섬】

勿溜島 [在鎭北五里, 無人居], 薪佛島 [在鎭西三十里, 有人居], 龍流島 [在鎭西五十里, 有人居, 牧場], 虎島 [在鎭北十五里富平界], 八尾島 [在鎭南五十里無人居], 三木島 [在鎭西三十里, 有人居], 無懷島 [在鎭南五十五里有人居牧場].

물치도(勿溜島) [진(鎭)의 북쪽 5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다.] 신불도(薪佛島) [진(鎭)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산다.] 용유도(龍流島) [진(鎭)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살며 목장이 있다.] 호도(虎島) [진(鎭)에서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부평과 경계를 이룬다.] 팔미도(八尾島) [진(鎭)에서 남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다.] 삼목도(三木島) [진(鎭)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산다.] 무회도(無懷島)<sup>30)</sup> [진(鎭)에서 남쪽으로 55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람이 살고 목장이 있다.]

30) 용유도 남쪽의 무의도(舞衣島)를 말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무의도(無衣島)로 표기하고 있다.

### 【방리(方里)】

營下坊 前所坊 [在鎭西十里], 後所坊 [在鎭西二十里], 三木坊 [在鎭西三十里], 龍流坊 [在鎭西四十里], 里任風憲一 約正五 尊位五.

영하방(營下坊)·전소방(前所坊) [진(鎭)의 서쪽 10리 떨어진 곳에 있다.] 후소방(後所坊) [진(鎭)의 서쪽 2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삼목방(三木坊) [진(鎭)의 서쪽 3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용유방(龍流坊) [진(鎭)의 서쪽 40리 떨어진 곳에 있다.] 이임(里任)이 있는데 풍헌(風憲)<sup>31)</sup> 1명, 약정(約正)<sup>32)</sup> 5명, 존위(尊位)<sup>33)</sup> 5명이다.

### 【호구(戶口)】

己卯式, 八百五十戶, 人口三千三十八口. 男一千五百九十一口, 女一千四百四十七口.

기묘식(己卯式, 1759) 호적에 의하면 850호(戶)에 인구 3,038명이다. 남자는 1,591명이고 여자는 1,447명이다.

31) 조선시대 향소직(鄕所職)의 하나로 각 면내의 수세(收稅)·차역(差役)·금령(禁令)·권농(勸農)·교화 등 모든 일선 행정 실무를 주관해 1면의 민정을 장악했다.

32) 조선시대 향약 조직의 임원으로 면임(面任)을 뜻하는 경우는 부헌(副憲)이라고도 하여 풍헌(風憲) 다음의 직책을 맡았고 때로는 교화를 담당하는 집강(執綱)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33) 존위(尊位)는 조선시대 각 동리에 설치된 일종의 자치조직인 동약(洞約) 혹은 동회(洞會)의 우두머리이다.

### 【풍속(風俗)】

務農畊, 利魚鹽.

농사에 힘쓰고 물고기와 소금으로 이익을 얻는다.

### 【토산(土産)】

川椒, 海艾, 白鹽, 民魚, 秀魚, 眞魚, 蘇魚, 鱸魚, 石魚, 沙魚, 絡蹄, 魮魚, 海  
胖, 土花, 石花, 生蛤, 竹蛤, 黃蛤, 石首魚.

천초(川椒)<sup>34)</sup>, 바다 쑥[海艾], 흰 소금, 민어, 송어, 준치, 뱀뱀이, 농어,  
석어(石魚), 상어, 낙지, 홍어, 해양(海贛)<sup>35)</sup>, 미네굴<sup>36)</sup>, 참굴, 날것 상태  
의 대합(大蛤), 맛조개, 가무락조개, 조기[石首魚].

### 【관사(館舍)】

領海館, 量海堂, 太平樓, 慶源亭, 古有今無.

34) 천초(川椒)는 조피라고도 하며, 그 잎을 음지에서 말린 후 분말을 만들면 한약재가 되었다. 영종산 조피는 양질로 상납품 약재로 유명했다고 전한다.

35) 해파리로 추정되는데, 허균의 『도문대작(屠門大嚼)』에 의하면 해양(海贛)은 “인천(仁川)과 남양(南陽) 등지에서 잡히는데 소의 지라맛과 같고 두 지방 사람들이 요리를 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36) 굴과의 바닷물조개. 굴이나 토굴과 비슷하나 훨씬 크고 긴 타원형이며 맛이 좋다. 조수가 드나드는 바다 밑 뿔에 사는데 우리나라의 서남해에서 많이 난다.



영해관(領海館), 양해당(量海堂), 태평루(太平樓), 경원정(慶源亭), 옛날  
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 【교량(橋梁)】

萬歲橋 在鎮西二里許，石築。長六十把，廣二把。瞿曇寺僧將海明，仍舊址增  
築，刻橋名立碑。

만세교(萬歲橋) 진(鎭)의 서쪽 2리쯤에 있으며 돌로 쌓았다. 길이는 60  
파(把)이고 넓이는 2파(把)이다. 구담사(瞿曇寺)의 승장(僧將) 해명(海  
明)이 옛 터에 증축하였고 다리 이름을 비석에 새겨 세웠다.

#### 【사찰(寺刹)】

瞿曇寺[在白雲山 僧將一，料米六斗，以大同米放下]，瞭望僧三名[瞭望荒唐船]。

구담사(瞿曇寺) [백운산(白雲山)에 있으며 승장(僧將)이 1명이다. 요미  
(料米)는 6두인데 대동미에서 내어준다.] 요망(瞭望)을 보는 승려 3명  
[황당선(荒唐船)<sup>37)</sup>을 감시한다.]

37) 조선중기 이후에 '이국선(異國船)'을 달리 이르던 말. 모양이 눈에 설어서 황당한 것이라는 뜻이다.

### 【목장(牧場)】

龍流島[在鎮西四十里, 長十五里, 廣五里. 場馬八十八匹, 雌馬三十九匹, 雄馬四十九匹. 牧子七十二名, 假家十五間 七間在場內, 八間在北井, 郊穀草[四千束, 牧子擔當積置]. 標內田畝并十八結七十二負[牧子位田劃給], 無懷島[在鎮南五十五里, 長十五里, 廣十里], 場馬一百九匹 [雌馬四十九匹, 雄馬六十匹]. 牧子二十八名, 假家五間[郊穀草二千束, 牧子擔當積置], 標內田畝一結八十六負[牧子位田劃給], 兩島牧馬一百九十七匹內[雌馬八十八匹, 每年取三雌, 一息點考, 錄案報本寺], 薪佛島舊牧場[牧馬移送長峯鎮後, 許民起畊, 田畝并二結八十負, 每年稅納本寺].

용유도(龍流島) 목장 [진(鎭)에서 서쪽 4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길이는 15리이고, 넓이는 5리이다. 목장에 있는 말은 88필이다. 암말이 39필이고 수말이 49필이다. 목자(牧子) 72명과 임시 가옥 15칸이 있다. 7칸은 목장안에 있으며 8칸은 북정(北井)에 있다.] 교곡초(郊穀草)<sup>38)</sup> [4천속이고 목자(牧子)가 쌓아두는 일을 담당한다.] 표내(標內)의 전답(田畝)은 총 18결 72부이다. [목자(牧子)의 위전(位田)<sup>39)</sup>으로 지급한다.] 무회도(無懷島) 목장 [진(鎭)에서 남쪽으로 55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길이는 15리이고 너비는 10리이다.] 목장의 말은 109필이다. [암말이 49필

38) 들풀과 곡초(穀草)를 말한다.

39) 관청·학교·사원(寺院)·능(陵) 등의 유지경비를 위해 설정된 토지이다.

이고 수말이 64필이다.] 목자(牧子) 28명과 임시 가옥 5칸이 있다. [교곡초(郊穀草)는 2천속이고 목자(牧子)가 쌓아두는 일을 담당한다.] 표내(標內)의 전답(田畓)은 총 1결 86부이다. [목자(牧子)의 위전(位田)으로 지급한다.] 두 섬에서 기르는 말은 197필이다. [암말은 88필인데 매년 암말 세 마리에 대해서 새끼 한 마리를 바치는 것을 점고(點考)하여 기록한 다음 본 관청<sup>40)</sup>에 보고한다.] 신불도(薪佛島)의 옛 목장 [장봉진(長峯鎭)으로 기르던 말들을 옮긴 후 백성들이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니 전답이 모두 2결 80부인데 매년 본 관청으로 세금을 낸다.]

#### 【봉진(封進)】

場馬一匹 每年別擇於兩島牧馬中. 八月捉馬馴養, 翌年四月上納. 本寺分養馬, 一依本寺, 區劃捉送.

목장의 말 1필이다. 매년 두 섬에서 기르는 말 중 별도로 택한다. 8월에 말을 뽑아서 길들이고 다음해 4월 본 관청에 상납한다. 본 관청의 분양마(分養馬)는 모두 본 관청에서 알아서 나누어 뽑아 보낸다.

#### 【한전(旱田)】

一百一十一結二十五負內 [五結劃給本鎭捧稅, 以補軍需, 實結一百六結二十五負].

40) 궁중의 가마, 「마필(馬匹)」, 목장 등을 관장하는 사복시(司僕寺)를 말한다.

111결 25부이다. [5결은 본진(本鎭)에서 세금을 거두는 용도로 획급(劃給)하여 군수물자를 보충하였으므로 실제 결수는 106결 25부이다.]

【수전(水田)】

五十八結六十負內[五結劃給本鎭捧稅, 以補軍需, 實結四十八結六十負].

58결 60부이다. [5결은 본진(本鎭)에서 세금을 거두는 용도로 획급(劃給)하여 군수물자를 보충하였으므로 실제 결수는 48결 60부이다.]

【세미(稅米)】

十二石十四斗. 太二十八石五斗四升[二月捧, 三月裝載於地土船, 自鎭下無根海, 過江華孫芑項, 止泊于甲串津, 待潮直到西江, 納廣興倉].

12섬 14두. 콩 28섬 5두 4승이다. [2월에 받고 3월에 지토선(地土船)<sup>41)</sup>으로 짐을 꾸려 옮기고 진(鎭)에서 무근해(無根海)로 내려가는데 강화 손돌목을 지나 갑곶진에서 정박하였다가 밀물을 기다려 서강(西江)에 이르러 광흥창(廣興倉)<sup>42)</sup>에 납부한다.]

41) 지방 토착민이 소유한 배.

42)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와우산 기슭에 위치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세곡을 저장하였던 곳이며, 이곳의 쌀은 주로 관리들의 월급을 주는데 사용하였다.

**【대동(大同)】**

米一百二十三石十四斗五升[捧留本鎮, 會付備局. 防禦使料各項料, 每朔九石二斗九升, 會減取用. 一年放下, 一百十石四斗八升, 餘在米十三石九斗九升, 待變船隻改造時放下].

쌀은 123섬 14두 5승이다. [본진(本鎭)에서 거두어 비변사에 준다. 방여사의 녹봉과 각 항(項)의 녹봉은 매달 1일 9섬 2두 9승인데 줄 것과 받을 것을 서로 계산하고 나머지를 셈하여 취해 쓴다. 1년에 방출하는 것은 110섬 4두 8승이며 나머지는 쌀 13섬 9두 9승이니 배를 바꾸고 고칠 때를 기다려 방출한다.]

**【창고(倉庫)】**

營倉還米四百四十九石八斗 [備局會付四百三十七石, 賑廳會付十一石十一斗十二斗四升].

영(營)의 창고에는 환곡미(還穀米) 449섬 8두가 있다. [비변사에 회부(會付)된 것은 437섬 12두이며, 진휼청에 회부(會付)된 것은 11섬 11두 4승이다.]

### 【둔창(屯倉)】

還祖六百三十九石四斗【備局會付四百五十六石五斗, 賑廳會付一百八十二石十斗】 태一百八十七石三斗【備局會付八十二石九斗, 賑廳會付一百四石十四斗】 豆四十三石十斗【備局會付】 春牟七百十七石一斗【備局會付六百十二石, 賑廳會付一百四石十斗】 木麥一百二十一石【備局會付八十四石七斗, 賑廳會付三十六石八斗】 合各穀二千二百十七石十一斗【折半留庫, 折半春間分給. 十月開倉, 十二月內畢捧, 後封庫】.

환조(還祖)는 639섬 4두이다. [비변사에 회부된 것이 456섬 5두, 진휼청에 회부된 것은 182섬 10두이다.] 태(太)는 187섬 3두이다. [비변사에 회부된 것은 82섬 9두, 진휼청에 회부된 것은 104섬 14두이다.] 두(豆)는 43섬 10두이다. [비변사에 회부되었다.] 봄보리(春牟)는 717섬 1두이다. [비변사에 회부된 것이 612섬이고, 진휼청에 회부된 것이 104섬 10두이다. 메밀(木麥)은 121섬이다. 비변사에 회부된 것이 84섬 7두이고, 진휼청에 회부된 것이 36섬 8두이다.] 모두 합하여 2,217섬 11두이다. [절반은 창고에 있고 절반은 봄에 나누어 준다. 10월에 창고를 열었다가 12월에 거둔 후에 창고를 봉한다.]

### 【목창(牧倉)】

還租二百六石十一斗, 春牟三百六十三石, 合穀五百六十九石十一斗【司僕寺句管. 龍流島無懷島兩牧場牧子受食, 傾庫分給, 待秋還捧. 倉在龍流島】.

환조(還租)는 206섬 11두, 봄보리는 363섬, 모두 합하여 569섬 11두이다. [사복시가 관리한다. 용유도(龍流島)와 무회도(無懷島) 두 목장의 목자가 (이것을) 받아먹는데 창고(倉庫)의 물건(物件)을 다 내놓아 나누어 주고 가을을 기다려 돌려받는다. 창고는 용유도(龍流島)에 있다.]

#### 【병고(兵庫)】

錢文八百三十七兩 [五百五十八兩, 水軍二百七十九名, 每名一疋代錢二兩式, 捧二百七十九兩水軍減一疋代, 每年受來於均役廳] 白木七同三十四疋 [代錢七百六十八兩, 每年受來於兵曹]. 都合錢一千六百五兩 [防軍三十二名, 每名每朔三兩六錢七分式, 一朔放下, 一百十七兩三錢四分式, 一年十二朔放下, 一千四百八兩八分. 餘錢一百九十六兩九錢二分, 以補軍需].

돈[錢文]은 837냥이다. [558냥은 수군 279명이 각 사람마다 1필을 돈 2냥으로 대신하도록 정한 것이며, 바치는 279냥은 수군이 1필을 줄이는 대신 매년 균역청에서 받아오는 것이다.] 무명[白木]은 7동 34필이다. [물건 대신 주는 돈 768냥이다. 매년 병조에서 받아온다.] 모두 합하여 1,605냥이다. [방군(防軍) 32명은 각 사람마다 매달 3냥 6전 7푼씩이며, 매달 나가는 돈의 액수는 117냥 3전 4푼씩이고, 1년 12달 나가는 돈의 액수는 1408냥 8푼이다. 남은 돈 196냥 9전 2푼으로 군수 물자를 보충한다.]

### 【균역(均役)】

廳稅納條, 錢文八十一兩六錢【地土船三十二隻稅】錢文二百二十八兩九錢  
【鹽釜三十一坐稅】錢文十兩【漁場一處稅】錢文十一兩【網機十七稅】都合錢  
文三百三十二兩四錢【六十兩, 依節目待變, 醬醢價除三十三兩, 以升一稅, 劃  
給本鎮】實上納錢文二百三十九兩二錢【春秋分等, 捧上納該廳】.

관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명목으로 돈 81냥 6전은 [지토선(地土船) 32 척에 대한 세금이고,] 돈 228냥 9전은 [소금을 굽는 솥 31개에 대한 세금이며,] 돈 10냥은 [어장(漁場) 1곳에 대한 세금이고,] 돈 11냥은 [그 물틀 17개에 대한 세금이다.] 모두 합하여 332냥 4전이나 [60냥은 절목에 의거하여 변고에 대비하는 용도로 쓰고, 장과 젓갈은 본래 가격에서 33냥을 깎고 세금을 10분의 1로 하여 본진에 획급(劃給)한다], 실제 받는 돈은 239냥 2전이다. [봄과 가을로 나누어 거두어들여 해당관청에 상납한다.]

### 【봉급(俸廩)】<sup>43)</sup>

米六十石【每朔五石式, 取用於大同, 後會減】生雉二十首, 生鷄一百二十首  
【大戶捧生雉一首, 中戶鷄一首捧, 小戶鷄半首式. 一年一次式捧】柴二千二百束, 草六百束, 炭二十七石【結役, 捧每結柴十束, 草十束, 炭十斗】.

43) 관리(官吏)에게 봉급(俸給)으로 주는 쌀로 능봉(廩俸)이라고도 함.



쌀 60석 [매달 초 1일 5섬씩 주기로 정하였다. 대동미에서 쓰고 나중에 회감(會減)<sup>44)</sup>한다.] 생 꿩고기 20마리, 생닭 120마리 [대호(大戶)는 날 꿩고기 1마리를 바치고, 중호(中戶)는 닭 1마리를 바치고, 소호(小戶)는 닭 반마리를 바치도록 정하였고 1년에 1번만 바치도록 정하였다.] 땔감 2,200속 초(草) 600속 숯[炭] 27섬. [결역(結役)<sup>45)</sup>으로 매번 잡목10속, 풀 10속, 숯 10두를 준다.]

## 2) 『영종진읍지(永宗鎭邑誌)』 (1842년, 奎17355)

### 【건치연혁(建置沿革)】

永宗古號紫鷺島. 崇禎癸巳設鎭. 初以水軍萬戶兼監牧官. 康熙辛酉陞僉使屬御營廳. 海防緊重. 位號卑微. 則有違 朝家設施之意. 四去庚午陞防御使. 乙未屬之喬桐水營. 戊寅復屬御營廳. 設獨鎭.

영종(永宗)은 옛날에 자연도(紫燕島)라고 불렸다. 승정(崇禎) 계사년(1653) 진이 설치된 초기에 수군만호(水軍萬戶)와 감목관(監牧官)을 겸하게 했다. 강희(康熙) 신유년(1681) 첨사(僉使)로 승격시켜 어영청(御營廳)에 속하게 하였다. 바다를 방어하는 긴요하고 중요한 곳이지만 관직이 낮아 조정에서 설치하려는 뜻이 어긋남이 있어, 지난 경오년

44) 줄 것과 받을 것을 마주 살펴 보아서 나머지를 셈하는 것.

45) 조선시대 결세(結稅) 중에서 경저리(京邸吏), 영저리(營邸吏)들에게 주던 급료(給料).

(1690)에 방어사(防禦使)로 승격시켰다. 을미년(1715)<sup>46)</sup>에 교동(喬桐)수영(水營)에 속하게 하였다. 무인년(1758) 다시 어영청에 소속시켜, 독진(獨鎭)으로 만들었다.

#### 【형편(形便)】

本鎭在於江都一息之地，地勢如龜伏形，東頭西尾。環海爲池，繞山爲郭，捍蔽江都之一面，爲控扼之勢。漕船商舶，咸過於此，爲水路之咽喉。東有濟物津，緩急之際，或值冬節，江都甲申津流漸蔽江，船路難通，則自仁川府渡本鎭，以達江都。南有月尾島，建置行宮，以爲臨急駐蹕之所，并置水陸軍兵，專爲迎駕扈衛之計。西有龍流島，十里隔浦。潮至而成海，潮退而成陸。淤泥沒人，若值潮生，雖土人亦難尋路。荊州之夏口，金陵之采石，未見其如何，而畿輔形勢之可恃者，未有勝於此也。

본진(本鎭)은 강도(江都)에서 1식(息) 거리에 있는 땅으로 땅의 형세는 거북이가 엎드린 모양을 하고 있는데 동쪽이 머리가 되고 서쪽이 꼬리가 된다. 둘러싼 바다가 해자가 되고 에워싼 산이 외성이 되니 강도(江都)의 한 쪽 면을 덮고 있어 적을 막아 지키는 형세를 이루고 있다. 조운선과 상선들은 모두 이곳을 지나니 물길의 인후(咽喉)가 된다. 동쪽으

46) 『여지도서』 건치연혁에는 乙酉로 기록되어 있어, 대부분의 연구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를 '숙종 31년(1705)'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 읍지와 마찬가지로 『승정원일기』 1758년(영조34) 7월 25일자 기사에서도 '1715년(숙종41)'로 기록되어 있다.

로는 제물진(濟物津)이 있는데 긴급한 때나 혹 겨울에 강도(江都)의 갑곶진(甲串津)에서 물이 흐르지 않고 강이 막혀서 뱃길이 통하기 어렵게 되면 인천부(仁川府)에서 본진(本鎭)으로 건너 강도(江都)에 이른다. 남쪽에는 월미도(月尾島)가 있는데 행궁을 지어 위급할 때 머무르는 장소로 삼고 아울러 수군과 육군을 두어 오로지 어가(御駕)를 맞이하여 경호하는 계책으로 삼았다. 서쪽에 용유도(龍流島)가 있어 포구와는 10리 떨어져 있다. 밀물 때는 바다가 되고, 썰물 때는 육지가 된다. 진흙에 사람이 빠지므로 만약 밀물을 만나면 토착인이라고 해도 길을 찾기 어렵다. 형주(荊州)의 하구(夏口)와 금릉(金陵)의 채석(采石)도 이와 같지는 않다. 경기도를 돕는 형세로 믿을 만한 것으로는 아직 이곳보다 뛰어난 곳은 없다.



『영종진읍지(永宗鎭邑誌)』(1842년 奎17355)

### 【방곡(坊谷)】

營下面[自官一里], 前所面[自官西距十里], 後所面[自官西距二十里], 三木面[自官西距三十里, 間有五里浦洩, 潮至而成海, 潮退而成陸], 龍流面[自官西距四十里, 間有十里浦], 舞衣島[自官西距五十里, 間有五里一津], 自本鎮東距仁川界濟物津, 爲水路十里, 又距京城、爲陸路八十里. 東距富平界, 爲水路二十里. 南距南陽界, 爲水路一百里. 南距續德鎮、爲水路三百里. 西距臨茫茫大洋. 北距江華界. 爲水路八十里.

영하면(營下面) [관(官)으로부터 1리 떨어져 있다.] 전소면(前所面) [관으로부터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후소면(後所面) [관으로부터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삼목면(三木面) [관으로부터 서쪽으로 30리 떨어져 있고, 사이에 5리 되는 포벌(浦洩)이 있는데, 밀물이 들어오면 바다가 되고, 썰물이 되면 육지가 된다.] 용유면(龍流面) [관으로부터 서쪽으로 40리 떨어져 있고, 사이에 10리 되는 포(浦)가 있다.] 무의도(舞衣島) [관으로부터 서쪽으로 50리 떨어져 있고, 사이에 5리 되는 진(津)이 하나 있다.] 영종진[本鎮]으로부터 동쪽으로 인천 경계 제물진과 수로로 10리 떨어져 있고, 또한 서울과 육로로 80리 떨어져 있다. 동쪽으로 부평과 수로로 20리 떨어져 있다. 남쪽으로 남양 경계와 수로로 100리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적덕진(續德鎮) 덕적진(德續鎮)<sup>47)</sup>과 수로

47) 덕적진(德續鎮)을 일컫는 것으로, 다른 사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표기가 흔히 보인다.

로 300리 떨어져 있다. 서쪽으로는 망망대해[茫茫大洋]에 임하고, 북쪽으로는 강화 경계와 수로로 80리 떨어져 있다.

**【폭원(幅圓)】**

長自東至西陸路三十里, 自南至北十里, 周回爲七十里.

길이는 동에서 서로 육로 30리, 남에서 북으로 10리이고, 둘레는 70리이다.

**【호총(戶總)】**

去庚子式元戶, 八百六十九戶. [人口男女丁并二千七百六十九口].

지난 경자식(庚子式, 1840)에 따르면 원호(元戶)는 869호이다. [인구는 남정(男丁), 여정(女丁)을 아울러 2,769명이다.]

**【결총(結總)】**

辛丑條實田一百二結十三負, 畓七十七結八十二負一束.

신축조(辛丑條)에 따르면 실전(實田)은 102결 13부(負)이고, 논은 77결 82부 1속(束)이다.

### 【군총(軍摠)】

防營軍官二百七十七人, 待變軍官三百人, 別破陣十八人, 五哨別隊軍五百七十五名, 中軍隨率三十二名, 把摠隨率二十四名, 大旗手四十八名, 吹手二十五名, 巡牢二十七名, 水軍二百七十九名內, 七十四名在仁川, 九十七名在富平, 九十名在通津, 五名在金浦, 八名在交河, 十名在高陽, 六名在長湍, 五名在松都, 二名在南陽, 一名在楊根, 二名在京中, 六十名在本鎮.

방영(防營)군관이 277명, 대변(待變)군관이 300명, 별파진(別破陣)이 18명, 별대군(別隊軍)이 5초 575명, 중군수솔(中軍隨率)이 32명, 파총수솔(把摠隨率)이 24명, 대기수(大旗手)가 48명, 취수(吹手)가 25명, 순뢰(巡牢)가 27명이다. 수군 279명 내 인천에 74명, 부평에 97명, 통진에 90명, 김포에 5명, 교하(交河)에 8명, 고양에 10명, 장단(長湍)에 6명, 송도(松都)에 5명, 남양에 2명, 양근(楊根)에 1명, 경중(京中)에 2명, 영종진에 60명이 있다.

### 【아사(衙舍)】

淨洗堂[東軒西坐卯向], 內衙[西坐卯向], 太平軒[牌將廳子坐午向], 中營[西坐卯向].

정세당(淨洗堂) [동헌(東軒)이 서좌묘향(西坐卯向 ; 동향)이다.] 내아(內

衙) [서좌묘향(西坐卯向)이다.] 태평헌(太平軒) [패장청(牌將廳)이 자좌오향(子坐午向; 남향)이다.] 중영(中營) [서좌묘향(西坐卯向)이다.]

#### 【창우(倉宇)】

營庫[還米入庫], 兵庫[公錢入庫], 戶庫[官需入庫], 黃庫[牛稅租入庫], 本屯倉[皮還各穀入庫], 軍器庫[軍物入庫], 陸物庫[船上汴物入庫], 火藥庫[火藥入庫], 右并在鎮內牧倉[在鎮西距四十里, 龍流島監牧所管, 還各穀入].

영고(營庫) [환곡을 들이는 창고] 병고(兵庫) [공전(公錢)을 들이는 창고] 호고(戶庫) [관수미(官需米)를 들이는 창고] 황고(黃庫) [소에 관한 조세를 들이는 창고] 본둔창(本屯倉) [탈곡하지 않은 갯가지 환곡을 들이는 창고] 군기고(軍器庫) [군 물자를 들이는 창고] 육물고(陸物庫) [배 위의 변물(汴物)을 들이는 창고] 화약고(火藥庫) [화약을 들이는 창고] 이상은 모두 영종진 내에 있다. 목창(牧倉) [진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져있고, 용유도(龍流島) 감목관 소관으로 각 환곡을 들인다.]

#### 【객사(客舍)】

領海館[西坐卯向].

영해관(領海館) [서좌묘향(西坐卯向; 동향)이다.]

### 【명산(名山)】

石花山[在鎮五里], 松山[在鎮南七里], 白雲山[在鎮西十里], 大山[在鎮北十里], 旺山[在鎮西五十里], 鶴串山[在鎮西五十里], 舞衣山[在鎮西五十里].

석화산(石花山) [진에서 5리 떨어져 있다.] 송산(松山) [진에서 남쪽으로 7리 떨어져 있다.] 백운산(白雲山) [진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대산(大山) [진에서 북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왕산(旺山) [진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져 있다.] 휴곶산(鶴串山) [진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져 있다.] 무의산(舞衣山) [진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져 있다.]

### 【대천(大川)】

東江川[在鎮西七里], 堂谷川[在鎮西十里].

동강천(東江川) [진에서 서쪽으로 7리 떨어져 있다.] 당곡천(堂谷川) [진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 【도진(渡津)】<sup>48)</sup>

太平津在鎮前, 東距仁川界濟物津爲水路十里.

48) 『여지도서』에는 제물진에 관한 설명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제물진의 위치가 영종진 앞에 있고, 인천 경계로부터 10리 떨어져 있다는 설명이 본 읍지의 태평진 설명과 흡사하다. 한편 본 읍지에서는 인천 경계와 제물진을 동일 시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제물진의 위치가 본 읍지에서의 태평진과 같았으나, 인천 경계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태평진(太平津)은 영종진 앞에 있고, 동쪽으로 인천의 경계인 제물진(濟物津)이 수로로 10리 떨어져 있다.

#### 【목장(牧場)】

龍流島[在鎮西距四十里, 長十五里, 廣五里] 牧馬六十一匹[雄四十五匹, 雌十六匹], 舞衣島[在西南巨五十里, 長十五里, 廣十里] 牧馬五十二匹 [雄三十八匹, 雌十八匹], 薪拂島[在鎮西距三十里, 長廣各五里, 牧馬無].

용유도(龍流島) [진에서 서쪽으로 40리 떨어져 있고, 길이는 15리, 너비는 5리이다.] 목장의 말은 61필이다. 수컷이 45필이고, 암컷이 16필이다. 무의도(舞衣島) [서남쪽으로 50리 떨어져 있고, 길이는 15리, 너비는 10리이다.] 목장의 말은 52필이다. 수컷이 38필이고, 암컷이 18필이다.<sup>49)</sup> 신불도(薪拂島) [진에서 서쪽으로 30리 떨어져 있고, 길이와 너비가 각각 5리이고, 목장의 말은 없다.]

#### 【전선(戰船)】

防船二隻, 兵船二隻, 艀舩船一隻, 汲水船四隻, 濟物津往來站船二隻, 漕稅船護送船一隻, 地土船三十四隻.

49) 수컷과 암컷의 총합, 혹은 각 숫자 기입에 오기가 있던 것으로 보임.

방선(防船) 2척, 병선(兵船) 2척, 거도선(艀舠船) 1척, 급수선(汲水船) 4척, 제물진을 왕래하는 참선(站船) 2척, 조세선(漕稅船) 호송선(護送船) 1척, 지토선(地土船) 34척.

【제언(堤堰)】<sup>50)</sup>

備邊司堰[在鎮西二里], 大堰[在鎮北三里], 大王平堰[在鎮西五里], 寒泉堰[在鎮西二十里], 桶山堰[在鎮西二十里], 小橋堰[在鎮西五里], 東江堰[在鎮西七里], 靑多羅堰[在鎮北七里].

비변사언(備邊司堰) [진에서 서쪽으로 2리 떨어져 있다.] 대언(大堰) [진에서 북으로 3리 떨어져 있다.] 대왕평언(大王平堰) [진에서 서쪽으로 5리 떨어져 있다.] 한천언(寒泉堰) [진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통산언(桶山堰) [진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소교언(小橋堰) [진에서 서쪽으로 5리 떨어져 있다.] 동강언(東江堰) [진에서 서쪽으로 7리 떨어져 있다.] 청다라언(靑多羅堰) [진에서 북쪽으로 7리 떨어져 있다.]

50) 1911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지리지자료(朝鮮地誌資料)』에 수록된 '경기도 인천부 영종면' 편에 본 읍지와 제언의 명칭이 같은 것이 확인된다. 또한 본 읍지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제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읍지의 편찬시기인 1842년에서 『조선지리지자료』가 편찬된 1911년 사이에 많은 제언이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지리지자료』에 수록된 영종면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備邊司(비변사방죽), 大防築(큰방죽), 가우리방죽, 大旺坪(대왕평방죽), 南道防築(남도방죽), 小橋防築(잔다리방죽), 造山防築(조산방죽), 寒泉防築(한천방죽), 臥石防築(누돌방죽), 監浦防築(갯개방죽), 天生防築(전생방죽), 沓洞防築(논골방죽), 東江防築(동강방죽), 寒嶼防築(한서방죽), 石項防築(돌목지방죽), 同浦防築(동지방죽)'.

【명현묘소(名賢墓所)】

高麗王墓, 在鎮西五十里, 龍流島.

고려 왕릉<sup>51)</sup>이 진에서 서쪽으로 50리 떨어진 용유도에 있다.

【행궁(行宮)】

在月尾島[在鎮南距水路七里, 子坐午向], 正殿八間, 東有廊四間, 西有廊四間, 南有廊七間,<sup>52)</sup> 守直間三間, 內中門一間, 外中門一間[古臨海寺基址創建, 而日用■物, 在仁川府御用庫].

월미도에 있다. [진에서 남쪽에 수로로 7리 떨어져 있고 자좌오향(남향)이다.] 정전(正殿) 8칸, 동쪽에 행랑이 4칸 있고, 서쪽에 행랑이 4칸 있고, 남쪽에 행랑이 7칸 있고, 수직간 3칸, 내중문 1칸, 외중문 1칸이다. 옛 임해사(臨海寺) 터에 창건되었고, 소용되는 물자는, 인천부 어영고(御用庫)에 있다.]

51) 최충헌에 의해 고려 희종은 강화도에 귀양갔다가 영종도로 유배지를 옮겼다. 후에 개경 부근으로 옮겼다가 희종의 재위 움직임이 보이자 다시 용유 남북동 천택골에 유배되었다가 승하하였다. 희종의 유해는 강화 교동에 안장하였다고 문헌기록에 확인되고, 용유도 왕산리 통계 계곡에 도굴당한 무덤이 있으나 희종 자손의 묘인지 창왕의 묘인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왕자묘의 흔적이 있다.([『영종·용유 향토지』, 영종·용유 향토지발간회, 1992. 289쪽])

52) 『여지도서』, 『영종진도지』에는 ‘東月廊四間, 西月廊四間, 南月廊七間’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전진유지(戰陣遺址)】**

교장기[在鎮西二里], 舊教場基[在鎮西二十里].

교장기(教場基) [진에서 서쪽으로 2리 떨어져 있다.] 옛 교장기 [진에서 서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다.]

**【사찰(寺刹)】**

瞿曇寺[在白雲山, 鎮西距十里], 僧將一人[料米每朔六斗, 式自備局曾減上下].

구담사(瞿曇寺) [백운산에 있고, 진에서 서쪽으로 10리 떨어져 있다.] 승장(僧將) 1명이 있다. [급료로 매달 쌀 6두씩을 주고, 규정상 비변사에 의해 증감된다.]

**【요망(瞭望)】**

幕在白雲山上瞿曇寺, 僧徒中一名, 瞭望於西南海, 察其荒唐船漂泊有無.

막사는 백운산 위 구담사에 있고, 승도 중 1명이 서남해를 요망(瞭望)하고, 황당선이 표류하거나 정박하는지 유무를 살핀다.

### 【토산(土産)】

川椒, 海艾, 民魚, 眞魚, 蘇魚, 鱸魚, 石魚, 沙魚, 絡蹄, 洪魚, 土花, 石花, 生  
蛤, 竹蛤, 黃蛤, 海洋, 鹽.

산초나무[川椒], 바다쑥[海艾], 민어(民魚), 준치[眞魚], 밴댕이[蘇魚],  
농어[鱸魚], 조기[石魚], 상어[沙魚], 낙지[絡蹄], 홍어(洪魚), 미네굴[土  
花], 참굴[石花], 날 대합조개[生蛤], 맛 조개[竹蛤], 가무락조개[黃蛤],  
해양(海洋), 소금.

### 3) 『대동지지(大東地志)』 「영종포진(永宗浦鎭)」(1861~1866)

孝宗四年, 移南陽永宗浦萬戶于紫燕島. 肅宗六年, 兼御營別後部千摠[專屬  
御營]. 十七年, 置水軍防營[兼防御使]. 英宗十七年, 陞水軍僉節制使. 正宗  
三年, 兼左海防將, 十二年減.

효종 4년(1653) 남양(南陽)의 영종포만호(永宗浦萬戶)를 자연도(紫燕  
島)로 옮겼다. 숙종 6년(1680) 어영별후부천총(御營別後部千摠)을 겸  
하였다. [어영(御營)에 전속(專屬)한다.] 숙종 17년(1691) 수군방영(水  
軍防營)을 두었다. [방어사를 겸하였다.] 영조 17년(1741) 수군첨절제  
사(水軍僉節制使)로 올랐다. 정조 3년(1779) 좌해방장(左海防將)을 겸

하게 하였다가 정조 12년(1788)에 감(減)하였다.<sup>53)</sup>

**[관원(官員)]**

水軍僉節制使[兼京畿水軍防禦使仁川監牧官]一員.

수군첨절제사 [경기수군방어사와 인천감목관을 겸하였다.] 1명.

古城[鎮西一里, 有土築遺址]. 倉二[鎮內]. 龍倉[龍流]. 魚物[同仁川]鹽艾. 各樣戰船九艘.

옛성 [진(鎭)의 서쪽으로 1리 떨어진 곳에 토성을 쌓은 흔적이 있다.] 창고 두 개 [진(鎭) 안에 있다.] 용창(龍倉) [용유에 있다.] 어물(魚物) [인천과 같다.] 소금과 쑥. 다양한 전함이 9척이 있다.

**瞭望[在白雲山]**

요망(瞭望) [백운산(白雲山)에 있다.]

53) “12년에 감(減)하였다.”는 말은 정조 3년에 겸하게 한 좌해방장(左海防將)을 겸직에서 뺐다는 말이다.

牧場[龍流島無衣島]

목장(牧場) [용유도와 무의도에 있다.]

【丙寅洋賊後築城. 戊辰春, 洋賊入永宗, 僉使申孝哲逆擊之, 殺七人】<sup>54)</sup>

【병인양적(丙寅洋賊 : 1866년의 병인양요) 후에 축성하였다. 무진년(1868년) 봄에 양적(洋賊)<sup>55)</sup>이 영종(永宗)에 침입하자 첨사 신호철(申孝哲)<sup>56)</sup>이 그들을 역습하여 7명을 죽였다.】

54) 문서 상단에 있는 주석.

55) 남연군묘를 도굴한 독일인 오페르트 일행을 말한다.

56) 조선말기의 무신. 1868년(고종 5) 4월 남연군묘 도굴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영종진(永宗鎭)의 첨사로 있으면서, 덕산(德山) 주민들에게 쫓겨서 영종진 앞바다에 이른 독일인 오페르트(Oppert, E. J.) 일행에게 문정관(問情官)을 파견하여 그들의 소행을 추궁하였다. 그러나 오페르트 일행이 무례한 요구를 하며, 영종진내에 상륙하여 총검을 갖춘 채 난동을 부리자, 그들에 대항하여 무사와 교리(校吏) 몇 백명을 거느리고 교전하였다. 이 충돌과정에서 전사한 상대측 전사자 2명의 목을 베어 동문(東門)에 내걸었으며, 마침내 이들을 팔미도(八尾島) 밖으로 퇴거시켰다.





인천의 관방유적

# 동구



## 동구

| 관방유적 위치 |

- ① 화도진
- ② 묘도포대









## 동구

인천광역시 동구는 1879년 화도진의 설치로 인하여 연안 방어의 중심기지로 발돋움한다. 화도진 설치에 인천 연안에 출몰한 이양선과 연관이 있다. 쇄국정책의 기조 속에서 잦은 이양선의 출몰은 조선정부로 하여금 연안 방어체계의 개편을 가져왔다. 이양선의 출몰은 단순한 출몰에 그치지 않고 1866년 병인양요와 제너럴셔먼호 사건, 1875년 운요호 피격사건, 1871년 신미양요 등 국제 문제를 가져왔다.

---

\*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선조정은 인천과 부평지역의 방비를 위하여 군진을 설치하였다. 부평지역에는 연희진이, 인천지역에는 화도진이 설치되었다. 그 중 화도진은 지금의 인천 동구에 설치되었다. 화도진은 독진의 형태로 묘도북변포대와 남변포대, 북성곶북변포대와 남변포대, 제물북변포대와 남변포대, 호구포대, 장도포대 등 8곳의 포대를 관할하였다. 이 중 묘도포대, 북성곶포대, 제물포대가 화도진에서 가까운 제물포 연안에 밀접하게 배치되었고, 나머지 포대는 갯골을 통하여 들어오는 선박을 방비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1883년 인천개항 이후 화도진의 기능은 쇠퇴를 거듭하다가 1894년 군제개혁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현재 재현된 화도진은 1988년 『화도진도』와 원로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탄생된 것이다.

## 1. 화도진

화도진의 설치는 조선후기 이양선의 출몰과 윤요호 피격사건에 따른 일본의 개항 압박에 대한 조선의 대응으로 비롯되었다. 인천 연안을 통해 수로로 수도 한양까지 진입하는 적을 방비하기 위하여 조선은 부평부에는 연희진을, 인천부에는 화도진을 설치하였다.

19세기 후반 인천 연안에 출몰한 이양선은 쇄국정책을 취하는 조정에게는 달갑지 않은 존재였기에 이들과의 무력충돌은 쇄국정책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66년(고종 3) 병인박해의 프랑스군 보복으로 병인양요가 발생하였고, 미국은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삼아 통상을 요구하며 1871년 신미양요를 일으켰다.



1988년 재현된 화도진

이 두 전투의 중심 무대는 강화도였으나 두 함대는 서해 연안의 해로를 탐색하고 지도를 작성했던 것이 주목된다. 종교 탄압과 통상 요구라는 이면에 수로 탐색을 통해 군사적 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이어 일본은 같은 방식으로 인천 연안을 탐색하였다. 1875년 인천 연안에 나타난 운요호는 식수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초지진에 상륙하여 조선군과의 전투를 벌였다. 초지진에서 퇴각한 일본군은 영종진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이 영종진 피격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청의 중재로 1876년 불평등 조약인 ‘조일수호조규’, 즉 ‘강화도조약’을 체결한다.

강화도조약에 따라 조선과 일본은 부산의 초량을 비롯한 3개의 항구를 20개월 안에 개항할 것을 합의하였다. 애초에 인천도 그 대상이었으나 외국 군대가 수로를 통하여 한양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즉시 개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선의 해도를 일본이 제작할 것이 협의되어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질 것이 예상되었다.

1876년(고종 14) 일본은 개항을 협의하기 위해 외무대승(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를 조선으로 파견하였다. 그는 부산의 왜관(倭館) 땅을 특별거류지로 설정하고 공사로서 조선에 머물다가 1877년 말 상주공관 설치문제와 개항장의 선정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양으로 올라왔다. 그러나 하나부사는 같은 해 10월 12일 동래에서 육로를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 전라도 해안을 측량하면서 올라오겠다고 조선 조정에 통보한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는 이러한 하



나부사의 통보에 대해 같은 달 15일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때 인천과 부평에 대한 방비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상이 이르기를,

“인천(仁川), 부평(富平)은 요지로서 강화(江華)보다 못하지 않다. 강화는 저들이 왕래하는 곳에 손돌목(孫石項)이 있어 매우 험하고 좁으나 인천은 수로가 편이하니, 그러므로 왜선이 강화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천을 향하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다.”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편한 길을 두고 좁은 뱃길을 거치는 것은 이치상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인천, 부평의 길을 아는데 어찌 다시 강화를 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배가 곧바로 인천, 부평을 향하는 것은 참으로 작은 근심이 아닙니다.” 하고,

김병국이 아뢰기를,

“강화에 비하면 인천의 길이 조금 가까우니 이곳은 바로 경성의 문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미 이 길을 알았으니 참으로 민망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강화와 인천은 조정에서 방비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없는 곳이다.”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이곳은 참으로 요해처이지만 지금의 사세로는 과연 방비하는 시설을 갖추기 어

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서울에서 인천과 강화까지는 몇 리나 떨어졌는가?”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인천은 60~70리쯤 되고 강화는 120리 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천은 이제 방어영이 되었다.” 하니,

이최응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일기』 1877년(고종 14), 10월 15일

위의 기록을 보면 인천과 부평은 요충지로서 강화보다 못하지 않다고 하였다. 기존에 강화를 중심으로 한 관방체계만큼이나 인천, 부평 연안 방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왜적이 인천, 부평의 수로를 안다면 굳이 험난한 강화로 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최응의 의견은 일본이 이 수로를 알기 전에 미리 방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고종 역시 인천에 조정을 방어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하여 인천에는 화도진, 부평에는 연희진이 설치된 것이다.

한양에 도착한 하나부사는 고종을 알현하고 상주 공관 설치문제와

允之  
 七月初一日癸酉武衛所以仁川富平砲臺與鎮舍城役啓敎曰此兩邑截沿  
 重地海門要衝自來設備之論非止一再而尚此未遑猶欠邊備築墩設鎮今  
 既告竣矣仁川新設鎮稱以花島鎮富平新設鎮稱以延喜鎮別將玆作本所  
 自辟而與他鎮迥別則不可不擇差亦不可以數遞承限以三十朔為定知  
 官敎練官中擇其可堪者輪回差送諸般刺置之節從當有傳令矣○初二日  
 ○初三日○初四日○初五日御春塘臺行日次儒生嚴講通進士尹起榮鄭  
 閔朝鈺直赴殿試○賑恤廳以漢城府民家屋額壓死亡恤與謹依別單判付  
 各部宇內全家額壓九百三十三戶全家漂流三十一戶各錢三兩半家額壓  
 一百四十八戶額多完少二百戶完多額少七十七戶各錢二兩壓死壯每  
 口四升布二足錢二兩分給啓○初六日以閔泳商為吏曹參判○初七日設  
 七夕製于洋宮賦生員趙東協直赴殿試○初八日召見德源府使金精秀辭  
 陞也敎曰德源今既開港不可與前日汗漫同也已經修信使必詳知日本情  
 形及外交等節矣須善為措處毋至兩國齟齬可也且此地設窠不遠定界時  
 善為晚諭使之不近來往於所重之地也○初九日中國北洋大臣李鴻章勸

화도진 명명 관련 기사  
 (『고종실록』 고종 16년 7월 1일)



『화도진도』

개항장의 선정 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조정의 완강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오히려 하나부사가 이동한 경로 문제와 인천을 개항장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화도진의 설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878년 8월 일본의 서해안 해로측량의 재개, 부산의 개항 이후 추가 개항지로 제물포가 일본의 표적에 들자 그해 8월 27일 화도진과 연희진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최응도 ‘이양선이 늘 서울과 가까운 인천을 경유하므로 이 지역의 관액(關厄)에 진과 보를 설치하여 대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sup>1)</sup>고 할 정도로 화도진과 연희진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고종은 “인천·부평 등의 돈대 가설처에 대한 무위소의 계획이 있었는 바, 이 지역은 강화에 못지 않은 중요한 지역이므로 진을 창설하고 돈대를 설치하여 방수(防守)를 엄히 하라”고 하면서 어영대장 신정희(申正熙)를 공사 책임자인 공역감 동당상(工役監董堂上)으로 임명하였다.<sup>2)</sup>

이로써 인천·부평지역의 방비를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포대 축조에는 석질이 좋고 단단하다고 알려진 강화도의 석재를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인천과 부평지역 방비 강화를 위한 진의 설치와 포대 공사는 제물포의 포대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비용과 공사 기간보다는 견고함을 우선으로 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1879년 7월 1일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신설 진의 명칭을 각각 화도진(花島鎭)과 연희진(延喜鎭)이라 하고, 훈련도감의 군관인 지구관(知殼官)이나 각 영의 훈련관 중에서 쓸만한 자를 두 진의 별장으로 부임하게 하였고 임기는 30개월로 정하였다.<sup>3)</sup>

1) 『고종실록』 고종 15년 8월 27일.

2) 『고종실록』 고종 15년 8월 27일.

3) 『고종실록』 고종 16년 7월 1일.

#### 화도와 연희 두 진을 새로 설치하다

무위소(武衛所)에서 인천(仁川)과 부평(富平)의 포대(砲臺)와 진영(鎭營) 청사(廳舍)의 역사(役事)가 끝났다고 보고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두 읍(邑)은 수도 가까이의 중요한 지대이며 해문(海門)의 요충지이다. 원래부터 방비를 갖추자는 논의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미처 거를이 없어 오히려 변경 방비가 소루하였는데 돈대(墩臺)를 쌓고 진영(鎭營)을 갖추는 일이 지금 이미 끝났다고 보고하였다. 인천에 신설한 진(鎭)은 화도진(花島鎭)이라 부르고, 부평에 신설한 진은 연희진(延喜鎭)이라고 부를 것이다. 별장(別將)은 모두 본소(本所)에서 자벽(自辟)하고 다른 진과 현저히 구별되니 골라서 임명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자주 교체해서도 안 되니 임기는 30개월로 정하라. 지구관(知穀官)은 교련관(敎鍊官) 중에서 감당할만한 사람을 골라 윤번(輪番)으로 차송(差送)하며 제반 조치해야 할 절목은 마땅한대로 전령(傳令)이 있을 것이다.”하였다.

『고종실록』 1879년(고종16) 7월 1일

그렇다면 화도진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화도진은 본진과 묘도에서 인천 남부의 장도에 이르는 인천 연안에 8개의 소속 포대를 관할하였다. 화도진은 본래 독진(獨鎭), 즉 다른 군진(軍鎭)에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었다. 독진은 수령이나 첨사(僉使)들이 독립적으로 운영

하도록 한 군진으로, 주로 변방과 연해의 일부 특수지역에 설치되었다.

화도진은 궁궐 숙위와 도성의 방어를 총괄하던 무위소에 소속시켜 무위도총사가 관할하였는데, 화도진의 우두머리인 별장 역시 무위소에서 추천하여 임용하였다. 화도진 별장은 임기가 30개월로 자주 바뀌지 않았고, 자신의 후임을 지구관과 교련관 중에서 추천할 권한을 가졌으며 인천부가 아닌 중앙 무위소의 통제를 받았다. 1886년 5월 24일 『한성순보』의 기사가 그 일단을 보여준다.

이처럼 화도진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군진으로 원래는 중앙의 무위소에 소속되어 연안수로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제물포 개항 이래 개항장을 출입하는 외국 선박의 감시와 외국인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등 치안 유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화도진도(花島鎭圖)』라는 자료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화도진의 위치와 건물 규모, 관할 포대의 구성과 위치 등에 관하여 추론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정보에 따르면 『화도진도』(청구기호: 古朝61-79)는 1874년(고종11)에 발행된 필사본 지도로 간사자(刊寫者)는 미상이다. 『화도진도』는 2장으로 이루어진 지도첩으로 첫 번째 지도는 인천도호부와 화도진이 관할하는 지역 전체와 바닷길이 지나가는 서해와 섬 그리고 관할 포대의 현황과 주기(註記)에 화도진을 중심으로 주요 지점과의 지리적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두 번째 지도는 화도진 관사와 화도진 인근의 포대 지역을 좀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화도진 관할의 돈대는 썰물 때도 바다와 육지를 통해 상륙하고자 하는 일본이나 서양의 대형 선박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두 지도 모두 바다와 해안의 정보를 중요하게 다루어 썰물과 밀물 때의 바다와 갯벌의 상황, 갯골과 바다에 형성된 뱃길 등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다.

이에 따르면 화도진은 서울에서 70리 거리에 있으며, 인천부 읍치에서 서북쪽으로 10리 떨어진 다소면 고잔리에 있었다. 화도진 소속 각 포대는 묘도북변포대, 묘도남변포대, 북성곶북변포대, 북성곶남변포대, 제물북변포대, 제물남변포대, 호구포대, 장도포대 등 8곳의 포대가 있었다. 화도진의 관사와 부속 건물로는 문(門) 3칸, 전령청(傳令廳) 1칸, 기수청(旗手廳) 3칸, 중문(中門) 1칸, 군○(수)고(軍需庫) 2칸, 외사(外舍) 7칸 반, 향미고(餉米庫) 16칸, 내사(內舍) 12칸, 군○(기)고(軍器庫) 2칸, 향미고(餉米庫) 3칸, 마구(馬廐) 1칸, 장리청(將吏廳) 7칸, 일각문(一脚門) 2곳, 측간(廁間) 3곳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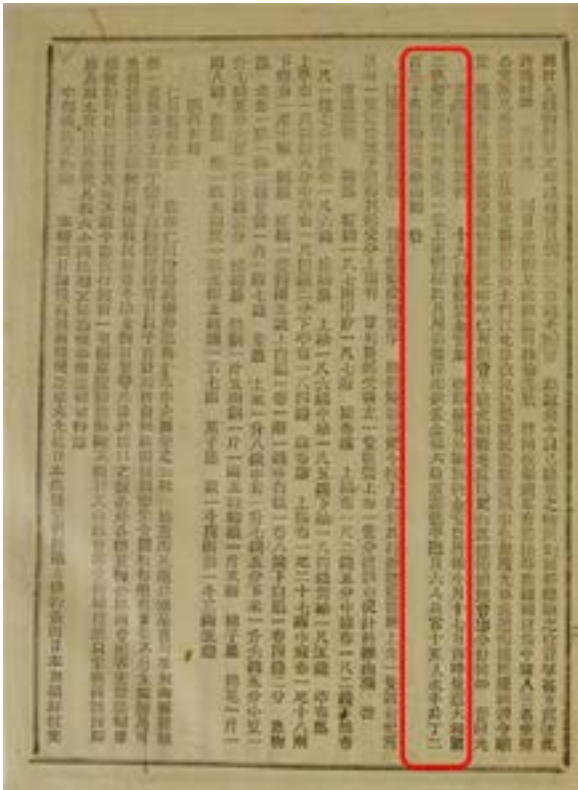
또한 『화도진도』를 통해 화도진 소속 포대의 이름과 위치 포좌의 수를 파악할 수 있다. 묘도북변포대 5혈, 묘도남변포대 5혈, 북성곶북변포대 3혈, 북성곶남변포대 5혈, 제물북변포대 8혈, 제물남변포대 5혈, 호구포대 2혈, 장도포대 3혈이다.

묘도포대, 북성곶포대, 제물포대가 화도진 관아에서 가까운 제물포 연안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고, 호구포대와 장도포대는 화도진에서 조



금 멀리 떨어진 승기천과 동방천의 연변에 위치하고 있다. 즉, 화도진의 포대는 3개의 갯골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묘도포대, 북성곶포대, 제물포대가 화도진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밀집 방어를 하며, 각 3~8개의 포좌를 가지고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주안갯골을 집중 방어하였다. 이는 인천 연안 접근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의 통로 연변에 포대를 집중 배치하여 통행하는 선박들을 집중 포화로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논현포대와 장도포대는 인천 남쪽 연안 접근으로 떨어져 배치되어 있다. 승기갯골과 소래갯골에 각 1개의 포대가 있으며 포좌의 숫자도 각각 2개와 3개이고 두 포대 간의 거리도 많이 떨어져 육지로 들어오는 소규모 수로인 갯골의 연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포대들은 해안의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곳(串)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 인천 연안으로 올라가는 선박을 견제하는 기본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 외에도 강화 수로를 통한 입경 또는 제물포나 부평 연안의 상륙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또 다른 육로 이용을 대비한 것으로 비교적 소규모 화력으로 갯골을 따라 접근하는 적선의 상륙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축조되었다. 이런 이유로 포혈의 수도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도진 설치 이후 화도진 별장은 화도진 관할구역을 지나는 외국 배의 동태를 파악하여 보고하였다. 1884년 1월 3일 『한성순보』에 ‘1월 2일 경기관찰사 김굉집(金宏集)이 장계하기를 “지금 화도진(花島鎭) 별장(別將) 김굉신(金宏臣)의 보고를 보건대,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제물



화도진 별장의 보고(『한성순보』 1884년 6월 13일 기사)

포항구를 출입한 각국 상선(商船)의 수효를 이하와 같이 개록(開錄)하였기에 장계하옵니다” 하였다.’라든지, 1884년 6월 13일 『한성순보』에 ‘19일에 관찰사 김굉집이 아뢰기를 “화도진의 별장 김굉신이 보고한 것을 접수하여 보니 이달 17일 유시(酉時)경에 이태리(意大利國)의 3범선(三帆船)인 Christofero-Columbo 1호가 와서 월미도(月尾島) 뒷바

다에 닳을 내리고 있는데 흠차전권대신(Firdinand de Luca)이 수행원 6명과 병관(兵官) 15명, 수수병정(水手兵丁) 2백 30명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나갔다 왔다고 하였기에 연유(緣由)를 치례(馳啓)하였다.’ 등의 기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보고는 단순히 외국 배의 입출입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화도진 별장은 수시로 경기관찰사에게 장계를 올렸고, 이 장계는 『한성순보』, 『한성주보』, 『황성신문』 등에 게재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하지만 1883년 제물포가 개항된 후, 화도진은 그 기능을 잃었고, 연희진은 먼저 폐지되었다. 1882년(고종19)의 기록인 『승정원일기』를 보면 ‘6월 28일에 연희진을 혁파하고 화도진을 훈련도감’에 이속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화도진은 금위영→총융청→친군전영→친군좌영→장위



화도진 동헌

영 등으로 계속 소속을 달리한다.

이에 따라 화도진 별장의 역할과 기능에도 변화가 생겼다. 화도진 별장 김굉신을 인천항의 경찰관으로 차하(差下)하여 감리사무를 맡게 한 것이다. 당시 감리사무의 역할은 인천항의 세관 사무에 대한 감리를 하는 것이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말로 아뢰기를, “화도진 별장(花島津別將) 김굉신(金宏臣)을 인천항의 경찰관으로 차하하여 감리사무(監理事務)를 맡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1884년(고종 21) 4월 21일

결국 화도진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친일내각이 들어서면서 군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폐지되었다. 진장(鎭將)<sup>4)</sup>을 없애고, 화도진에 편제된 토지와 인구는 본래대로 돌렸고 경비는 더 이상 지출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관청건물과 물품 등은 장위영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

4) 화도진 별장.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서 회의 안건을 올렸다. 화도진은 원래 경영(京營)에서 해안의 방비를 살피기 위하여 설치한 곳인데, 그곳이 이미 통상 항구에 속하여 감리관(監理官)과 경무관(警務官)을 둔 조건에서 진장(鎭將)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 무의미합니다. 마땅히 즉시 없애고 토지와 인구는 지방관에 게 도로 소속시키고, 소유하고 있는 경비인 미(米) 1,500석(石), 조(租) 80석, 은(銀) 1,200원(圓)은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장부를 자세히 조사하고 다시는 지출하지 말도록 하며, 관청건물과 나라물품은 장위영(壯衛營)에서 접수 관리하게 한다는 사안입니다. 이상에 대해 모두 윤허하였다.

『고종실록』 1894년(고종 31) 9월 11일

인천시는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던 역사적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1982년 동구 화수동에 화도진공원을 조성하고 기념 표지석을 건립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조미수호통상조약의 체결지에 대한 논란과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라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끊임없는 연구 끝에 조약 체결지는 화도진이 아니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제는 복원이 아닌 ‘재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 2. 묘도(북변, 남변) 포대

묘도포대는 동구 만석동 묘도에 있었던 포대로, 1879년 화도진의 설치와 함께 운영되었다. 묘도는 섬의 모양이 고양이처럼 생긴 섬이어서 묘도 혹은 팽이부리라고 하였다. 『화도진도』에 의하면 묘도포대는 화도진에서 1리 거리로 화도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된 포대였다. 북변과 남변에 각각 5혈의 포혈이 있어 다른 포대에 비해 많은 포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중요성이 짐작된다. 1894년 화도진이 폐지되면서 그 기능을 잃었으나, 그 터는 1908년의 매립과 이후 일대에 공장과 유원지가 들어서는 변화 속에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이 지역을 매립하고 조선기계제작소가 들어서면서 남아있던 포대의 흔적마저 사라졌다. 이런 사실은 “만석정에 있었으며 1937년 만석정 지역에 매립사업을 실시하면서 사라졌다.”(『경성일보(京城日報)』 1939년 12월 19일)라는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모도 북변포대(추정)



모도 남변포대(추정)

### 3.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의 화도진

#### 1) 『고종실록』

都統使閔謙鎬曰：“富平 連喜鎭、仁川 花島鎭，海門要衝迥別，則邑鎭之間，宜有管轄之殊。各其附近處一面，移屬本鎭，依德積等鎭例，仍作獨鎭，恐好，故敢此仰達矣。”允之。

『고종실록』 1879년(고종 16) 11월 15일

도통사(都統使) 민겸호(閔謙鎬)가 아뢰기를, “부평(富平)의 연희진(連喜鎭)과 인천(仁川)의 화도진(花島鎭)은 해문(海門)의 요충지로서 특별하므로 읍(邑)과 진(鎭) 사이에는 응당 다르게 관할해야 할 것입니다. 각각 그 부근의 한 면(面)을 본진(本鎭)으로 이속시켜 덕적진(德積鎭) 등의 규례에 따라 독진(獨鎭)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듯하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뢰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二十八日。命連喜鎭革罷，花島鎭移屬訓練都監。

『고종실록』 1882년(고종 19) 6월 28일

28일. 연희진(連喜鎭)을 혁파(革罷)하고 화도진(花島鎭)을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이속(移屬)시키라고 명하였다.



敎曰：花島鎮，移屬禁衛營.

『고종실록』 1882년(고종 19) 10월 8일

전교하기를, “화도진(花島鎮)을 금위영(禁衛營)에 이속(移屬)시키라.” 하였다.

敎曰：“花島鎮，移屬總戎廳.”

『고종실록』 1882년(고종 19) 10월 22일

하교하기를, “화도진(花島鎮)을 총융청(摠戎廳)으로 이속시키라.”라고 하였다.

敎曰：“花島津移屬左營，凡於文簿，勿報他處，專報該營，以爲急速入啓事，分付.”

『고종실록』 1885년(고종 22) 6월 23일

전교하기를, “화도진(花島鎮)을 좌영(左營)에 이속(移屬)하고 모든 문부(文簿)는 다른 곳에 보고하지 말고 오직 해영(該營)에만 보고하여 급히 입계(入啓)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고종실록』 1879년(고종 16) 7월 1일

議政府啓 “即見京畿監司金明鎭所報，則枚舉仁川府使嚴世永、花島別將金洙炫牒呈，以爲‘邑鎭大同取剩，今旣限滿。故從他給代之數，依府題精略磨鍊，而仁川府爲二萬二千三百八十七兩零，花島鎭爲一萬四千二百兩’云矣。參諸事勢，不容不給代乃已。就該府監理所稅入銀錢中，每年一千二百圓區劃，而邑鎭分排實數，斯速成節目，報本府以爲遵行事，分付何如?” 允之。

『고종실록』 1887년(고종 24) 11월 25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지금 경기감사(京畿監司) 김명진(金明鎭)의 보고를 보니, ‘인천 부사(仁川府使) 엄세영(嚴世永)과 화도별장(花島別將) 김주현(金洙炫)이 보낸 첩정(牒呈)을 일일이 거론하여 읍진

(邑鎭)의 대동(大同)에서 잉여를 취한 것이 지금 기한이 찼기 때문에 다른 데서 급대(給代)해야 하는 수량을 부에서 제기한 대로 대략 마련했는데, 인천부(仁川府)는 2만 2,387냥(兩) 남짓이고 화도진(花島鎭)은 1만 4,200냥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형편을 참작해 볼 때 부득이 급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해부의 감리소(監理所)에 세금으로 들어오는 은전(銀錢) 가운데서 매년 1,200원(圓)을 구획(區劃)하되 읍진에 분배할 실제 수량을 빨리 조목을 만들어 본부에 보고하게 하여 그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2) 『승정원일기』

又以武衛所言啓曰，花島鎭四等試放計劃，居首別破陣一名，別單書入之意，  
敢啓。傳曰，知道。

『승정원일기』 1880년(고종 17) 10월 22일

또 무위소의 말로 아뢰기를, “화도진(花島鎭)의 4등 시방(四等試放)의 획수를 합계하여 으뜸을 차지한 별파진 1명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이겠습니다. 감히 아웁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승정원일기』 1880년(고종 17) 10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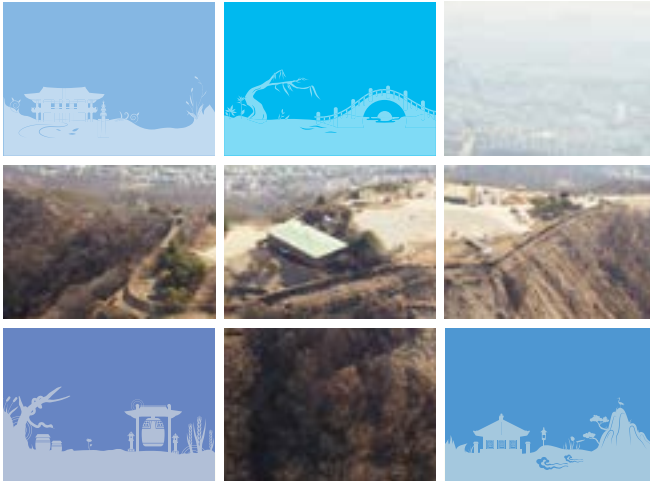
韓章錫, 以武衛所言啓曰, 今此慶科庭試武科殿試時, 本所軍兵及武藝別監·壯藝別監, 連喜鎮·花島鎮·別砲陣·龍津鎮砲手, 關北抄上武士中, 直赴殿試應射人及應頃人, 單子書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승정원일기』 1881년(고종 18) 3월 24일

한장석이 무위소의 말로 아뢰기를, “이번 경과(慶科) 정시 무과의 전시 때 본소의 군병과 무예별감, 장예별감, 연희진(連喜鎭)·화도진(花島鎭)·별포진(別砲陣)·용진진(龍津鎭)의 포수와 관북에서 뽑아 올린 무사 중 전시에 직부하여 사격할 사람과 빼야 할 사람의 명단을 별단에 써서 들입니다. 감히 아뢰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인천의 관방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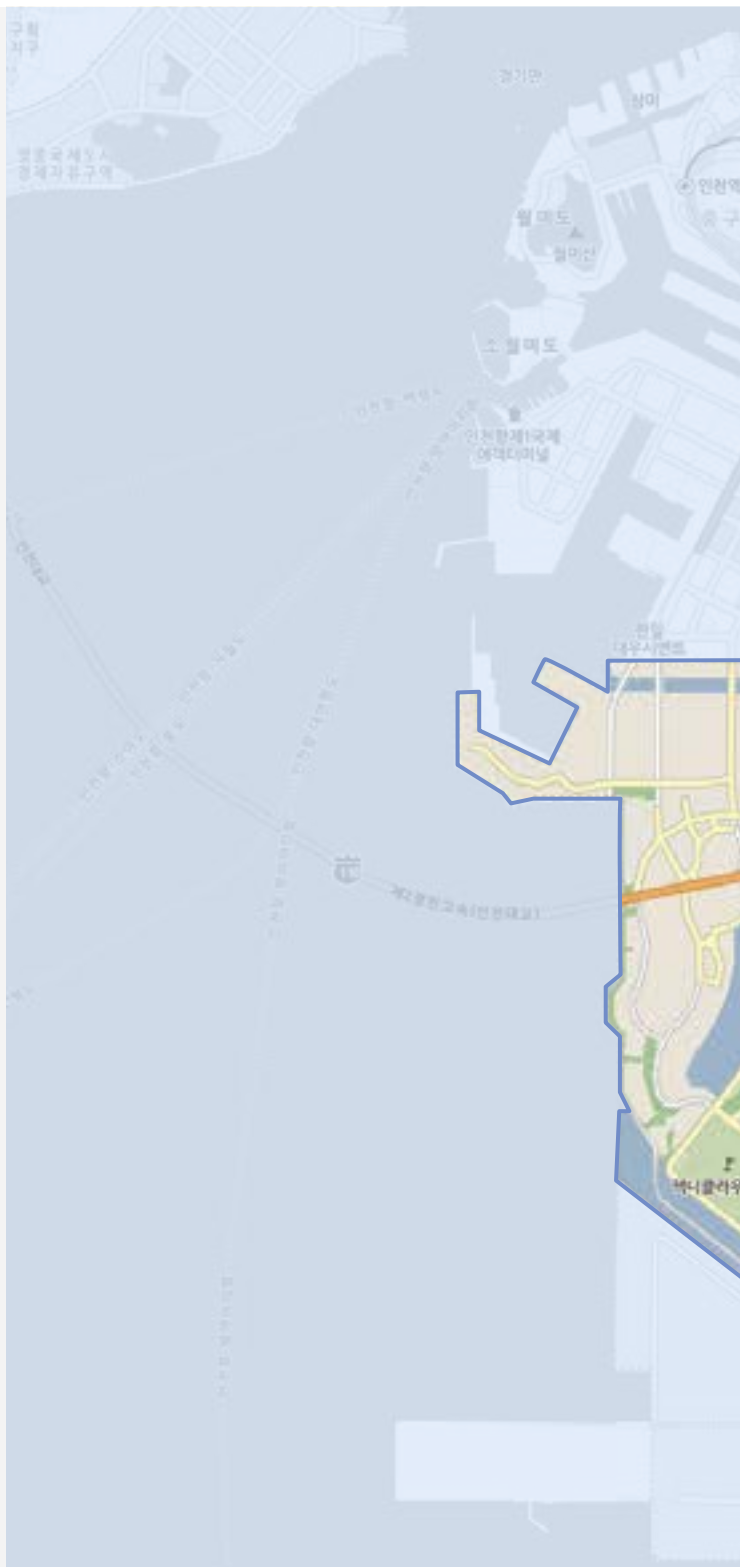
# 미추홀구 연수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 관방유적 위치 |

- ❶ 문학산성
- ❷ 수리봉 왜성지(倭城址)
- ❸ 문학산 토둔
- ❹ 관교동 토성지(土城址)
- ❺ 문학산 제사유적











## 미추홀구/연수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기원전 18년 비류의 미추홀 정착을 시작으로 약 2,000여 년 간 인천역사의 중심지로 자리했고,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유산을 품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을 계승하여 2018년 7월 1일 기존의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현재 남동구와 연수구 모두 인천시의 시세 확장에 따라 미추홀구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지역이다. 따라서 전근대 시기는 물론 분구가 된 근래까지도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는 동일한 역사적 정체성과 생활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다.

---

\* 형은수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주무관

특히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문학산을 중심으로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언급할 ‘문학산성, 토둔’은 두 지자체에 모두 걸쳐 있다.

문학산(文鶴山, 217m)은 인천의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며, 미추홀구의 문학동·학익동과 연수구의 선학동·연수동·청학동에 걸쳐 약 4.5km의 산록이 이어져 있는 ‘길마산-수리봉-문학산(주봉)-연경산-노적산’을 통칭한다. 인천의 진산(鎭山)은 아니지만, 백제 건국신화를 비롯한 다양한 역사와 설화가 문학산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문화유산들이 집약되어 있는 인천 역사의 태동지이다. 요컨대 바다와 인접한 자연·지리적 환경으로 선사시대 생활문화의 흔적이 나타나며, 기원전 18년 비류 세력이 정착한 미추홀의 중심지가 문학산 일대이다. 이곳은 고려시대 이래 문학산과 승학산 사이의 분지에 읍치(邑治)가 형성되어 전통시대 인천의 행정·교육·문화의 중심지였고, 더불어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다해왔다.

여기서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문학산성의 현황, 주변의 관방유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문학산 권역의 지리적 입지와 관방유적의 특성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 1. 문학산성(文鶴山城)



문학산 정상부 및 문학산성 전경(2018)

문학산 주봉에는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관방시설인 ‘문학산성(文鶴山城)’이 있다. 이 산성은 정상의 봉우리를 돌로 둘러싼 테피식 석축성이다.<sup>1)</sup> 성곽의 규모는 총 둘레가 587m, 면적이 20,800㎡(약 6,300평)이며, 현재 390m의 성벽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고대의 산

1) 문학산성을 가리키는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산 이름을 딴 남산석성(南山石城)·남산고성(南山古城)·문학산고성(文鶴山古城)·문학고성(文鶴古城)·문학산성(文鶴山城) 등이 있고, 고을 이름을 딴 인천산성(仁川山城)·미추홀고성(彌鄒忽古城) 등이 있다. 그리고 비류전설과 관련하여 비류성(沸流城)·예분성(惠憤城) 등으로도 호칭되었다.

2) 2017년 인천시립박물관 조사에 따르면, 총 둘레는 587m, 잔존구간 232m, 추정 잔존구간 158m, 멸실구간 197m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잔존구간과 추정 잔존구간의 길이를 합해 현재 남아 있는 성벽의 둘레는 390m 정도이다.(인천시립박물관,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미추홀구청, 2017.)

성 유적은 감시와 입보(入保), 방어라는 군사 목적 외에도 산성이 위치한 군현의 치소성(治所城)으로도 기능했기 때문에 문학산성은 고대 인천지역의 치소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 문학산성의 입지가 서쪽과 남쪽의 해상은 물론 동쪽과 북쪽의 주요 육상 교통로 일대를 감시하기에 유리하고, 경기 인천지역 서해안 일대의 수안산성, 북성산성, 계양산성 등과 유사한 입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해안과 내륙의 진출입 교통로 및 인천만 일대 연안 수로에 대한 감시를 위해 축성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sup>3)</sup>

그 동안 문학산 일원에 대한 학술조사는 그 공간이 지닌 역사적 의미 때문에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sup>4)</sup> 하지만 문학산 정상부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산성의 직접적인 조사는 1997년 ‘문학산성 지표조사’가 처음이다.<sup>5)</sup> 그런데 이때의 조사는 산성에 대한 정밀한 기초조사보다 ‘복원 정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던 터라 추가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다.

1997년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처음에는 토성(土城)이던 것이 삼국시대, 혹은 통일신라를 거치면서 석성으로 개축되었고, 이것

3) 백종오, 「인천연안의 고대 성곽에 대하여」, 『문화사학』 27, 한국문화사학회, 2007.; 정민섭, 「문학산 일원의 고고유적」, 『도시마을생활사(관교동·문학동 편)』, 인천 미추홀구청, 2019, 267쪽.

4) 조선총독부, 『조선박물관조사자료』, 1942.; 이경성, 『인천고적조사보고서』(미간행), 1949.; 인하대박물관, 『문학산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9.; 인하대박물관·기전문화재연구원, 『인천 문학동 선사유적』, 2000.; 인하대박물관·인천남구청,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2.;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남부 종합학술조사』, 2003.; 인하대박물관,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5.; 인천시립박물관, 『문학산일대 고려시대 유적조사』, 2006.; 인하대박물관, 『문학경기장 절토잔여지 발굴조사』, 2010. 그리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인하대박물관의 『문학산 일대의 역사와 문화』(2010)라는 학술회의 등이 있었다.

5) 삼성건축사사무소, 『문학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1997.

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한다. 석축시기를 삼국시대 말기에서 통일신라시대로 보는 것은 삼국시대 말기로 여겨지는 일부 와편이 발견되었고, 또 이 시기의 특징적인 축성기법이 보이기 때문이다. 즉 성곽의 기저부 형성에서 뱀이 기어가는 듯이 구불구불한 파사형(爬巳形)을 이루고 있는 점과 이를 위하여 작은 석재를 쌓고 심석(深石)이라 불리는 긴 석재를 간간히 찢러 넣어 뒷채움한 잡석과 꼭 물리도록 하는 기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판석형 석재를 일정 비율 혼용하여 축조하였다는지, 성벽 하부에 석재 다짐층을 조성한 후 성벽을 축조하고 보강석축을 하부에 조성하는 등 한성백제기의 석축산성의 특징도 보이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1998년 연수구 봉제산 미사일 오발 사고를 계기로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군부대 이전 및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계획 철회 운동이 전개되어 2005년 문학산 정상의 군부대는 영종도로 이전하게 되었다. 그 여파로 2006년 문학산성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자는 여론이 거세졌고, 당시 여건상 종합정비 계획 수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성벽의 추가 훼손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2009~2010년 ‘문학산성 성벽보수 및 탐방로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015년 초 인천시는 문학산 개방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반 년 만에 국방부의 조건부 개방 승낙으로 그 해 10월 15일에 문학산 정상이 반세기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2009~2010년 보수된 성벽 근경



2009~2010년 보수된 성벽 원경





현재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있는 성벽 구간(165~175m) : 2017년 조사사진

이때부터 다시 문학산성에 대한 보존관리 및 종합정비 방안은 지역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올랐고, 그 방안 모색과 역량을 모으기 위해 모두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우선 세 차례에 걸쳐 학술회의가 진행되어 그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며 이론적인 토대를 구축해 나갔다.<sup>6)</sup> 그리고 문학산성에 대한 학술조사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sup>7)</sup> 문학산성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

6)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학술대회, 『문학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2015.10.28) ; 역사자료관 학술콜로키움, 『인천 문학산성 복원과 보존 방향』(2016.5.25) ; 역사자료관 학술대회, 『인천의 산성 현황과 문화재적 가치』(2016.10.19).

7) 문학산 정상부 시설물 정비공사는 인천시 문화재과에서 1단계(2015.09.10~2015.10.25)와 2단계(2016)에 걸쳐 완료하였고, 월미공원사업소에서는 ‘문학산 숲 복원 및 이용 활성화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6년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미추홀구청에서는 ‘문학산성 주변 발굴조사(한국고고인류연구소, 2016.05.23~07.11)’를 완료하였고, ‘문학산성 정밀지표조사’(인천시립박물관, 2016.08.16~2017.06)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최근 2019년 초에는 문학산성 동남쪽 성벽 추정지 일부 구간(800㎡)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벽 관련 석렬과 덧채움, 보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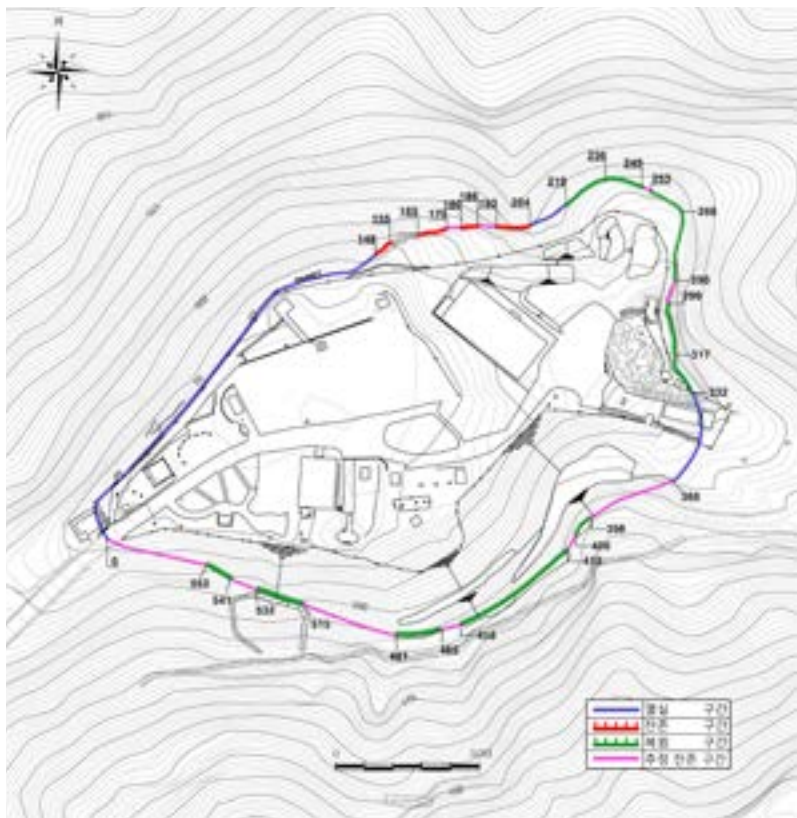
이다. 2017년 미추홀구는 인천시립박물관에 의뢰하여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동안의 문학산성 조사 현황을 정리하였고, 성벽 정밀 측량 및 북벽 잔존 구간에 대한 3D 스캔, 산성의 내외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유물 검토 등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성벽의 둘레는 587m, 유실 구간은 197m로 파악되었다.<sup>8)</sup>

2017년 문학산성 구간별 성벽 현황표

구분	위치	해당 구간	총 길이
멸실 구간	서북벽	0~148m	197m
	북벽	204~219m	
	동남벽	332~366m	
잔존 구간	북벽	148~155m, 165~175m, 180~186m, 193~204m	34m
복원 구간	북동벽	219~249m, 253~290m	198m
	동벽	299~332m	
	남벽	398~406m, 412~458m, 465~481m, 515~532m, 541~552m	
추정 잔존 구간	북벽	155~165m, 175~180m	158m
	북동벽	249~253m, 290~299m	
	남벽	366~398m, 406~412m, 458~465m, 481~515m, 532~541m, 552~587m	
총 둘레			587m

등을 확인하였고, 상단부 평탄면에서는 건물지가 잔존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8) 인천시립박물관,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 남구청, 2017, 55~56쪽.





2017년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의 성벽 구간별 현황도

또한 유물은 삼국~조선시대의 기와편, 토기편, 자기편 등이 확인되었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통일신라시대의 기와였다. 성벽에 대한 조사에서는 빗각치기 기법으로 다듬은 성돌 및 장방형, 세장방형의 성돌을 섞어 쌓는 삼국시대 성곽 축조 기법이 확인되었다. 이 조사로 문학산성의 주된 사용시기는 삼국~통일신라시대였던 것으로 파악



북쪽에서 바라본 문학산 정상부 및 문학산성 전경(2017년)

되었다.<sup>9)</sup>

옛 문헌에 나타나는 문학산성은 1454년(단종 2)에 만들어진 『세종실록지리지』에 ‘남산석성(南山石城)’이 고을로부터 남쪽 2리 거리에 있다.”고 하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남산고성(南山古城)’으로 명칭을 바꾸고 있어, 적어도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산성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8세기에 이르러서는 『동사강목』과 『여지도서』 등에 문학산성을 옛 미추홀의 왕성으로 기록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산성 안의 우물을 ‘비류정(沸流井)’이라고 부르거나 문학산 정상에 미추왕릉(彌鄒王陵)이 있다는 기록

9) 정민섭, 앞의 글, 인천 미추홀구, 2019, 252~253쪽.

등이 그것이다. 또한 당시의 유학자들은 문학산성을 비류의 고사를 인용하여 “분하고 원통하다”는 뜻의 ‘에분성(愾憤城)’ 또는 ‘분에성(忿愾城)’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신하들의 간언을 물리치고 무리하게 창업을 이루려고 한 비류왕의 독단을 유학적인 사상체계 안에서 실증하여 반면교사를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학산성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선후기 이후 완전히 성곽의 기능을 상실하여 고적화(古蹟化)된 것만은 아니었다. 문학산성은 고려시대 해안을 통한 왜구의 침입을 감시하고, 또 유사시에는 지역민의 피난처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성안 정상부에 봉수대(烽燧臺)가 설치되었으며, 임진왜란 중에는 인천의 사민(士民)들로 구성된 의병이 이곳에서 왜병을 격퇴하기도 하였다. 양란 이후 수도 방위책이 강구될 때, 문학산성이 지닌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수축이 논의되었지만 실현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신미양요(辛未洋擾)가 일어난 1871년 인천의 사정을 기록한 『소성진중일지(邵城陣中日誌)』에 “무사 백명 그리고 아전과 노비들을 반으로 나누어 배치해서 문학고성을 지키는 것을 단단히 하였고, 별장에게는 봉대군 25명으로 요망대를 지키게 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문학산성이 중요한 방어의 거점으로 재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문학산성은 임진왜란 이후 방치되다가 개항기 인천 연안의 방비가 중요시되자 일부 수



1933년 인천 동부 지형도에 나타난 문학산성(부평역사박물관 제공)

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0)</sup>

문학산성은 일제강점기에 약간의 조사자료를 남긴 외에 별다른 보호 조치가 없었으며, 광복 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산림이 황폐화되는 등 더욱 퇴락하였다. 다행히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의 조사 이후 향토사 연구자의 관심에 힘입어 1958년에는 인방석이 주저앉고 성벽도 허물어진 동문지를 복원하고, 인방석에 ‘문학산성동문(文鶴山城東門)’을 새겼으며, 도천현에서 산성으로 오르는 길목에 ‘십제고도(十濟古都) 문학산성(文鶴山城)’이란 표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문학산 정상 부에 미군기지 건설이 발의되고 1960년 이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10) 류창호, 「문학산 일원의 역사문화유산」, 『도시마을생활사(관교동·문학동)』, 인천 미추홀구, 2019, 276~277쪽.



문학산성 동문 및 십제고도 문학산성 표석

문학산 정상부를 삭토하고 산성의 서문지를 비롯한 성벽을 헐어내 버렸다. 인천시에서도 고적 보존을 위한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1962년에 군 부대가 들어서자 어찌하지 못하였다. 이때 봉수대와 건물지 그리고 동·서문 자리 등이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1965년 간행된李宗和(李宗和)의 도록『문학산(文鶴山)』만이 부대가 들어서기 전의 산성과 주변 지형을 남기고 있다.

1979년 미군이 철수하고 그 자리에 한국군이 들어선 이후에도 산성

동측 저지대를 복토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우물을 매몰하는 등 형질변경이 계속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산사태로 북측 성벽이 대부분 유실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재 보호의 시급함을 인식한 인천시는 같은 해 문학산성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1997년에는 산성 전반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현존 성벽의 잔존 여부와 축성기법에 대한 대체적인 파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문학산성에 대한 발굴조사와 같은 직접적인 조사는 1997년 이후로도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2005년 군부대가 이전했지만 내부는 여전히 군사보호시설로 통제되었기 때문에 성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

문학산은 지난 반 세기동안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묶여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철조망 안에 갇혀 있다가, 2015년 10월에 이르러 조건부 개방되었다. 하루 중 주간의 정해진 시간만 개방하고, 안전경비원이 상주하여 출입문을 개폐하며 군사시설의 존치 및 보호를 약속한다는 조건이었다. 더욱이 군부대의 훈련 또는 유사시에는 전투예비진지로 사용하여 문학산 정상부 일원을 폐쇄한다는 조건이 더해졌다.<sup>11)</sup>

이러한 상황에서 미추홀구는 2017년~2018년 정상부의 군부대 통합사무실 1동(약 150㎡)을 활용한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미추홀 2,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 문학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학산 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정체성을 발현하기 위해 군

11) 황은수, 「문학산 정상개방 1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 미추홀구, 2016.10.



1970년대 옛 산성마을 및 문학산 정상의 레이더 기지 전경(『박광성 선생 사진첩』)

사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전시관을 조성하였다.

2019년 초에는 문학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표본조사 차원에서 산성 동남쪽 구간의 사면부로 지표상에서 성벽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추정 잔존 구간(800㎡)에 대한 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개의 트렌치를 설치하여 굴토 조사한 결과, 성벽의 면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벽시설로 추정되는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트렌치 상단부에서는 후대 성벽의 기저부 혹은 건물지의 일부로 추정되는 석렬이 확인되었고, 중간부에서는 성벽의 뒷채움시설, 하단부에서는 추정



보축시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상단부 평탄면에서 확인된 산성 관련 건물지 유구가 주목되는데, 여기서 통일신라~조선시대의 기와 및 도기, 자기 등이 다수 출토되었다.<sup>12)</sup>

## 1) 내성(內城)과 외성(外城)

1949년 이경성의 조사에 의하면, “문학산에는 외성으로 석축(石築)의 성벽(城壁)이 주위 430척(四百三十尺) 또 내성으로 주위 약 600칸(六百間)의 토벽(土壁)이 있다”(이경성, 「문학산성」, 『인천의 명소고적』, 1949년)고 하여 외성과 내성이 별도로 축조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어 1953년의 기록에서는 “문학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성되었고 외성은 석축의 성벽으로 주위 약 200미터(메-타), 내성은 토축(土築)의 성벽으로 주위 약 100미터(메-타)로 되어있다”(이경성, 「문학산성」, 『인천의 고적』, 1953년)고 하여 좀 더 분명한 기술을 하고 있다. 1965년 간행된 『문학산』에서도 저자 이종화는 1952년 답사 결과라 하면서 1953년 이경성의 기록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문학산성이 외성과 내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은 현재로서 확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외성의 길이를 430척이라고 하였다. 이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각종 읍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전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1척의 길이를 0.3m로 보면 129m로 현재의 추정길이인 587m

12) (재)국토문화재연구원, 『인천 문학산성 성벽 추정지 내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인천 미추홀구청, 2019.





문학산 역사관 전경

와 크게 차이가 난다. 1953년에 이를 200m로 수정한 것은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160보(步)를 주척(1보=6척=1.2m)으로 환산( $160\text{보} \times 1.2\text{m} = 192\text{m}$ )하여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록이다. 물론 문학산성이 원래 현재보다 규모가 작았던 것을 임진왜란 이후 증수하여 성곽을 확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성곽의 길이가 200m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며, 430척을 430보(516m)의 오기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sup>13)</sup> 한편 내성의 길이를 600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13) 류창호, 앞의 글, 인천 미추홀구, 2018, 281쪽 ; 인하대박물관, 앞의 책, 인천 남구청, 2002, 252~253쪽.



2019년 문학산성 동남쪽 성벽 추정 잔존구간에 대한 시굴조사 항공사진

1942년 조선총독부의 조사 당시 “둘레가 약 60칸인 토벽의 자취가 보인다”는 기록을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949년 이경성의 조사에서 확인된 토축 성벽은 문학산 정상에 있었던 봉수대의 방호 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주목된다.<sup>14)</sup>

앞서 언급한 대로 1959년 이후 군부대를 지으면서 산정상을 평탄하게 깎고, 후미진 곳은 복토하였으므로 이러한 내성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14) 백종오, 『문학산성의 현황과 변천』, 『박물관지』 13, 인하대박물관, 2010, 47쪽. ; 인천시립박물관, 앞의 책, 인천 남구청, 2017, 117쪽.

## 2) 성문(城門)

문학산은 남북으로 가파른 절벽이 놓여 있고, 동서로는 비교적 완만한 능선을 이루고 있어 산성을 출입하는 데 동쪽과 서쪽의 성문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성문은 남아있지 않으나, 『동사강목』에 “비류성의 터가 있고 성문의 문짝 판자가 지금도 오히려 남아 있으며(有沸流城基, 城門扇板至今猶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중엽까지 성문의 문짝이 남아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화의 『문학산』(1965년)에 있는 문학산 서쪽 오솔길 사진에는 “과거 고성(古城)의 서문(西門)이 있었다.”고 부기되어 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옛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동쪽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자료가 남아있다. 18세기 중엽의 기록인 『여지도서』에는 “동문(東門) 밖 100여 보(步) 되는 곳에 산봉우리가 돌출되어 있는데, 그 봉우리 위에 왜병이 문학산성을 공격할 때 주둔하던 왜성(倭城)의 유지가 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동문이 동쪽 봉우리로 이어지는 능선상에 위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958년 가을에 동문을 개수하고 인방석 위에 ‘문학산성동문(文鶴山城東門)’이라고 조각한 사진도 남아있다. 당시 사진자료를 볼 때, 성문의 형태는 소규모의 개구부로 이루어졌으며, 양쪽 성벽 위에 긴 인방석을 가로 대어 문짝 없이 축조한 것이었다. 1959년 군부대 조성을 위해 주위 성벽과



현재 서문 추정지



현재 동문 추정지



1997년 수구 추정지(좌)와 2017년 조사 당시의 성벽(우) 비교 사진

함께 파괴되어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sup>15)</sup>

한편 1997년 지표조사 당시에는 서문 추정지 기점 +327m에 수구(水口) 한 곳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높이 0.75m, 너비 윗부분 0.75m, 아랫부분 0.3m의 규모로 축조된 이 수구는 가공되지 않은 커다란 바위를 수구의 두 기둥으로 이용하고, 그 위를 인방석으로 가로대어 은구(隱溝)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17년 지표조사에서는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같은 지점에 수구가 존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구조상 배수의 기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수구로 추정했던 석재는 자연 암반 사이에 성벽을 쌓기 위해 놓은 단순한 지대석으로 판단하였다.

15) 류창호, 앞의 글, 인천 미추홀구, 2018, 283~28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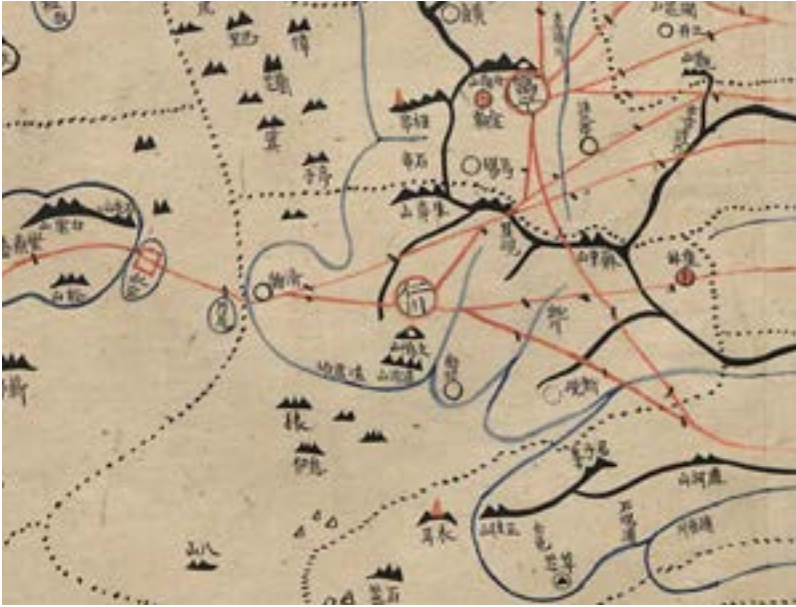
### 3) 봉수대

봉수란 봉(峰)과 수(燧)로 급보를 전하던 통신 방법으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불빛과 연기로 신호를 전달하던 것이다. 야간에는 횃불이 잘 보이지만 주간에는 잘 보이지 않아 대신 연기로 신호를 보냈다. 대략 10리마다 산꼭대기에 봉수대를 두었다.

문학산의 봉수는 문학산 마루에 높이 3m의 고분형 축산(築山)을 하여 만들었다. 때문에 문학산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마치 배꼽처럼 생겼다 하여 문학산을 배꼽산으로 불렀다. 또한 이 봉수는 문학산성 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산봉수(城山烽燧)라고도 했다. 문학산 봉수는 남쪽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오길에 봉수에서 보내는 신호를 받아 북쪽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의 축곶 봉수에 보내는 역할을 하였던 제5거 직봉 노선의 연변 봉수이다. 제5거 직봉 노선은 전라남도 여수 돌산도 봉수에서 시작하여 목포 유달산 봉수, 부안 호리산 봉수, 아산 대합산 봉수, 화성 홍천산 봉수와 인천 문학산 봉수 등 우리나라 남서해안을 따라 올라와 한양의 목멱산 봉수로 전달되는 봉수로를 말한다. 대응 봉수와의 직선거리는 오길에 봉수와는 10.75km, 축곶 봉수와는 11.5km의 거리를 두고 있다.<sup>16)</sup>

한편 1711년(숙종 37) 민진후(閔鎭厚)의 ‘영종과 제물포에 군사진지를 설치하고, 문학산성의 봉수대와 서해도서 진보(鎭堡)의 봉수대를 연

16)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⑨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상)』, 2018, 297~299쪽.



문학산 및 주변의 봉수(『대동여지도』 13책 일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결하는 등 인천부를 중심으로 해양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건의가 다음 인용문과 같이 비변사에서 논의되었다.

인천부의 문학산성은 돌레가 비좁긴 하나 입지(立地)가 험하고 요긴하며 또 봉화대가 있어 서쪽과 남쪽으로 바다 길이 막힘없이 특 트였고 제물포의 구진(舊鎭)은 인천부의 서쪽 10여 리에 있고 월진(月辰) 영종(永宗) 두 섬과 맞보고 있으며 배를 둘 곳도 좋으나 진보를 강화(江華)로 옮긴 뒤에는 이미 폐허가 되었으니 극히 애석합니다. 영종에 방어영(防禦營)을 설치하고 월진에다 행



영(行營)을 두면 갑곶[甲串] 덕적(德積) 두 나루는 장애가 많으므로 인천은 바로 바다로 나가는 첫 관문이라 하겠는데 실룡루(失龍樓) 무의(無衣) 등의 섬이 점차 치패해도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스스로 울타리를 뜯어내는 것과 뭐 다르겠습니까? 지금의 계책으로는 인천을 방어영으로 하고 제물포의 옛 성을 보수하여 선척을 갈마들게 하고 화량(花梁) 연흥(延興) 영종(永宗) 덕적(德積) 등의 진보를 관할하게 하며 또 덕적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자월(紫月) 연흥대부(大阜) 등을 경유하여 남양(南陽)의 염불봉(念佛峰)에 이르고 인천의 문학봉(文鶴峰)에 이르게 하면 경보를 알리는 방도에 있어서는 빈틈이 없다 하겠습니다. 만일 해적의 침입이 있다고 하면 4진(鎭)의 수군을 영솔하고 앞 바다를 방어하고 육진에서 사변이 생긴다면 그 고을의 군병을 거느리고 나아가 요해처를 지켜 뒤를 끊도록 하면 가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역 비변사등록』 61책, 1711년(숙종 37) 3월.

경기 서해지역 해양 방어에 있어 ‘문학산성(봉화대)의 입지, 제물포-월미도-영종도의 포구, 덕적도-대부도-남양-문학산의 봉화대’를 연결하는, 즉 인천지역 중심의 해양방어체제를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현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 후 1871년 신미양요에 이르러 문학산과 봉수대 등에 군사를 배치하여 매복 및 요망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기록으로 이때 다시 군사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학산 봉수대 및 문학산성 등문 모습(이종화, 『문학산』, 1965)

아울러 역대 지지 자료에 대체로 문학산의 봉수대를 ‘성산봉수(城山烽燧)’라 표기하고 있고, 1942년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에 “지름 360cm의 만두형의 봉수대가 남아 있는데 이를 미추왕릉으로 보는 전승이 있다.”고 하며, 1949년 이경성의 고적조사에서는 그것이 토축의 원루였다고 하였다.<sup>17)</sup> 1959년 문학산 정상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정상부를 깎아내어 문학산의 높이가 낮아졌는데, 이때 봉수대도 역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17) 인하대박물관,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인천 남구청, 2002, 128~129쪽.

#### 4) 안관당(安官堂)

임진왜란 시기 인천부사 김민선(金敏善, 1542~1593)에 대한 이야기가 『여지도서(輿地圖書)』를 비롯한 읍지에 기록이 전해진다. 인천부사 김민선이 사민(士民)을 이끌고 산성을 보수하여 누차 왜적을 무찔렀는데, 1593년(선조 26) 7월에 병으로 죽자 다음 인천부사 김찬선(金縝先)이 끝까지 성을 지켰다는 것이다. 또한 부평에 침입한 왜군은 부천의 원미산(遠美山) 장대봉(將臺峯)에서 항거하는 선거이(宣居怡) 장군을 물리치고 그 날로 부평에 침입하여 계양산성을 근거지로 삼았다. 이곳을 근거지로 한 왜군의 일부는 5월 20일 인천으로 진격하였으나 부평 출신인 김민선 인천부사가 만반의 방어태세를 갖추어 안대평(安垓坪)에서 왜군을 격퇴시켰다. 지금의 간석역 앞으로 이곳 하천에 다리가 생기니 왜군이 패전하여 흩어진 곳이라 하여 왜산교(倭散橋)라 불려왔다고 한다.<sup>18)</sup>

이러한 이야기와 관련한 유적이 바로 문학산성 안에 있었던 ‘안관당(安官堂)’으로 1949년 이경성의 고적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경성은 봉수대 동쪽 밑에 남북 7m, 동서 3m의 건물 유지(遺趾)와 초석(礎石) 및 석단(石段)이 남아있는데, 이곳이 ‘안관당(安官堂)’이라는 사당이거나, 혹은 산성의 병영(兵營)이나 창고일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안관당은 약

18) 인하대박물관, 앞의 책, 2002, 125쪽 ; 인천시사편찬위원회, 「일·침의 침입과 인천지역의 항전」, 『인천의 발자취』, 인천광역시, 2002, 325쪽.

30여 년 전까지 남아있었으며, 사당 안에는 목조로 만들어 의복을 입힌 남녀상(男女像)과 크고 작은 목마(木馬)·창(槍)·검(劒) 등이 놓여 있었다 한다. 아울러 1953년에 위의 논고를 재정리하면서 안관당은 조선 말엽의 건물로 임진왜란 당시 산성에서 왜적과 싸운 인천부사 김민선을 모신 사당이라 적고 있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등 자료 어디에도 안관당에 관한 기록이 없다. 앞서 언급한 인천부사 김민선에 대한 『여지도서』 및 읍지 기록이 전부이다. 그런데 1871년 신미양요 당시 인천도호부의 임전(臨戰) 상태를 기록한 『소성진중일지(邵城陣中日誌)』에 “인천부사 구완식(具完植)이 문학산신계 제사를 드렸는데, 마치 그 영험을 보듯이 산신이 한 군교의 꿈에 나타나 ‘서양 오랑캐를 크게 무찌르라’는 말을 남겼고, 이를 군사들에게 널리 알려 사기를 진작케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 실제 안관당 내부를 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나무로 만들어 의복을 입힌 ‘안관할아버지, 안관할머니’라 불린 나무 신상이 있었고 매년 정월 보름 안에 제를 지내며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빌었다고 한다. 따라서 안관당이나 여기서 진행된 제의는 김민선 부사만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 백성들을 수호하는 문학산의 산신신앙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55년 문학산성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신문기사가 다음과 같이 남아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자 비를 고대하며,

前週  
仁川  
의 縮小  
— 2 欄

文鶴山城川  
祈雨祭舉行

이 정신기억 이르는  
것들의 의의가  
확실히  
능력의

은 요지를 사내문화운동  
에서는 문화운동이 ( )  
추진( )의 중요성을 강조

三山 文翰山 (文翰山)  
城) 의성기인 할미봉 (○)  
상영대 (上影臺) 네서기  
수리문지 (水理門地) 함녕도

다.님과 같은 풍년을 보며  
하며 농가는 천하의 대부  
이라는 농기아래 온물  
만이 이날을 마는 것을

李交誼長官來仁  
이 (李相林) 政務부장

二十日...  
 令處女...  
 盜行劫...

[illegible]

(時價六錢) 단(檀)  
子(子) 지집에서 열매로지  
木三면지의 집(金銀  
主)은 열위향수 북  
하어 서제一格(時價七  
(金永根·何正熙·黃立  
화여 북성國의 의원

板子집 撤去光景  
寫眞 ㄷ다 逢變

자진해서 화장을 할 생각이  
없다. 이제 결혼한 친구가  
한두어 명에 불과한데, 문득 문득  
한두어 명의 친구를 만난  
것은 장치를 잊었다 한다.

債鬼에 쫓겨  
自殺한 女人

二十八日(正六)까지  
대통령소속청에서 관(官)  
區旅館(九)로 이동하여  
관할을 지니 남기로  
살았二十二시의 열은  
십의 시제가 완전히 있다  
주점기이신은 三일

「문학산성서 기우제 거행」, 『인천공보』 제105호, 1955.08.29.)

‘문학산성의 줄기인 알미봉[옛 제단]’에서 기우제를 지냈다.’는 기사인데, 여기서 지칭하는 ‘옛 제단’이 안관당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50년대까지도 문학산에서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빌던 전통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학산성 안에는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 ‘작은 샘[小泉]’ 또는

‘비류정(沸流井)’으로 나타나는 우물이 있었다. 1949년 이경성의 조사에서 우물은 문학산성 동문으로부터 서북쪽으로 150m 되는 한층 앞은 곳에 있고 석축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1997년 지표조사에서 이 우물은 동문지에서 북서쪽으로 60m 떨어진 곳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미 군부대 2층 막사가 들어서 있고 현재 이와 관련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일대는 1970년대 군부대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고도가 낮은 계곡부를 메우면서 우물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물지는 성내부의 최고 해발고도보다 약 10m 이상 낮은 지역으로 문학산 북사면의 곡간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고대 산성은 성내의 곡간부에 집수지를 축조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이곳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우물은 집수지일 가능성도 있다.<sup>19)</sup>

---

19) 인천시립박물관,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 남구청, 2017, 119~120쪽.

## 2. 문학산 주변의 관방유적

### 1) 수리봉 왜성지(倭城址)

문학산성에서 동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수리봉의 동쪽 사면부 주변에는 지금도 추정석렬 유구와 기와편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지도서』에 따르면 ‘동문(東門) 밖 100여 보 되는 곳에 산봉우리가 돌출되어 있는데, 그 봉우리 위에 왜병이 문학산성을 공격할 때 주둔하던 왜성(倭城)의 유지가 있다.’고 하여 이곳이 문학산성을 공격하기 위해 왜성을 쌓았던 곳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후대에도 이



『1872년 지방지도』(인천부)에 부기된 임진왜란 김민선 부사 이야기

어제 1872년 인천부 지방지도에는 “임진왜변에 부사 김민선이 백성을 이끌고 적의 무리를 여러 차례 무찔렀다.”는 기록이 부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 수리봉 일대는 동서 34m, 남북 8.9m 규모로, 면적이 306㎡ 밖에 되지 않아 매우 협소하며, 또 좁고 가파른 암벽구간이어서 성곽이 들어서기에는 어려운 지형이다. 수리봉 일대의 능선 상면과 주변의 산복에서도 성곽과 관련있는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고려~조선시대 기와편이 다수 확인되어<sup>20)</sup> 이 일대에 소규모 시설물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리봉이 문학산성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이며 이 일대에서 산성과 문학산 일대의 조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망루와 같은 소규모 방어시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군사 목적이 아닌 제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 존재했을 수도 있다.



(추정)수리봉 왜성지 전경 및 지표면에 드러난 유물 현황 1

20) 최근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금속 유물 3점이 수습되기도 했고, 등산객들이 주변의 기와 편들을 주워와서 한 쪽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다.



(추정) 수리봉 왜성지 전경 및 지표면에 드러난 유물 현황2

## 2) 문학산 토둔(土屯)

최근 노적산 남쪽 능선 일대에서 관방시설의 일종인 토둔 4곳이 확인되었다. 이는 신미양요 당시 문학산 서쪽 끝에 설치된 포대와 관련있는 유적으로 추정된다.

1호 토둔은 청학동 주택단지 뒤편의 정상부에 위치하며 현재 주변에는 시민들의 체력 단련시설이 있다. 크기는 약 20×20m로 말각방형이며 노적산 서쪽 능선 끝단의 정상부를 절토한 면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2호 토둔은 1호 토둔과 인접하며 동쪽 방향의 약간 하단부에 위치하고, 크기는 약 40×30m의 말각방형이다. 북동쪽 부분이 출입구로 추정되며 노출된 단면으로 보아 흙과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3호 토둔은 인천시립옥련사격장 뒤편에 위치하며 노적산 능선의 중턱에서 서쪽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동쪽의 자연암반을 토둔의 내벽 한면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 토둔은 문학산 서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서해연안과 맞닿아 있고, 서해연안에 대한 조망권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지리적 특징이 있다.<sup>21)</sup>

한편 1871년 신미양요 당시 문학산 봉수대와 주변 일대 등에 군사를 배치하여 매복 및 요망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기록이 『소성진중일지』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중초의 초관 공재선은 본초병을 거느리고 문학산 서현 및 제월봉을 굳게 지키도록 하였다. 별장 최홍구에게는 봉수군을 이끌고 산성 터에 매복하게 하였으며, 아전 김재건과 형리 김진성에게는 화포군을 거느리고 문학산의 동쪽과 서쪽에 포대를 매설하도록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토둔은 신미양요 당시 문학산 서쪽 끝에 설치된 포대와 관련있는 유적으로 추정된다.

21) 인천시립박물관, 『문학산성 정밀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 미추홀구청, 2017, 24~25쪽.

### 3) 관교동 토성지(土城址)

관교동 토성지는 1949년 이경성의 『인천의 명소고적』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이경성은 ‘마근대미’라고 불리는 “주안 중앙도지기회사의 채토장(현 승학산 서쪽) 산턱 일대에 조선시대 토성(土城)이 있었지만, 지금은 토벽이 붕괴되어 옛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관교토성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렸다. 아울러 1959년 유희강은 『향토인천의 안내』라는 책에서 이 관교토성이 “축조연대에 있어서는 상고할 바 없으나 광주의 풍납리토성과 같이 좀더 오랜 역사를 가졌는지도 모른다.”고 하여, 이곳이 비류백제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로까지 비화되었다.<sup>22)</sup>



문학산 1호 토둔

22) 인하대박물관,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인천 남구청, 2012, 260~262쪽.



문학산 2호 토둔



문학산 3호 토둔 북면



문학산 4호 토둔 복서면

현재까지 ‘마근대미’라는 이름이 붙은 지명은 문학초등학교 서쪽을 끼고 서북 방향의 신기촌으로 넘어가는 마근대미고개 뿐이다. 이곳은 과거 인천 관아에서 주안 방향으로 향하는 요로(要路)로, 1871년 『소성진중일지』에 미국 함대의 출몰에 따라 ‘마근현(麻根峴)’에 방수군(防守軍)을 배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당초 토벽 정도로 알려진 흔적도 없는 유적을 가지고 옛 미추홀의 유지로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고, 소규모 방어시설인 ‘토둔(土屯)’ 정도가 존재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 4) 문학산 제사유적

2015년 문학산 삼호현에서 정상부로 오르는 중턱에서 문학산성 관련 방어시설로 추정되는 유구 하나가 확인되었고, 주변에서 여러 유물이 수습되었다. 이에 2016년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하여 처음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문학산성이 있는 문학산 주봉과 연경산 사이의 삼호현(三呼峴, 사모지고개)은 미추홀구 학익동과 연수구의 청학동을 이어주는 고갯길로 광복 전후까지도 연수구 앞바다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판매하러 도심으로 가는 주민들이 이용했다. 한성 백제시기 중국으로 떠나는 백제 사신들은 부평의 별리현(別離峴, 별고개)을 지나, 다시 삼호현을 넘어 현재 옥련동 능허대 옆의 한나루에서 배를 타고 떠났다. 그 때 사신을 배웅하러 따라 나왔던 가족들이 별고개에서 이별을 나누었다 하여 별리현이라 하여, 사모지고개에 이르러 별고개에 여전히 서있던 가족들을 바라보며 큰소리로 세 번 부르며 아쉬움을 달랬다 하여 삼호현이라는 지명이 유래했다고 전한다. 이처럼 문학산 일원에는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지닌 문화유산들이 집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기념물(자연물)이나 장소, 역사적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는 다양한 전설(傳說)들도 전승되고 있다.<sup>23)</sup>

삼호현에서 문학산성 쪽으로 등산로를 따라 약 150m 올라가다 보

23) 황은수, 「문학산의 전설과 '문학산 제사유적」,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 미추홀구, 2016.12.



삼호현 전경

면, 높이 3m 정도 되는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는데, 문학산성 관련 방어시설로 추정되어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방어시설은 아니었고 7세기 중반에 건립되어 적어도 고려 초기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문학산 제사유적’이 나타났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의 제단은 큰 바위 위쪽에 돌을 쌓아 만들었고, 바다가 보이는 서쪽을 향해 있다. 제단 위쪽은 기와지붕을 두어 제단을 보호하였고, 약 100여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는데 주로 7~9세기 기와편과 토기편이었다. 특히 ‘순화원년(淳化元年, 990년) 칠월 일 관(七月日官)’이 새겨진 기와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관청에서 직접 제사에 관련한 시기도 있었다. 또한 청동기시대 화살촉이 함께 출토되고 조





문학산 제사유적 명문기와 밧토기 잔출토 모습

선시대 문학산 관련 제사기록이 고문헌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이곳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제사터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고학계의 어느 전문가는 중부지방에서 최초로 확인된 8세기경의 제사 유적이라고 높은 평가를 하며, 여기서는 주로 바다와 관련된 생업, 바닷길의 안전, 전란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기원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24)</sup>

오랜 기간 서해 바다에 기대어 문학산 주변에 터를 일구어 살아온 선주민들과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제사유적이 비로소 문학산의 전설을 다시 만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선사해주고 있다.

24) (제)한국고고인류연구소, 『인천 문학산성 주변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16.

### 3.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문학산성

#### 1)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56년)

##### 【건치연혁(建置沿革)】

本百濟彌趨忽 高句麗以爲買召忽縣 新羅景德王時改名邵城 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時省入樹州肅宗時陞爲慶源郡 仁宗時又改爲仁州 肅宗時以王后李  
氏之鄉陞 仁宗時又以順德王后李氏之鄉陞爲州 恭讓王二年陞慶源府 王初卽  
位以七代御鄉陞之 且賜州戶長紅靛 本朝初復爲仁州 恭定王十三年改爲仁川  
郡 惠莊王六年 陞爲都護府以昭憲王后外鄉. 官員府使教授各一人 郡名彌趨  
忽[趨一作鄒] 邵城 慶源 仁州.

본래 백제 미추홀이다. 고구려 때는 매소홀현이라 하였고 신라 경덕왕 때 이름을 소성으로 바꾸었으니 울진군의 영현이 되었다. 고려 현종 때 수주에 편입되었고, 숙종 때는 경원군으로 지위가 올랐으며 인종 때 다시 바꾸어 인주라 하였다. 숙종 때는 왕후 이씨의 고향이라 하여 승차되었고, 인종 때는 순덕왕후 이씨의 출신 지역이라 승격되었다. 공양왕 2년에는 경원부로 승차되었는데 왕이 즉위하였을 때 7대어향이라 하여 승격된 것이다. 이때 인천의 호장들에게 홍패를 하사하였다. 본조(조선)에 들어와 다시 인주라 하였고, 공정왕(태종의 시호) 13년에 인천군



으로 고쳤다. 혜장왕(세조의 시호) 6년 도호부로 승격되었는데, 소헌왕후의 외향이었기 때문이다. 관원으로는 부사와 교수 각 1인을 두었다. 군명은 미추홀[趨는 鄒로도 쓴다] 소성 경원 인주 등이다.

#### 【봉수(烽隧)】

城山烽隧在府南二里 南應安山郡吾叱耳 北應富平府紐串山.

성산봉수는 도호부 남쪽 2리 길에 있다. 남쪽으로는 안산군 오질리와 응대하며 북으로는 부평부 축곶산에 응대하고 있다.

#### 【고적(古蹟)】

##### 미추홀(彌趨忽)

朱蒙二子 長沸流次溫祚 自卒本扶餘 率十臣南行 百姓多從之 遂登漢山負兒岳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海濱 十臣諫曰 惟此漢南之地 北帶漢水 東據高岳 南望沃澤 西阻大海 天險地利 難得之勢 作都於此 不亦宜乎 沸流不聽 分其民歸 彌趨忽 溫祚率十臣 都慰禮城 久之 沸流以彌趨忽 土濕水鹹 不得安居 歸見慰禮都邑 定人民安 遂漸愧而死 其臣民皆歸於溫祚.

주몽의 두 아들인 장자 비류와 둘째 온조는 졸본부여에서 10명의 신하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오니 많은 백성이 그들을 따라왔다. (비류

와 온조는) 한산의 부아악에 올라 살만한 곳을 찾았다. 비류는 바닷가에 거처를 정하고자 하였지만 열명 신하가 간하기를 여기 한수 남쪽 땅은 북으로는 한수를 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에 웅거하며 남으로는 비옥한 땅을 기대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에 막혀있어 (이처럼) 하늘의 험함과 땅의 이로움은 얻기가 어려우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비류는 듣지 않고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로 돌아가고, 온조는 열 신하를 이끌고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게 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비류는 미추홀지역이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안정된 거처를 얻기 힘들었다. 비류가 위례 도읍으로 가서 보니 인민들이 모두 편안한 것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죽고 말았다. 이후 미추홀의 백성들은 모두 온조에게 돌아갔다.

## 2) 『여도비지(輿圖備志)』(1853~1856년)

### 【건치(建置)】

本買召忽縣[又云彌鄒忽國]新羅景德王, 改邵城, 爲栗津郡領縣. 高麗顯宗九年, 屬樹州. 肅宗時, 陞慶源郡, 仁宗時, 改知仁州郡事, 恭讓王二年, 陞慶源府, 本朝太宗十三年, 改仁川郡, 世祖五年, 陞都護府. 肅宗十四年, 降縣, 二十三年, 復陞.

본래 매소홀현이다. [또는 미추홀국이라 한다.] 신라 경덕왕이 소성으로 고쳐 울진군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9년(1018), 수주에 속하였다. 숙종 때(1096~1105), 경원군으로 승격하였다. 인종 때(1123~1146) 지인주군사로 고쳤다. 공양왕 2년(1390), 경원부로 승격하였다. 본조 태종 13년(1413), 인천군으로 고쳤다. 세조 5년(1459), 도호부로 승격하였다. 숙종 14년(1697) 현으로 강등하였다. 숙종 23년 다시 복귀하였다.

#### 【관원(官員)】

都護府使[兼南陽鎭管兵馬同僉節制使鎭撫右營將] 一員.

도호부사 [검남양진관병마동첨절제사진무우영장] 1인.

#### 【목장(牧場)】

仁川場[監牧官永宗僉使兼. 牧場, 無衣島, 龍流島]

인천장 [감목관은 영종첨사가 겸한다. 목장은 무의도, 용유도에 있다.]

**【무비(武備)】**

성지(城池)

文鶴山古城 [治南三里, 周四百三十尺]

문학산고성 [치소에서 남쪽으로 3리, 둘레는 430척(尺)이다.]

**【영아(營衙)】**

永宗防營[在紫燕島中, 畿輔水軍防禦使一員兼永宗鎮水軍僉節制使仁川場監牧官, 軍總一千五百七名, 戰船七艘, 倉三] 德積島鎮 [在德勿島中, 水軍僉節制使一員, 軍總五百五十五名, 戰船七艘, 鎮倉一]

영종방영 [자연도 안에 있다. 기보수군방어사 1인(員)이 영종진수군첨절제사, 인천장감목관을 겸한다. 군총이 1,507명, 전선이 7척, 창고가 셋이다.] 덕적도진 [덕물도 안에 있다. 수군첨절제사 1인(員), 군총이 555명, 전선이 7척, 진창이 하나다.]

**【봉수(烽燧)】**

城山 [卽文鶴山]

성산 [즉 문학산이다.]

### 3)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1899년)

#### 【성지(城池)】

彌鄒忽古城[一云, 南山古城. 在府南一里文鶴山, 周四百三十尺. 壬辰倭變, 府使金敏善, 增修古城, 率士民以守, 屢挫賊鋒, 癸巳七月, 病卒. 府使金纘先繼之, 終能全城云. 其東門外百餘步, 有倭城遺址, 槩攻城時, 所屯也].

미추홀고성 [혹은 남산고성(南山古城)이라고도 한다. 관아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문학산에 있는데 둘레가 430척이다. 임진왜란 때 (인천)부사 김민선(金敏善)이 옛 성을 더하여 고치고 사민(士民)을 이끌어 지키며 누차에 걸쳐 적의 공격을 좌절시켰다. 1593년(계사년) 7월에 병으로 죽자 부사 김찬선(金纘先)이 그를 이어서 끝내 성을 온전히 지켜냈다고 한다. 그 동문 밖 백여 보 떨어진 곳에 왜성(倭城)의 옛 터가 남아있다. 대개 성을 공격할 때 왜병들이 머물던 곳이다.]

#### 【봉수(烽燧)】

城山烽燧[在府南一里文鶴山城舊址. 南應安山正往山烽燧, 水路三十里, 陸路五十五里. 北應富平紐串烽燧, 陸路二十五里].

성산봉수 [관아에서 남쪽으로 1리쯤 떨어져 있는 문학산성(文鶴山城) :

미추홀고성의 이칭) 옛 터에 있다. 남쪽으로는 안산(安山)의 정왕산(正往山)봉수와 응수하고 있는데, 수로(水路)로는 30리 거리이고 육로(陸路)로는 55리 거리이다. 북쪽으로는 부평(富平)의 축곶산(楸串山)봉수와 응수하고 있는데, 육로로는 25리 거리이다.]

#### 4. 『인천고적조사보고서』<sup>25)</sup>의 문학산성

##### 문학산성

문학산 정상에는 외성으로 석축의 성벽이 둘레 430척, 또 내성으로 둘레 약 600칸의 토벽이 현존하고 있다. 이것에 관하여 『인천향토지』에 “미추홀고성, 일명 남산고성이라고도 한다. 부 남쪽 1리 문학산에 있고 둘레 430척이다. 임진왜란 때 부사 김민선(金敏善)이 옛 성을 증수하여 사민을 이끌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적병을 막다가 계사년(1593) 7월 병으로 죽자 부사 김찬선(金贊先)이 그를 이어서 끝내 성을 온전히 지켜냈다고 한다. 그 동문 밖 백여 보 떨어진 곳에 왜성의 옛 터가 남아있다. 대개 성을 공격할 때 왜병들이 머물던 곳이다. 彌鄒忽古城, 一云南山古城. 在府南一里文鶴山, 周四百三十尺. 壬辰倭變, 府使金敏善增修古城, 率士民以守屢挫賊鋒, 癸巳七月病卒, 府使金贊先, 繼之終能全城云. 其東門外百餘步, 有倭城遺址, 概攻城時所屯也.”라 기록

25) 2007년 인천문화재단에서 발간되고 배성수가 엮은 『인천고적조사보고서』의 「문학산방면고적전설조사보고서」 중 관광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되었고, 이 산성의 구축 연대에 관하여는 이 시대 산성을 구축하고 이 같이 개명한 것이 아닌가. 또 『인천향토지』 성지(城池)조에도 “임진왜란 때 부사 김민선이 옛 성을 증수했다.”라고 하였으니 당시에도 이미 고성은 존재한 것이다.

이제 이 산성을 보건대 동쪽에는 동문이 있고 서쪽에는 서문이 있었다. 그리고 성벽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단지 성문 부근 2·3개소에 인공적으로 구멍을 뚫은(穿孔) 흔적이 있을 뿐이다. 북면은 천연의 험함을 이용하여 높이 7·8척의 높은 성벽을 쌓았고 남면에도 천연에다 군데군데 성을 쌓았으며, 동·서면은 가장 치밀한 계획으로 축성하였다. 그러나 현재 동문·서문은 모두 도괴되었고 또 북동쪽의 성벽은 도괴되어 산 밑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다.

## 문학산 봉수

문학산 정상에 지름 약 2칸에 걸쳐 토축으로 된 원형 보루가 있다. 이것은 봉수로 변란때 불을 살라 조정의 근방에 통신하는 봉화대이다. 『동국여지승람』에도 “성산봉수는 부 남쪽 2리 되는 곳에 있으며 남쪽으로 안산군 오질이(吾叱耳)에 응하고 북쪽으로 부평부 축곶산(楸串山)에 응한다. 城山烽燧 在府南一里文鶴山城舊址南應安山正往山烽燧水路三十里陸路五十五里北應富平楸串烽燧陸路二十五里”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설에는 미추왕릉이라고 하나 그것은 한갓 전설일 것이다.

## 문학산정(文鶴山頂) 우물

문학산성 동문으로부터 서북으로 약 150미터 되는 한층 얇은 곳에 석축의 우물이 있다. 현재는 석축이 도괴되어 태반이 매몰되었으나 십 몇 년 전까지도 맑은 물이 항시 넘쳐 흐르고 있었다 한다. 표고 280미터 가까운 높은 산 위에 이 같은 우물이 있는 것은 지질학상으로 보아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 이 우물을 판 것은 산성의 구축과 때를 같이 하였으리라고 본다. 아니 이곳에 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기에 산성을 구축한 것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이 우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우스운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즉 이 우물은 어떻게 깊은지 이곳에서 홍두깨를 찌르면 그 끝이 팔미도 바다에서 나온다고. 아마 몹시나 깊은 우물이 있었고 또 물이 약간 짙던 것 같다.



인천의 관방유적

# 남동구



## 남동구

### | 관방유적 위치 |

- ① 논현포대
- ② 장도포대









##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조선시대 인천도호부 소속 10개 면(面) 중에서 남촌면(南村面)과 조동면(鳥洞面)에 속한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부천군 남동면(南洞面)이 되었고, 1940년 인천부에 편입되면서 남동출장소가 설치되었다. 이후 1968년 인천시가 구제(區制)를 실시하며 문학·남부·주안·남동출장소가 통합되어 남구에 편입되었다가 1988년에 남동구(南洞區)가 되었다.

---

\* 황은수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주무관

이 지역은 문학산 권역의 동남쪽으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바다에서 육지 깊숙이 들어오는 두 개의 갯골수로 사이에 위치했다. 구월동 유적, 도림동 인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부지 유적 등에서 원삼국~삼국시대 집터 및 무덤군이 확인되고 있어 문학산 동남쪽 일대가 일찍부터 사람들의 생활터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말 인천연안의 관방체제를 강화하며 1879년 화도진을 설치하고 주요 요충지에 관할 포대를 축조했는데, 현재 남동구 지역에는 당시 인천부 남변의 갯골수로를 방어하기 위해 논현포대와 장도포대가 설치되었다. 이 두 포대는 갯골수로를 통해 육지로 올라와 도성으로 진입하는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1894년 갑오개혁에 따라 화도진이 혁파되며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 1. 화도진과 인천부 남변포대의 설치

조선후기 보장처인 강화도에 대한 방비와 서해에서 도성[수도]으로 진입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구축된 인천연안의 관방 체제는 19세기 말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불과 10년 사이에 발생한 병인양요(1866년), 신미양요(1871년), 운요호 사건(1875년)에서 패배하면서 기존 관방체제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때마다 조선정부는 방비책을 세워가며 대비했지만, 병력과 무기에서 오는 질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다.<sup>1)</sup>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에 의해 조선은 왜관이 있던 부산의 초량항(草梁港)을 바로 통상무역항으로 개항하고, 20개월 이내에 2개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기로 했다. 이에 일본은 자유로이 조선 연해를 측량하며 최적의 개항장을 찾고자 했다. 동해안에서는 일찍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알려져 있던 원산을 개항하기로 결정했고, 서해안에서는 1877년 9월부터 측량을 시작하여 목포에서 남양만 그리고 인천부 제물포를 거쳐 월미도와 영종도까지 조사했다. 결국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은 1879년 6월 조선정부에 인천 개항을 요구했지만, 조선 정부는 인천이 서울에 가까운 ‘보장최요지(保障最要之地)’로 결코 개항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한 인천 외에도 강화, 통진, 수원, 남

1)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①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 인천광역시, 2013, 208쪽.

양도 개방할 수 없다 하면서 충청·전라도 지역을 재측량하여 개항장으로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조선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나긴 협상이 이어져 1881년 2월 28일, 20개월 후 인천을 개항하기로 확정하였다.<sup>2)</sup>

강화도조약에 따라 일본의 조선 연해 측량 그리고 제물포에 대한 개항 요구가 이어지자, 조선정부는 제물포의 개항을 반대하면서 인천해역의 방어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1877년 가을부터 조선정부에서는 ‘인천·부평은 강화에 못지않은 보장중지(保障重地)이며, 강화수보다 이 지역을 통해 서울로 가는 것이 편리하고 거리도 가까우며, 일본이 이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수도 방위를 위해 우선적으로 강화지역보다 인천 연안의 방어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1878년 8월 27일(음력), 고종은 어영대장 신정희(申正熙)로 하여금 인천·부평의 요충지에 ‘창진설돈(戍鎭設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1879년 7월 인천의 화도진에는 제물포포대, 북성곶포대, 묘도포대, 호구포대, 장도포대가 설치되었고, 부평의 연희진에는 연희포대, 가정포대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sup>3)</sup>

화도진의 설치와 함께 인천 각지의 해안가에는 포대가 축조되었고, 이 포대들은 화도진에서 관할하였다. 그 포대들은 『화도진도(花島鎭

2) 이영호, 『개항도시 제물포』, 민속원, 2017, 96~98쪽.

3) 이영호, 앞의 책, 2017, 98~1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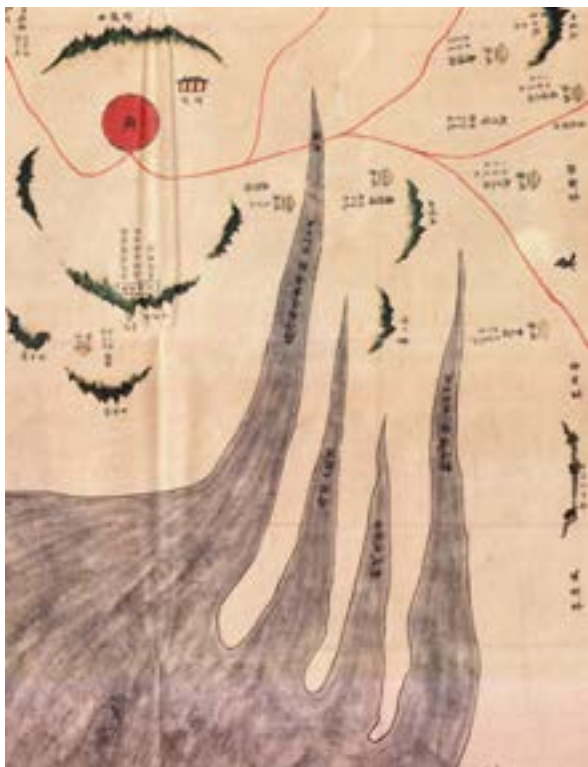
圖)』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sup>4)</sup>

화도진 소속 포대현황

구분	포대명	현재위치	포좌	축조지형	축조목적
1	묘도북변포대	동구 만석동	5월	해안저지대	주안갯골수로 3차 방어
2	묘도남변포대	동구 만석동	5월	해안저지대	
3	복송곶북변포대	중구 북성동	3월	구릉저사면	주안갯골수로 2차 방어
4	복송곶남변포대	중구 북성동	5월	해안저지대	
5	제물포북변포대	중구 북성동	8월	해안저지대	주안갯골수로 1차 방어 제물포 해안 상륙저지
6	제물포남변포대	중구 향동	5월	해안저지대	
7	호구포대	남동구 논현동	2월	해안저지대	승기갯골수로 방어
8	장도포대	남동구 논현동	3월	해안저지대	소래갯골수로 방어

『화도진도』에 묘사된 포대들의 형태를 보면, 이들은 상륙하는 적병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을 태우고 갯골을 따라 내륙 깊숙이 접근하는 선박을 목표로 했다. 인천 동남쪽의 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고 수심이 얕아 대형선박의 접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인천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소형 단정(短艇)으로 병사들을 옮겨 싣고 갯골을 따라

4)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3, 213~215쪽.



『1872년 지방지도』에 나타난 인천부 동남쪽의 갯골수로

내륙 깊숙한 지점으로 상륙해야만 했다. 인천해안의 갯골수로는 월미도와 제물포 사이의 좁은 수로를 통과하여 만석동 팽이부리에서 우측으로 돌아 만월산 아래까지 흘러드는 이른바 주안갯골, 안산 오이도 앞에서 외암도와 남동공단을 거쳐 선학동까지 흘러드는 승기갯골, 그리고 역시 오이도 앞에서 소래를 거쳐 시흥시 포동까지 흘러드는 소래갯골이 있었다.

앞의 『1872년 지방지도(인천부)』를 보면, 바다에서 ‘부내면 도장포(道章浦)’, ‘남촌 산후포(山後浦)’, ‘신현 후음포(後陰浦)’, ‘신현포(新峴浦)’ 등의 포구로 갯골수로가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도진 소속의 포대는 인천부 북서쪽 주안갯골로 들어오는 길목에 묘도, 북송(성)포 남변과 북변 등의 6개 포대가 집중되어 있고, 인천부 동남쪽 승기갯골과 소래갯골에 각각 1개씩의 포대가 배치되어 있었다.<sup>5)</sup>



1879년경 『화도진도』에 나타난 승기갯골과 소래갯골 초입의 두 포대

5) 화도진 소속의 포대 중에서 제물포 주변의 6개 포대는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고 포좌의 수도 5~8개인데, 장도 및 논현 포대는 포좌 수가 각각 3개와 2개이고 두 포대 간의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인천 연안의 주력 포대는 제물포 주변의 6개 포대와 부평 연희진 소속의 포대들이었고, 장도 및 논현 포대는 우회수로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방어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남동걸·오정윤, 『소래 삶의 터전』, 남동문화원, 2018, 24쪽).



『1910년 인천 지형도』에 나타난 송기갯골과 소래갯골



『1917년 인천 지형도』에 나타난 갯골과 두개의 포대지(砲臺址)

이와 같이 인천연안의 관방체제를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1881년 인천 제물포의 개항이 결정되자 화도진과 연희진의 기능과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1882년 6월 28일 연희진을 혁파하는 한편, 화도진을 훈련도감으로 이속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sup>6)</sup>

---

6)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013, 215쪽.

## 2. 논현포대

일명 ‘호구포대(호구포포대)’라고도 부르는 논현포대는 논현의 호구포라는 포구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호구포는 속칭 ‘범아가리’라 불리는데, 이 지명은 호구포 뒷산인 오봉산 기슭에 있는 검고 커다란 바위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 이 오봉산의 바위가 범아가리[호구(虎口)]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호구포라는 지명이 유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도진도』를 보면, 호구포대 옆에 있는 ‘호구암(虎口巖)’이라는 바위섬이 있어 이로 인해 ‘호구포’라는 이름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sup>7)</sup>



1970년대 초 논현포대(『박광성 선생 사진첩』)

7) 남동걸·오정윤, 앞의 책, 2018, 35~36쪽 ; 강덕우, 『화도진의 설치와 운영』, 『동구사』 상권, 동구사편찬위원회, 2019, 195~196쪽.



현재의 논현포대



논현포대의 복원된 화포



논현포대의 포좌(砲座)는 모두 2개이며, 축조 형식은 각 포좌의 아랫 부분에 잡석을 깔고 중단과 상단에는 어느 정도 다듬은 장대석을 쌓았으며 그런 다음 그 위에 봉토로 마무리하였다. 이 포대는 화도진에 소속되어 인천부 남변의 승기갯골수로의 방어를 담당하였고, 장도포대와 함께 인천의 남동쪽 성현(星峴)을 거쳐 육로를 이용하여 도성으로 접근하려는 적선의 해안 상륙을 저지하려는 방편으로 축조되었다. 논현포대는 1982년 3월 2일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화도진도』에 나타난 논현포대



### 3. 장도포대

장도포대는 소래포구를 가로지르는 소래철교 옆의 구릉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자리는 ‘노루목’ 또는 ‘노렘’이라고 부르는데, 산 모양이 노루를 닮아서 장도(獐島)라고 불리었다.

앞의 『화도진도』에 포좌 3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포대에 설치되어 있던 직경 30cm 정도의 ‘대완구(大碗口)’가 있었기 때문에 ‘댕구산’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장도포대의 포 배열을 보면 2문은 바다 쪽인 만수천·장수천·은행천·내하천의 물이 모여 소래포구 앞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인 뱀내(蛇川) 하구 쪽을 향하고 있으며, 1문은 동남쪽을 향해 내·외곽의 수비를 목적으로 하였다.

장도포대는 터만 남아 있어 2001년 4월 ‘장도포대지’라는 명칭으로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9호로 지정되었다.

1920~1930년대 승기갯골수로와 소래갯골수로에 각각 남동염전과 소래염전이 조성 및 확대되었고, 포대가 있던 장도 및 호구포에는 1937년에 개통된 수인선 철로가 지나가게 되면서 원래의 지형도 바뀌게 되었다. 오늘날의 모습은 그 동안 꾸준히 진행된 해안 매립과 도시개발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논현포대와 장도포대가 위치한 지역은 바다에서 내륙으로



장도포대 측면



장도포대 전경



1963년 인천 지형도 상의 두개의 포대지

깊숙이 들어오는 승기갯골수로와 소래갯골수로의 연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강화 수로를 통한 수도로의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소형 선박으로 갯골을 따라 접근하려는 적선의 상륙을 저지하려는 목적에서 축조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화도진 소속의 포대에 비해 포대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포혈의 수도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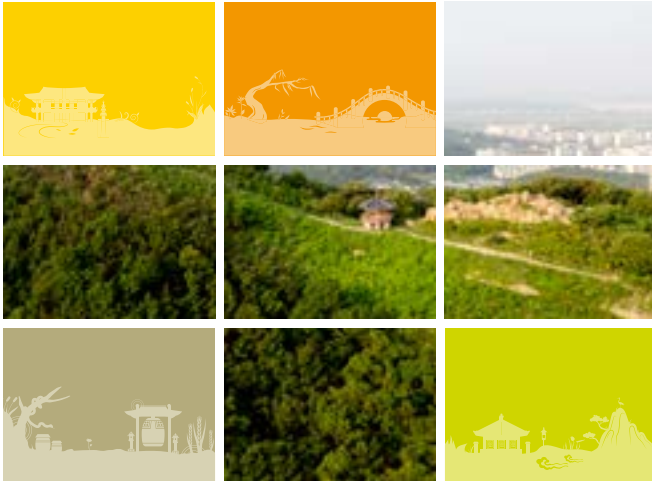
요컨대 19세기말 인천부 남변의 갯골수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던 논현포대와 장도포대는 그 역할을 다하지도 못한 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다.

8) 남동구사편찬위원회, 『남동구 20년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0.



인천의 관방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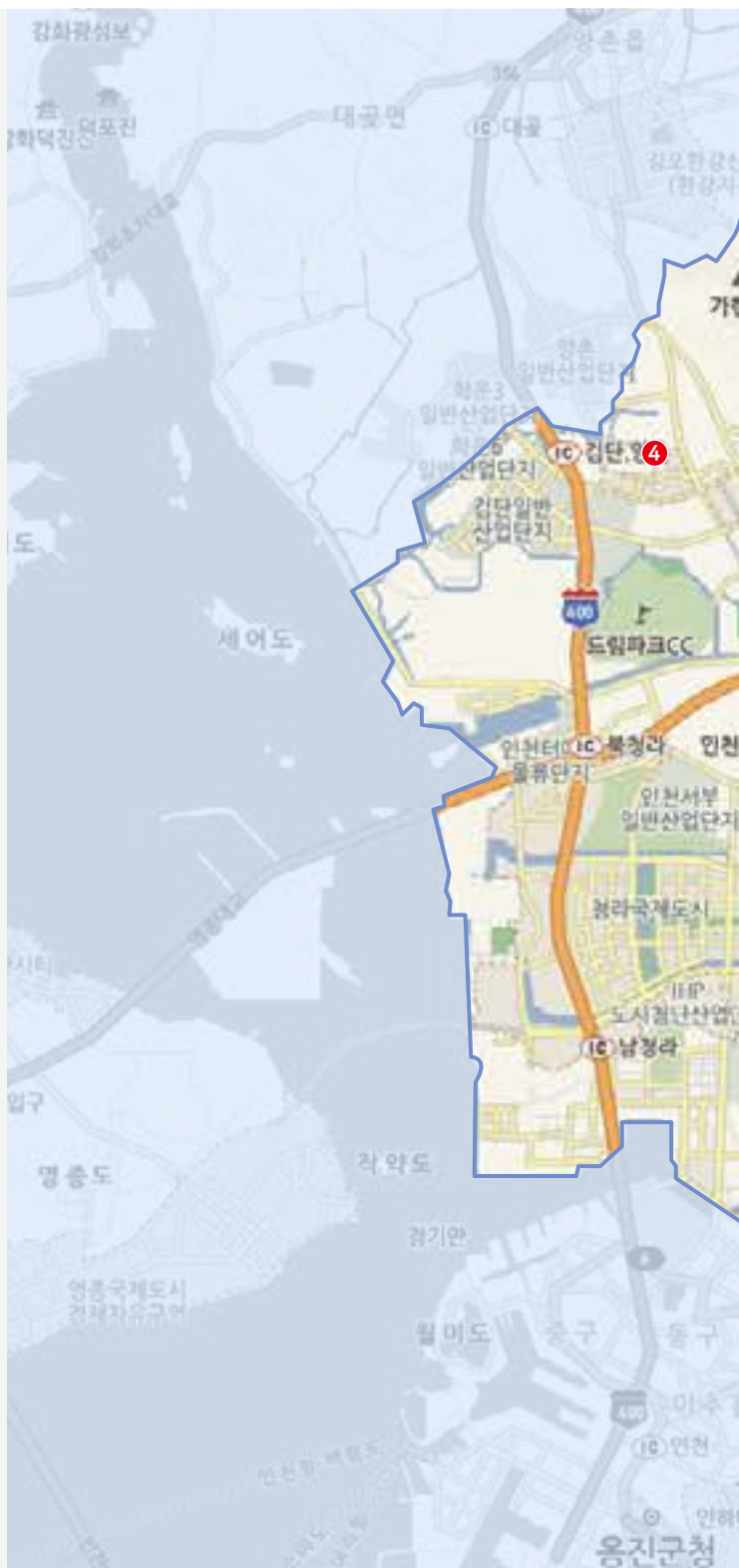
# 부평구 계양구 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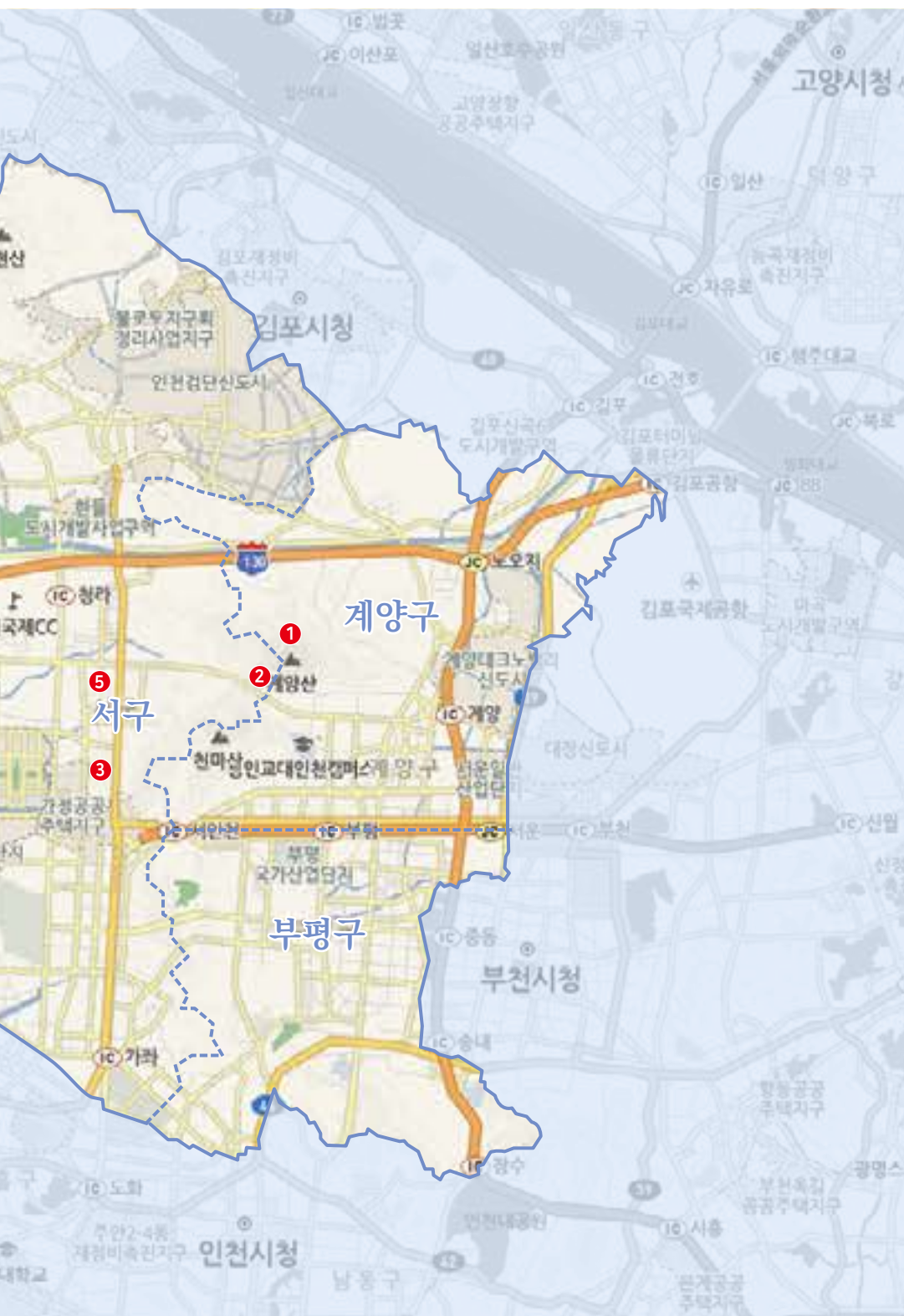
## 부평구/계양구/서구

### | 관방유적 위치 |

- ① 계양산성
- ② 중심성지
- ③ 축곶봉수
- ④ 백석산봉수
- ⑤ 연희진













## 부평구/계양구/서구

계양산 일대에 위치한 부평구, 계양구, 서구 지역은 서해와 한강 하류에 면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하나의 역사적·문화적 권역이다. 이 지역은 주산인 계양산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팔봉산과 가현산으로 이어져 김포시와 경계를 이루고, 남으로는 철마산과 원적산, 만월산으로 이어져 원인천지역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바다와 면하고 있다. 또한 굴현천, 계양천, 계산천과 굴포천, 공촌천, 시천천, 심곡천, 검단천, 나진포천 등의 하천이 서해와 한강으로

---

\* 건수천 계양구청 학예연구사

흘러 드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이 지역은 일찍부터 선조들의 생활 터전이 되었고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강 하류와 서해를 잇는 경제와 군사의 요충지이자 한강 서부지역의 중심지였다. 이는 삼국시대 초 백제의 영역에서 고구려의 남진 후 주부토군으로,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후에는 한강 하류의 넓은 지역을 감제하는 장제군의 치소로, 고려시대에는 지명이 수주·안남도호부·계양도호부·길주목·부평부로 이어지는 지역의 치소로, 조선시대는 경기좌도의 계수관인 부평도호부의 치소로 경영된 이 지역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초축시기와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삼국시대의 것이 분명한 계양산성, 서해 연안을 통한 외침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고려~조선시대의 축곶봉수와 백석산봉수, 개항기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연희진과 중심성 등의 관방유적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이 지역의 중요성이 어떠했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

## 1. 계양산성(桂陽山城)

### 1) 계양산성의 현황

계산동 산10-1번지 일원에 위치한 계양산성은 인천의 고대문화를 상징하는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1992년 5월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다. 계양산성은 그 둘레가 1,180m, 면적은 62,863㎡에 달해 삼국시대의 산성으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sup>1)</sup>

성벽은 다듬은 돌을 쌓아 올려 만들었는데, 성벽이 잘 남아 있는 곳은 그 높이가 7m에 이른다. 성곽은 계양산 정상이 아닌 동쪽의 낮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축조되었는데, 이런 입지와 형태적 특성 때문에 “사모봉(紗帽峰)”형의 산성으로 분류된다.<sup>2)</sup> 다산 정약용은 『민보의(民堡議)』에서 산성을 쌓기에 유리한 지형을 고로봉형, 사모봉형, 산봉형, 마안봉형 등 4가지로 분류했는데, 계양산성은 이 중 사모관대의 형태와 비슷하게 배후에 높은 지세 조건을 갖추어 장대를 설치할 만한 봉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 대증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형을 갖춘 ‘사모봉형’에 해당된다. 이 분류법은 연구자에 따라 계양산성을 ‘테피식’, ‘포곡식’으로 다르게 구분하는 기존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유용하다.

1) 인천광역시, 『계양산성 지표조사』, 1997 및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 계양구, 2012 참조.

2) 다산 정약용은 산성을 쌓기에 유리한 지형을 고로봉형, 사모봉형, 산봉형, 마안봉형 등 4가지로 분류했는데, 계양산성은 이 중 사모관대의 형태와 비슷하게 배후에 높은 지세 조건을 갖추어 장대를 설치할 만한 봉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 대증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형을 갖춘 ‘사모봉형’에 해당된다. 이 분류법은 연구자에 따라 계양산성을 ‘테피식’, ‘포곡식’으로 다르게 구분하는 기존의 혼란을 바로잡는데 유용하다.



계양산성 전경(동→서)

산성의 형세는 동남에서 서북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놓인 긴 타원형에 가까운데, 서남쪽이 튀어나오고 북동쪽이 들어간 모습이다. 성벽은 동문지 주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체성부가 대부분 온전히 남아 있지만, 외벽은 면적이 80% 가까이 유실되어 남벽과 서벽, 북벽의 일부 구간에서만 간간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9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북문지, 치성 2개소, 집수시설 3개소, 대형건물지 1개소, 건물지 9개소, 제사유적 1개소 등의 성내 잔존유적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유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2차 발굴이 이루어진 곳이 ‘동문지’로, 북쪽 최정상부의 산불초소 일대



성벽(외벽) 잔존 현황도

와 남동쪽 끝의 육각정 일대는 ‘장대지(將臺址)’로 추정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공동묘지로 사용되면서 1,000여기의 분묘가 산성 중앙부에서 남쪽 끝 부분까지 빼곡히 들어서 있었는데, 계양구에서 오랜 노력 끝에 모두 이장하고 최근 그 자리에 탐방로와 쉼터를 조성하였다.

## 2) 계양산성 문헌기록과 도면

계양산성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몇몇 지리지와 읍지의 부평도호부 ‘고적’ 항목에 간략한 유적의 현황만 기록되어 있다. 계양산성과 계양산에 대한 문헌기록의 내용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천】 계양산(桂陽山) 부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 진산(鎭山)인데, 일명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 …… 【고적】 계양산고성(桂陽山古城) 돌로 쌓았고 둘레가 1,937척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sup>3)</sup>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산천】 계양산(桂陽山) 부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 진산(鎭山)인데, 일명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 …… 【고적】 계양산고성(桂陽山古城) 돌로 쌓았고 둘레가 1,937척이다. 삼국시대 쌓았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sup>4)</sup>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1656년)

【산천】 계양산(桂陽山) 부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 진산(鎭山)인데, 일명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 …… 【고적】 계양산고성(桂陽山古城) 그 터만 남았다.<sup>5)</sup>

『여지도서(輿地圖書)』, (1765년)

【산천】 계양산(桂陽山) 부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데, 일명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 …… 【고적】 계양산고성(桂陽山古城) 돌로 쌓았고 둘레가 1,937척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고 최상부에 흔적이 남아 있다.<sup>6)</sup>

『경기지(京畿誌)』, (1842~1843년)

3) 山川 桂陽山 在府北二里鎭山一名安南山 …… 古跡 桂陽山古城 石築 周一千九百三十七尺 今皆頽落.

4) 山川 桂陽山 在府北二里鎭山一名安南山 …… 古跡 桂陽山古城 石築周一千九百三十七尺 相傳三國時 古築今皆頽落.

5) 山川 桂陽山 在府北二里鎭山一名安南山 …… 古跡 桂陽山古城 只有基址.

6) 山川 桂陽山 在府北二里一名安南山 …… 古跡桂陽山古山城石築周圍一千九百三十七尺今皆頽落.

【산천】안남산 일명 계양산이라고 하며 부 북쪽 2리에 있다.【성지】고성(古城)  
안남산(安南山)의 동남쪽인데, 둘레가 1,937척이다.<sup>7)</sup>

『대동지지(大東地志)』, (1862~1866년)

【산천】계양산(桂陽山) 부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 진산(鎭山)인데, 일명 안  
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 …… 【고적】계양산고산성(桂陽山古城) 돌로 쌓  
았고 둘레가 1,927척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sup>8)</sup>

『경기읍지(京畿邑誌)』, (1871년)

【산천】계양산(桂陽山) 부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 진산(鎭山)인데, 일명 안  
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 …… 【고적】계양산고성(桂陽山古城) 돌로 쌓았  
고 둘레가 1,937척인데 지금은 터만 있다.<sup>9)</sup>

『기전읍지(畿甸邑誌)』, (1895년)

【산천】계양산(桂陽山) 부의 북쪽 2리에 있고, 진산이며 일명 안남산이라 한  
다. 【고적】계양산고성(桂陽山古城) 돌로 쌓았다. 둘레는 1,937척이었으며,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sup>10)</sup>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 (1899년)

7) 山川 安南山 一云桂陽山 北二里 …… 城地 古城 安南山東南一千九百三十七尺.

8) 山川 桂陽山 在府北二里一名安南山 …… 古跡 桂陽山古城 石築周一千九百二十七尺今頽落.

9) 山川 桂陽山 在府北二里鎭 山一名安南山 …… 古跡 桂陽山古城 石築周一千九百二十七尺今只有基地.

10) 山川 桂陽山 在府北二里鎭山 一名 安南山 …… 古跡 桂陽山古城 石築 周一千九百二十七尺 今只有基址.

【부평 계양산성】삼국시대에 설치한 것으로, 둘로 쌓았는데 둘레가 1,937척  
이다. 지금은 폐성(廢城)이다.<sup>11)</sup>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1908년)

계양산성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시기가 앞서는 것은 1530년(중종 25)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평도호부’ 내용으로, 둘로 쌓은 성이라는 사실과 둘레 1,937척의 규모라는 사실, 그리고 모두 무너져 고성(古城)으로 불린다는 사실 등이 전한다. 이후의 기록들은 대부분 거의 동일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17세기에 간행된 『동국여지』와 대한 제국기의 기록인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시대에 쌓았다.”고 성의 연혁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문헌기록으로 미루어 계양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나, 16세기 이전에 이미 폐기되어 이후에는 ‘고성(古城)’으로 칭해지며 그 터만 전해내려 온 것으로 보인다.

11) 富平 桂陽山城 三國所設 石築 周一千九百三十七尺 今廢 (『증보문헌비고』 여지고14, 관방2, 성곽2).



(1) 『해동지도(海東地圖)』 부평부(1750년대 초)



부평도호부의 관아와 향교 등이 위치한 중심지 북쪽에 계양산 주봉이 자리하고, 여기서 동쪽으로 흘러내린 봉우리에 계양산성이 있는데, 성곽의 여장 모양을 기입하고 ‘고산성(古山城)’이라 표시하였다. 지도에 부기된 설명의 ‘고적’ 항목에는 “계양산고성은 둘레 1,937척인데 폐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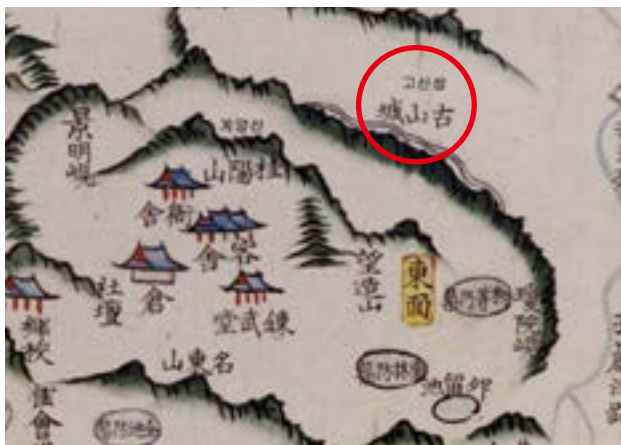
(2) 『지승(地乘)』 부평부(1776년)

부평도호부의 중심에 관아와 향교 등이 있고 부의 북쪽 계양산 주봉 동쪽의 소봉 위에 ‘고산성(古山城)’이라고만 표기하였다.



### (3) 『광여도(廣輿圖)』 부평부(18세기 후반)

관아와 향교 등이 있는 부 중심가의 북쪽에 계양산 자락이 겹겹이 있는데, 주봉 동쪽으로 이어지는 산봉우리 위에 겹줄로 산성을 표시하고 그 위에 ‘고산성(古山城)’이라고 썼다.



(4) 『여지도(輿地圖)』 부평부(1789~1795년)

『지승』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양산 주봉 동쪽의 소봉 위에 ‘고산성(古山城)’이라고만 표기하였다.



(5) 『1872년도 지방도』 부평부(1872년)



부평도호부 중심지의 건물배치 등은 모두 생략하고 산줄기, 물줄기, 교통로 위주로 표현되어 있다. 계양산 뒤에 있어야 할 한강 줄기가 동쪽에 표시되어 있다. 계양산 정상 동쪽의 작은 봉우리에 ‘고산성(古山城)’이라고 계양산성을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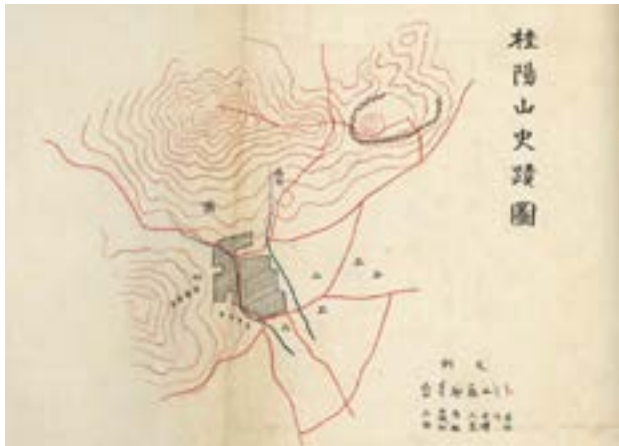
#### (6)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1899년)

읍치에 관아를 표시하였고 그 북쪽에 계양산이 자리하고 있다. 계양산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봉우리에 성곽의 여장 모양을 표시하고 그 위에 ‘고산성(古山城)’이라 기입하였다.



(7) 『계양산사적도(桂陽山事跡圖)』(1916년)<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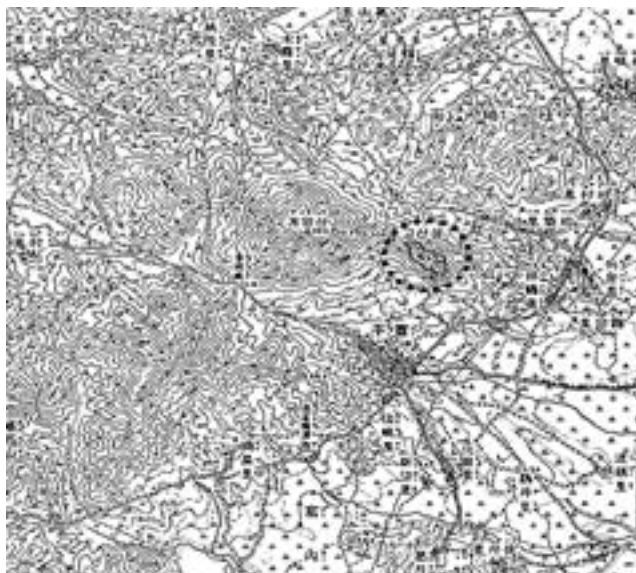
1916년 6월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우에바야시 게이지로(上林敬次郎)가 계양산 일대의 유적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지도로, 지형도 위에 시가지와 계양산 일대의 유적 현황을 표시하였다. 석탑과 절터, 고분, 고성지를 기호로 표시하고 범례를 따로 두었다. 계양산성은 도면의 북동쪽에 표시되어 있는데, 성곽의 북동쪽 1/3 정도는 표시하지 않았다.



(8) 『근세오만분지일지형도(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1918년)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서 측량한 축척 1/50,000의 지형도로, 계양산 일대의 정밀한 지형과 일제강점기 초 부평의 도로, 시가지 모습이

12) 『대정(大正) 5년(1916) 계양산 고성 등 조사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수록.



상세히 표현되어 있다. 계양산 주봉의 동남쪽에 계양산성 잔존 성곽의 범위를 표시하고 ‘고산성’이라 기입하였다. 『계양산 사적도』에 표기되지 않았던 산성의 북동쪽 부분을 포함해 성곽의 외형과 잔존범위가 명확히 나타나 있다.

### (9) 『조선성지실측도(朝鮮城址實測圖)』<sup>13)</sup>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일제강점기에는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성곽의 실측 도면자료이다. 자료에는 도면의 제작자나 제작연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자료의 내

13) 『조선성지실측도』, 조선총독부 산림국(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용과 성격 등으로 미루어 조선총독부 산림과에서 ‘국유림구분조사(國有林區分調査)’가 실시되던 1911~1924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sup>14)</sup>

이 자료에는 지금은 돌아볼 수 없는 북한지역의 성을 포함해 작성 당시 한반도에 존재하던 대다수의 산성이 포함되어 있다. 등고선 위에 성지를 기입하였는데, 근대적 도면 작성법을 활용한 최초의 성곽조사 도면으로 평가된다.<sup>15)</sup>

『조선성지실측도』에는 1/6,000 축적의 지형도에 계양산성의 현황

14) 太田秀春, 『朝鮮城址實測圖와 倭城』, 『한국문화』 2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0.

15) 太田秀春, 위의 글 참조.



실측 성과를 기입한 도면이 수록되어 있다. 도면 우측에는 ‘계양산성 국유림 고성지(桂陽山城 國有林 古城址)’라 도면의 제호가 기입되어 있고,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임학리, 부내면 부평리(京畿道 富川郡 桂陽面 林鶴里, 富內面 富平里)’라 소재지가 기입되어 있다. 성내 동남쪽에는 ‘부내면 공동묘지(富內面 共同墓地)’라 표기되어 있어 도면이 작성되던 시기에 이미 계양산성이 공동묘지화 되는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곽 주변에는 각기 다른 인물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는데 해당 필지의 토지주로 추정된다.

### 3) 계양산성 학술조사

계양산성은 16세기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역사기록도 충분치 않아 그 가치와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유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때문에 일찍부터 다방면의 자료 확보를 위한 학술조사가 여러 차례 시행되었고, 그 결과 유적의 특징과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 (1) 계양산 고성 등 조사(1916, 조선총독부박물관)<sup>16)</sup>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 위원이던 조선총독부박물관의 우에바야시 게이지로(上林敬次郎)가 1916년 6월 계양산 일대의 유적 현황을 조사

16) 『대정 5년 계양산 고성 등 조사보고서』(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하고 그 결과를 3쪽의 간략한 보고서로 남겼다. 계양산성을 ‘고성지(古城址)’로 구분하고 조사 당시의 유적 현황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고문헌의 기록을 간략히 옮겨 놓았다. 이는 일제 당국에 의한 것이고 약식 조사에 그쳤지만, 문화유적으로 계양산성의 현황을 처음으로 조사하고 기록했다는 의미가 있다. 보고서에서는 유적의 현황에 대해 “성벽 곳곳이 무너지고 … 기와편이 주변에 산재해 있으며 … 공동묘지로 사용되어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고 서술하며 붕괴와 인위적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계양산성 성곽의 잔존범위를 보고서에 첨부된 『계양산사적도』라는 도면에 표기했는데, 성곽의 북동쪽 1/3 가량은 표기하지 않았다.

## (2) 부평읍 계양산 방면 고적조사(인천시립박물관, 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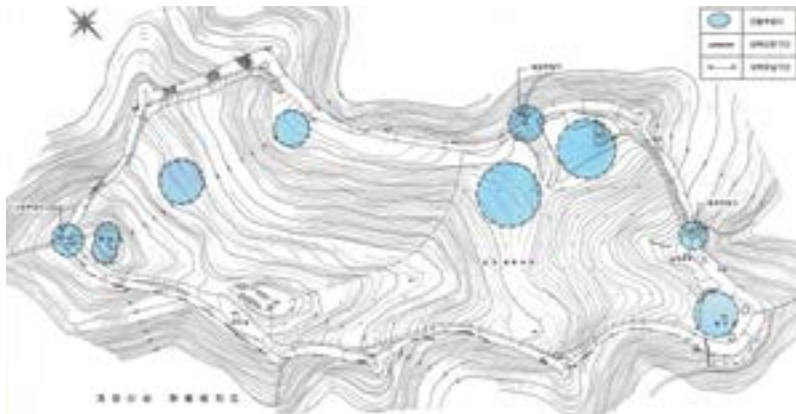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지역 문화유적의 현황을 조사·정리기 위해 시행한 『인천고적조사』의 한 부분으로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시립박물관 이경성 관장을 비롯한 4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이 1949년 10월 12일 계양산 일대 유적에 대해 학술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가 『인천고적조사보고서』<sup>17)</sup>에 정리되어 있다. 보고서에는 “… 기록된 바와 같이 동봉(東峯) 석성산(石城山) 산정을 사방으로 두루 감

17) 이경성 저·배성수 편, 『인천고적조사보고』, 인천문화재단, 2012, 8~12쪽. 조사 당시 정식 보고서로 간행되지 않아 오랫동안 박물관에 미간행 원고본으로 남아있었는데, 근래에 원문과 윤문본을 함께 엮어 책자로 간행되었다.

아 축성하였는데 3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퇴락(頽落)되었다.”<sup>18)</sup>고 유적의 현황을 전하는 한편, “임진왜란시의 고전장(古戰場)으로 권율장군이 소서행장(小西行長)을 물리치어 크게 승리한 곳이다.”라는 지역 구비전승 등 간략한 내용만 수록되어 있다. 이는 단 하루에 계양산 일대의 유적을 모두 조사한 당시의 빠듯한 일정 탓에 성곽 내외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 (3) 계양산성 지표조사(1997)

1992년 계양산성이 인천시 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후 유적의 현황과 가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한 학술조사였다.<sup>19)</sup>



18) 이경성 저·배성수 편, 앞의 책, 172~173쪽.

19) 『계양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 1997.

조사 결과, 계양산성에 대한 현황측량과 정밀실측을 통해 처음으로 정확한 유적의 상태와 잔존 현황이 파악되었고, 전문가의 고찰을 통해 훼손 전 성내에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주요 건물지와 문지 등의 위치와 분포 범위 등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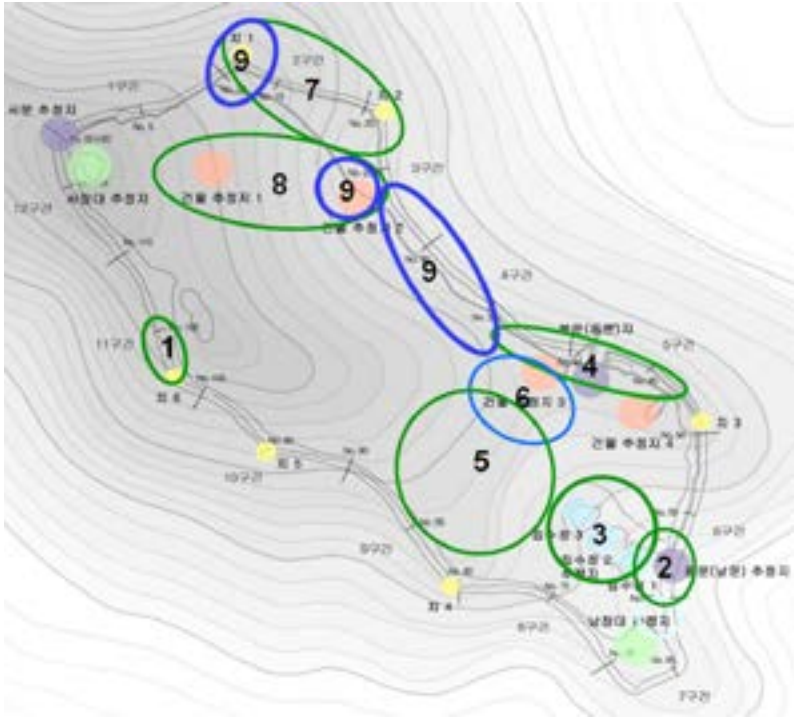
이 조사를 통해 계양산성은 해발 202m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축조된 둘레 1,180m의 석성이라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지표상에 노출된 유구나 유물의 산포현황을 토대로 문지 3개소(동문, 북문, 서문)와 장대지 2개소(동남, 북서), 여타 건물지 4개소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 (4) 계양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2001)<sup>20)</sup>

인천광역시에서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행한 학술조사로, 계양산성을 비롯해 계양산 일대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현황을 폭넓게 조사하였다. 계양산성과 중심성을 비롯해 폐사지, 관아, 고분, 금석문 등 계양산 일대의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조사단에서는 이때 수습된 토기편, 기와편 등의 유물을 분석하여 계양산성이 삼국시대의 유적일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북문 추정지 내부의 진입로와 석축을 확인하였다.

---

20) 『계양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1.



계양산성 발굴조사 구역(조사 차수별)

### (5) 제1차 발굴조사(2003. 8 ~ 10) : 서벽

계양산성에 대한 첫 발굴조사로, 성벽의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팔각정 부근의 서벽을 절개하여 그 내외부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성벽은 자연구릉의 경사진 곳을 굴착한 후 안쪽은 깎돌로 채우고 외벽은 장방형의 깎돌을 다듬어 쌓아올렸는데,

잔존 성벽은 높이가 5m, 폭은 4m 정도이고, 성벽의 기울기는 8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삼국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기와, 철촉 등 다수의 유물이 수습되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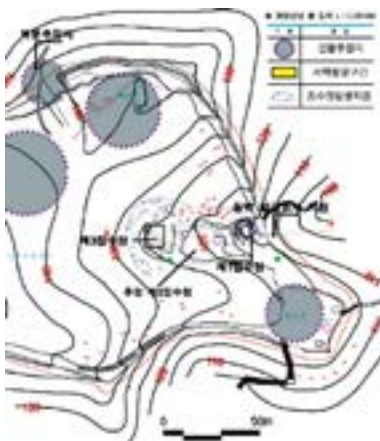
발굴조사 위치 및 서벽 발굴 현황

21) 『계양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8.

## (6) 2차~3차 발굴조사(2005. 2 ~ 2006. 8) : 동문 추정지

지표조사에서 동문지로 추정된 지점의 성벽과 주변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는데, 집수정이 발굴됨에 따라 이듬해 조사 범위를 넓혀 정밀 발굴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성벽에 대한 조사에서 ‘동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존재를 짐작케 하는 문확석 등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동문지 안쪽의 계곡부에 대한 조사에서 제1 집수정과 제3 집수정을 확인하였다. ‘주부토(主夫土)’ 명문이 새겨



진 기와와 각종 토기를 비롯해 집수정 내부에서 『논어』의 글귀를 쓴 목간과 원저단경호 등 삼국시대의 유물들이 잇따라 발굴되었다.<sup>22)</sup>



조사 위치 및 발굴된 제1 집수정

22)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앞의 책.

#### (7) 4차 발굴조사(2009. 5 ~ 8) : 북문지 일원

계양산성의 주 출입문으로 추정되는 북문지와 그 주변의 유구를 확인하기 위해 지표조사에서 북문지로 추정된 지점과 그 좌우의 성벽, 성문 안쪽의 평탄지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통해 북문의 문지와 ‘ㄱ’자로 꺾인 통로부, 시대를 달리하는 2개의 문루와 그 기둥자리, 배수구, 문확석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통해 북문이 원래 현문식 구조였으며 왜성의 영향을 받아 개축한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인접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성내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토기와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고 화살촉 등의 철제유물도 발견되었다.<sup>23)</sup>



북문지 발굴조사 현황

23) 고려문화유산연구원, 『계양산성』Ⅱ, 2011. ; 심광주, 「계양산성의 축조방법과 축조시기」, 『인천 계양산성의 가치와 활용』, 계양구, 2013.



(8) 5차~6차 발굴조사(2013.10 ~ 2014.12): 분묘 정리지역, 북문지 인접 건물지

일제강점기부터 들어선 1,000여기의 분묘 이장사업이 진행된 성의 남동쪽 완사면에 유적의 잔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듬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북문지와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모두 9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는데, 유적에서는 명문기와와 다양한 토기류를 비롯해 철검과 철촉 등의 철제유물도 함께 출토되었다.<sup>24)</sup>



5~6차 발굴 조사 범위 및 발굴유구 현황

24) 『계양산성』Ⅲ, 거래문화유산연구원, 2016.



### (9) 7차 발굴조사(2015. 5 ~ 8) : 북동쪽 치성 및 건물 추정지

지표조사 당시부터 비교적 뚜렷한 치성(雉城)의 흔적으로 여겨졌던 북동쪽 치성 추정지 2곳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치성의 잔존 유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치성은 성곽의 초축 이후 기존의 성벽에 ‘토심석축’ 기법으로 덧붙인 시설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측 성벽 인근의 건물 추정지 2곳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는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되어 이후 8차 발굴조사가 이어졌다.<sup>25)</sup>



7차 발굴 조사범위 및 발굴된 1차 현황

25) 『계양산성』Ⅳ, 거례문화유산연구원, 2017.

(10) 8차~9차 발굴조사(2016. 5~2017. 10) : 북동쪽 건물 추정지, 집수지 등

7차 발굴조사 때 건물의 기초부로 추정되는 유구가 발견된 2개 지점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여 23.7×10.2m 규모의 대형건물지, 집수지, 제사유구를 확인하였다. 대형건물지는 성내에서 가장 높고 전망이 뛰어난 곳에 두꺼운 판축 흙벽으로 지었다는 점에서 계양산성의 핵심 건물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성내 북동쪽 완사면에서는 방형의 집수지와 자연암반을 다듬어 만든 제사유구가 확인되었는데, 집수지의 내부 구조와 인접지역의 관련 유적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이어졌다.<sup>26)</sup>



8차 발굴 조사범위 및 발굴된 대형건물지 유구

26) 『계양산성 8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거례문화유산연구원, 2016. ; 『계양산성 9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거례문화유산연구원, 2017.

#### 4) 계양산성의 연혁과 역사적 가치

삼국이 각축을 벌이던 고대사회에서 계양산성은 서쪽으로 서해와 강화도 일대, 서북쪽으로 한강 하류와 북동쪽으로 김포평야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때문에 한강 하류지역을 군사적으로 제어하고 주변의 넓은 평야지대를 통제하기 위해 계양산성을 축조·사용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 이미 폐허가 된 ‘고성(古城)’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계양산성을 처음 쌓은 시기와 그 주체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한 역사기록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하는 역사기록은 대부분 계양산성의 초축 시기와 주체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삼국시대에 쌓은 것’<sup>27)</sup>이라 전하고 있어 초축 ~ 사용 ~ 폐성에 이르는 산성의 연혁 대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때문에 계양산성의 세부 연혁과 역사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찍부터 문화재 지표조사(1997년, 2001년)와 9차례의 발굴조사(2003년~2017년) 등 학술조사가 진행되었다.

장기간의 학술조사를 통해 유적에 대한 조사자료와 1,000여점의 유물이 체계적으로 확보됨으로써, 계양산성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었고 그 평가를 둘러싼 학계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1차~3차

27) 『동국여지지』 (17C) 및 『증보문헌비고』 (대한제국기).

발굴조사에서는 성벽조사와 집수정 출토 목간의 탄소연대 측정값 등을 근거로 계양산성이 한성백제의 유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4차 발굴조사에서는 현문식 문지와 보축성벽, 왜성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5차~6차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때 조성된 후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다수의 건물지와 생활공간이 확인되었고, 7차 발굴조사에서는 후대에 ‘토심석축’ 기법으로 2개소의 치성을 추가 설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8차~9차 발굴에서는 두꺼운 판축 벽체를 지닌 대형 건물지와 제사유적, 집수지가 확인되어 계양산성이 통일신라시대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초축시기와 주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술조사 초기에는 1~3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성벽의 축조방식과 목간, 토기편, 원저단경호 등 백제계로 판단되는 출토유물을 근거로 한성백제 후기(5세기)에 축조된 산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28)</sup>

그러나 4차 발굴조사 이후 계속 이어진 학술조사에서 후기 신라(6세기)와 통일신라(8세기)의 것으로 보이는 유구와 유물이 다량 확인되면서 계양산성을 6세기 후반 한강유역으로 진출한 신라에 의해 축조된 후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이 지역의 ‘치소성(治所城)’으로 활용

28) 선문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 이형구, 「인천 계양산성의 성격과 역사적 위상」, 『인천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계양구, 2013.



계양산성과 주변의 고대산성(『인천의 고성 계양산성』, 검단선사박물관, 2015)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했다.<sup>29)</sup>

이러한 논란은 향후 학술조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점차 정리되어 나가겠지만, 계양산성이 한강 하류와 서해안 지역의 주도권을 둘러싼 삼국의 치열한 각축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이었고 주 사용시기가 통일신라시대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토심석축기

29) 발굴을 통해 확인된 체성벽의 가공방식, 보축성벽, 현문식 구조, 신라계로 판단되는 토기와 기와, 철촉 등이 6세기 신라에 의한 초축의 주요 근거로 제시되었다.(심광주, 앞의 글 ; 김길식, 『계양산성 출토 금속유물의 성격과 계양산성의 변화과정』, 『계양산성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계양구, 2013).

법'을 사용한 치성, 판축 벽체를 사용한 대형건물지 등 축성법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고대산성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고려시대까지 지방의 거점으로 활용되던 계양산성은 조선시대 들어 중앙집권적 국가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관방시설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고성(古城)'으로 퇴락해 갔지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란 중에는 잠시 개축해 사용되기도 했다.<sup>30)</sup>

그러나 조선후기 들어 묘지가 들어서는 등 퇴락이 가속화 되었고, 일제강점기에 '부내면 공동묘지'<sup>31)</sup>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분묘가 조성돼 '고성(古城)'의 면모마저 잃고 말았다. 다행이 1992년 인천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된 후 학술조사와 보존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점차 '인천을 대표하는 고대산성'으로서의 면모를 되찾아 가고 있다. 계양구에서 산성 인근에 건립 중인 '계양 산성박물관'까지 개관하면 계양산성 일대는 유적과 전시, 교육시설이 한데 어우러진 '역사체험의 장'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30) 임진왜란 중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부대가 명나라 군대에 대항하기 위해 성을 고쳐 사용했다는 전언이 있고 북문지 발굴조사에서 왜성의 흔적이 확인되기도 했으나 사실관계가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일제강점기의 기록인 『경기지방의 명승사적(京畿地方の名勝事跡)』, 조선지방행정학회(朝鮮地方行政學會, 1937)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전하나 잘못된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전장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31) 『조선성지실측도(朝鮮城址實測圖)』(1911~1924년).

## 2. 중심성지(衆心城址)

### 1) 중심성지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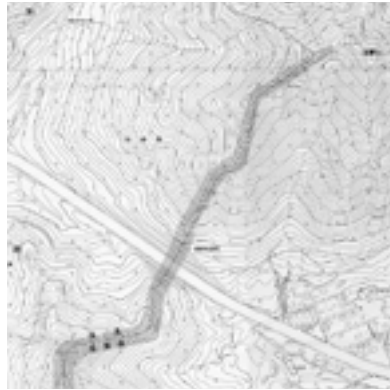
계양산 정상에서 경명현을 지나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1883년에 쌓은 중심성의 옛 터에 해당된다. 중심성은 경명현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이어지는 능선에 성을 쌓아 해안에서 도성으



중심성터

로 향하는 중요 관문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성곽이었다. 행정구역상으로 계양구와 서구의 경계를 이루는 경명현 생태통로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계양산 정상, 남으로는 중구봉에 이르는 능선의 등산로와 그 주변에 해당된다.

과거의 학술조사에서 현재 경명현 생태통로 자리에 성문의 초석과 사적비가 있고 남북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무너진 성돌이 산재해 있음이 보고되었으나, 오랜 기간 자연적·인위적 훼손이 계속되어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중심성의 면모에 대해서는 과거의 학술조사 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술조사의 시기와 여건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아, 성의 축조 당시 면모를 온전



중심성지 유적 추정 분포도(『인천북부종합학술조사』, 『중심성지 지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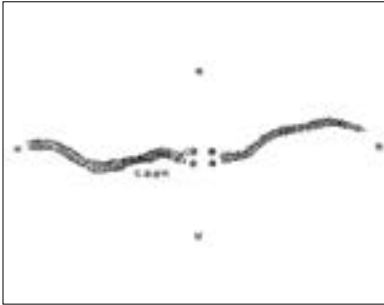
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의 추정만 가능한 상황이다.

## 2) 학술조사 결과와 주요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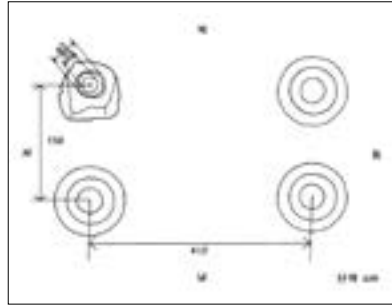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각종 기록에는 중심성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아 별 다른 학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심성지에 대해서는 1949년 10월 이경성 관장이 중심이 된 인천시립박물관 조사단이 최초로 학술조사를 실시하면서 유적의 현황이 비로소 처음 조사·보고되었다. 해당 조사를 통해 약 160m에 달하는 잔존성벽, 4.12m×1.5m 규모의 문루 터와 그 초석, 그 앞에 세워진 ‘사적비’와 비문 등이 확인되었고, 그 결과는 미발간 보고서인 『인천고적조사보고서』에 정리되어 전해지고 있다.<sup>32)</sup>

32) 이경성 저·배성수 편, 앞의 책, 162~164쪽.





중심성 실측도



공해루 실측도

이후 문화재관리국(1977)<sup>33)</sup>, 육군박물관(1998)<sup>34)</sup> 등의 조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보고되었다. 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계양사』 편찬과 관련한 2000년의 조사에서 길이 471m, 성문은 3m로,<sup>35)</sup> 2001년 선문대 고고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성의 길이 2km(양측 각 1km)로,<sup>36)</sup> 2003년 인하대박물관의 조사에서는 경명현 북쪽만 820m로 보고되는<sup>37)</sup> 등 정확한 추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 3) 중심성의 축성 배경

부평지역은 외적이 해안에 상륙하면 하룻만에 도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경유지를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으나, 오랫동안 왕실의 피난처인

33) 『문화유적총람』상,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34) 『경기도 김포시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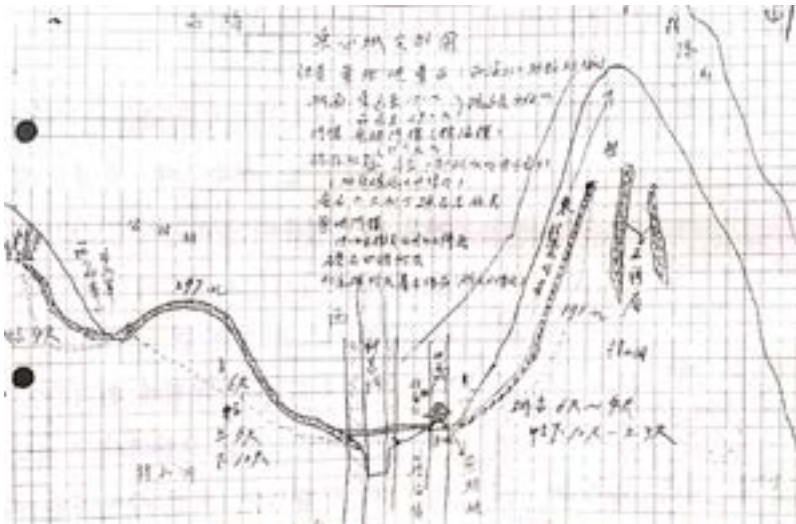
35) 『계양사(桂陽史)』,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0.

36) 『계양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2001.

37) 『계양산 중심성 지표조사 보고서』, 인하대학교 박물관, 2003.



1970년대의 경명현과 중심성지



「계양사」 수륙 실측도

강화도를 외곽에서 방어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었다. 부평이 도성방어의 전초기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일본과 인천 개항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1876년(고종 13) 이후부터였다. 어영대장 신정희는 “인천·부평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방어시설을 구축하고 진을 신설하라”는 어명에 따라 1878년(고종 15) 공사를 시작하여 1879년(고종 16) 7월 1일 제물포의 화도진(花島鎭)과 더불어 부평 해안에 연희진(延喜鎭)을 설치하였다.<sup>38)</sup>

이때 연희진을 설치한 것은 일본 등 열강의 군사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비가 부실했던 부평 해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육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개항으로 인해 해안 방어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임오군란 후 군제가 개편됨에 따라 연희진은 1882년 폐지되고 말았다. 그 후 제물포 개항에 따라 1883년(고종 20) 10월 경명현에 중심성(衆心城)을 축조해 유사시 부평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게 하고, 이듬해 1월에는 부평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해 경기 연안에 대한 군사적 방비를 강화해 나갔다.<sup>39)</sup>

#### 4) 축성 경위와 사적비

중심성의 축성 과정은 『중심성사적비(衆心城事蹟碑)』의 비문을 통

38) 『비변사등록』 260, 고종 16년 11월 15일.

39) 인하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22~27쪽.

해 전해지고 있어 우리나라 성곽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화강석 귀부(龜趺) 위에 오석(烏石)으로 된 비신(碑身)을 갖춘 ‘사적비’는 높이 151cm, 폭 46cm, 두께 25cm의 규모였다고 전한다. 본래 중심성의 공해루 서쪽에 세워져 있었는데, 1949년에 만국공원 내 인천시립박물관으로 비신을 이전했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의 포화 속에 비신이 소멸되어 지금은 이경성 관장이 조사한 비문의 내용과 현장에 남겨졌던 귀부만 전해지고 있다.<sup>40)</sup>

중심성지에 남겨진 귀부는 중심성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일한 유물이었으나,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1990년대에 서구청 구내로 옮겨졌다. 이 귀부(91×85×60cm)는 하나의 돌로 이루어졌는데, 머리부분이 훼손되고 비좌 부분도 심하게 파손된 상태이다. 등에는 넓게 비좌(74×56cm)를 마련하고 그 안에 비를 끼웠던 비공(19×44×10cm)이 있다.<sup>41)</sup>

귀부는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야외에 방치되어 있는데, 중심성과 관련된 유일한 유물임을 감안하면 적절한 보존대책과 활용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사적비’의 비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축성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성은 1883년(고종 20) 9월 29일 조칙에 따라 축성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상동과 하동의 부호가 60금을 공사비로 출연하고 마을주민들이

40) 이경성 저·배성수 편, 앞의 책.

41) 인하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45~46쪽.



현장에 남아 있던 귀부



서구청 화단으로 옮겨진 귀부

동원되는 등 부평부의 주민이 공사에 적극 참여하였다. 성은 한달만에 완공되었는데, 중앙부인 경명현에 문루를 두고 ‘경명문(景明門)’과 ‘공해루(控海樓)’<sup>42)</sup>라고 하였다. 성의 서쪽으로 장대를 조성하여 병사를 조련하였고, 군기(軍器)를 중수하였으며, 해안의 포대에 병사를 재배치하여 연안방비를 강화하였다. 성의 이름은 부민의 뜻을 모아 축조했다 하여 ‘중심성(衆心城)’이라 이름 붙였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 부사 박희방이 사적비를 세웠다.<sup>43)</sup>

## 5) 중심성의 철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의 계양산 일대 조사(1916년)와 총독부 산립국의 『조선성지실측도』(1911~1924년)에 중심성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중심성은 일제의 ‘읍성폐지령’에 따라 1914년경에 이미 철거되어 성곽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축성에 대한 전문성이 낮은 주민이 짧은 기간 동안 공사를 진행한 탓에 성곽이 견고하지 않아 성의 붕괴와 훼손이 급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 이후에도 문루 등 중심성의 핵심 시설이 잔존하던 경명현 정상부는 1980~1990년대 도로 개설과 확장 과정에서 높이가 30m 낮아지

42) 기록에 따라 문루의 명칭이 ‘망해루(望海樓)’로 전해지기도 한다.

43) 인하대학교 박물관, 앞의 책, 29~30쪽.

고, 성곽의 중심부는 도로공사 과정에서 모두 사라졌다. 현장에 남아 있던 사적비의 귀부도 이 과정에서 서구청으로 옮겨져 현재는 성이 있던 과거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해안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군사적 요충지인 경명현에 성을 쌓아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던 개항 후의 긴박한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 성곽사에서 드물게 축성의 목적과 주체가 분명히 밝혀진 성곽이라는 점, 축성의 재원과 공역을 모두 주민이 담당한 성곽이라는 점에서 중심 성지는 그 역사적 의미가 큰 유적이라 할 수 있다.

### 3. 봉수

#### 1) 축곶봉수

축곶봉수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54번지 일대 해발 79.2m의 구릉 정상에 위치한다. 현재 입지상으로는 주변이 대규모 주거단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서구의 연안 간척 이전에는 서해 연안이 인접해 조망이 수월했다. 봉수가 사용되었을 당시에는 서해 연안의 긴급한 군사 정보를 중앙에 알리기에 적합한 위치였다.

초축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에도 서해 연안을 방어하는 연변봉수로 계속 사용되었다. 축곶봉수는 조선의 봉수 노선상으로 제5거 직봉(直烽)에 해당한다. 남쪽의 성산(문학산)에서 봉수를 받아 북쪽의 백석산으로 응하는 노선이다. 폐지 시기는 1894년(고종 31) 전보통신의 등장으로 인해 전국 8로 봉수제가 폐지되면서 함께 혁파되었다.

축곶봉수에 관한 기록은 실록, 지리지 및 읍지, 고지도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이다.<sup>44)</sup>

이에 따르면 축곶봉수는 당시 부평도호부 소속의 유일한 봉수로서, 부평부 서쪽에 위치하며 인천 성산봉수의 신호를 받아 김포 백석산봉

\* 이윤혜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44) 烽火一處, 柵串在府西. 【南淮仁川城山, 北淮金浦白石山.】『세종실록』 권 148,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



수로 전하는 노선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에는 ‘축곶산봉수(杻串山烽燧)’로 기재되었으며 위치와 노선은 『세종실록지리지』 기록과 유사하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56), 『여도비지(輿圖備志)』(1856), 『대동지지(大東地志)』(1856) 등의 지리지에서도 축곶봉수 위치와 노선은 대동소이하다. 이밖에도 조선후기의 관찬 읍지인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1871),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1899)에서도 봉수노선 등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에는 부평부에서 축곶봉수까지의 거리와 노선상으로 축곶봉수 앞뒤에 배치된 성산봉수와 백석산봉수와의 거리가 기록되었다.<sup>45)</sup> 이에 따르면, 축곶봉수는 부치(府治)에서 서쪽 10리(里)에 위치하고 인천부 성산봉수, 김포군 백석산봉수와는 각각 25리 떨어져 있다. 현재 도량형으로 환산하면(1리=0.39km), 부평부에서 축곶봉수까지는 3.9km, 대흥봉수와의 거리는 각각 9.75km가 된다. 한편 경기지역의 봉수를 직접 답사해 현황을 조사한 김주홍의 연구에 따른 축곶봉수와 대흥 봉수와의 실제 거리는 성산봉수와는 11.5km, 백석산봉수와는 8km이다.<sup>46)</sup>

45) 杻串山烽燧 在府西十里 南應仁川府城山烽燧, 北應金浦郡白石山相距二十五里. 『여지도서』 경기도 부평부 봉수.

46) 김주홍, 『경기지역의 봉수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87쪽.



『대동여지도』에 표기된 봉수(성산-축곶-백석산)

봉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뿐 아니라 봉수군(烽戍軍)을 비롯한 보인(保人) 등 인력이 필수적이다. 『대전통편(大典通編)』(1785)에는, 연변봉수는 봉수대마다 봉수군 10명, 오장(伍長) 2명씩을 배치했다.<sup>47)</sup> 당시 5거화제를 사용했으므로 연변봉수에는 총 60명이 배치된 셈이다.

축곶봉수 역시 봉수 운영에 필요한 봉수군과 보인에 관한 기록이

47) 木眞山每所軍四人·伍長二人, 沿邊, 則每所軍十人·伍長二人, 內地, 則每所軍六人·伍長二人. 軍及伍長, 竝以烽戍近處居人差定. 『대전통편』 병전 봉수 봉수오거.

확인된다. 강화유수 김노진(金魯鎭)이 찬술한 『강화부지(江華府志)』(1783)에 따르면, 축곶봉수의 봉수군은 총 100명이다.<sup>48)</sup>

이후 박헌용(朴憲用)이 편술한 『속수증보강도지(續修增補江都誌)』(1932)에는 봉수군과 더불어 별장(別將), 감관(監官), 오장(五丈), 감고(監考)에 대한 기록이 확인된다. 당시 축곶봉수에는 봉수군 100명, 별장 1인, 감관 5인, 오장 5인, 감고 1인이 배치되었다.<sup>49)</sup>

봉수군은 위급한 적의 침입이 있을 때 중앙으로의 신호 전달뿐 아니라, 이를 주위 진보와 백성들에게 알려 대비케 했다. 그리고 봉수대의 거화 및 방비시설을 관리하고 거화에 필요한 재료 등을 확보했다. 봉수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고, 횃불과 연기를 피우기 위한 물품과 이를 보관할 시설이 필요했다. 특히 창고시설은 연료 또는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필수적이었다. 축곶봉수 역시 지난 2004년 정밀지표조사에서<sup>50)</sup> 연대, 연소실, 방호벽 외에도 추정 창고지, 건물지, 우물지 등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발굴조사를 통한 입증이 요구되지만, 봉수를 구성하는 주요 시설을 갖췄다는 점이 주목된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지리지』 및 『읍지』에 기록된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축곶봉수는 부평부 서쪽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인

48) 富平樞串烽燧【南應城山，北應金浦白石山 ○烽燧軍一百名】『강화부지』 봉수.

49) 富平樞串烽燧【南應城山하고 北應金浦白石山하니 軍百名，將一人，監官五人，五丈五人，監考一人이라】『속수증보강도지』 제3절 봉수 부묘망대(附瞻望臺).

50) 인천광역시 서구청·인하대학교 박물관, 『인천 축곶봉수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4.

천 성산봉수의 신호를 받아서 북쪽의 김포 백석산봉수로 전한다. 부평부와는 약 10~15리 떨어져 있으며, 축곶봉수에서 성산봉수, 백석산봉수와의 거리는 각 25리이다. 축곶봉수를 운영하기 위해 봉수군, 별장, 감관, 오장, 감고 등의 인력이 배치되었다.

다음은 고지도와 읍지에 수록된 지도에서 축곶봉수를 살펴보면, 먼저 1698년(숙종 24)에 편찬된 『부평부읍지』에 수록된 부평부 지도이다. 부평도호부가 있던 계양산 아래에 읍내(邑內)라고 표기되어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축곶봉수가 위치한다. 축곶산 정상에 축곶산봉수라고 기재되었다. 봉수는 석재를 반듯하게 쌓은 모양으로 묘사되었다. 이밖에도 산천(山川), 사계(四界)를 묘사하고 제언(堤堰) 및 교량(橋梁)이 다수 확인되며 도로는 붉은색으로 묘사했다.

1750년(영조 26) 쯔 편찬된 『해동지도』에 수록된 부평도호부 지도에서 축곶봉수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지도는 회화식 채색지도이며 지도 우측이 방위상으로 북쪽이다. 부평객사 서쪽에 축곶봉수가 위치한다. 산 정상에 석재를 쌓아 올린 모양의 봉수를 묘사했다. 특히 지도 상단에 ‘봉수 별장 및 봉수군 25명, 보인 77명(烽戍別將及軍並二十五名保七十七名)’이라고 기록되었다. 이밖에도 아사(衙舍), 객사(客舍), 향교를 표기하고 도로는 붉은색으로 묘사했다. 영종로(永宗路), 강화로(江都路), 김포로(金浦路) 등 도로명을 기재한 것이 특징이다.

1899년(광무 3) 편찬된 『부평군읍지』에 수록된 부평군 지도에서도



『부평부읍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해동지도』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축곶봉수가 확인된다. 부평객사 북서쪽에 축곶봉수가 위치하고 축곶산봉수라고 표기되었다. 산 정상에 봉수는 뾰족한 고깔모양에 붉은색으로 칠한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밖에도 지도에는 아사(衙舍), 봉수, 연못, 산성, 방면(方面), 교량(橋梁), 도로(道路), 천계(川溪), 산이 표기되었는데, 이들을 범례 기호로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축곶봉수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2004년 인하대학교박물관에서 정밀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 조사를 통해 연대, 연소실, 방호벽, 추정 창고지, 건물지, 우물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방



『부평군읍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호벽 내 추정창고지 주변에서 도기편, 백자편이 출토되었다. 이 조사로 축곶봉수의 잔존 현황이 파악되었으며 향후 발굴조사 및 정비 복원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밀지표조사 보고서의 조사내용을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51)</sup>

51) 인천광역시 서구청·인하대학교 박물관, 『인천 축곶봉수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4.

### 연대(煙臺)

방형(方形)의 석축 연대로 1기만 남아있다. 봉수제 폐지 이후 석재 반출 등 인위적인 훼손이 진행되었다. 특히 인근 민묘 조성에 연대의 석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변 수목이 석축에 뿌리를 내려 유구 훼손이 심각하다. 연대는 잔존 기저부 형태로 보아 하부는 추정 방형이고 상부로 갈수록 높이 3m 내외의 방형에 가깝게 축조되었다. 잔존 규모는 직경(동-서) 8m, 높이(동북쪽) 1.6~2m, 높이(남서쪽) 1~1.2m, 연대 하단부 둘레 약 27.5m이다.

### 연소실(燃燒室)

방형의 석축 연소실로 연대 상부 북쪽에 치우쳐 확인되었다. 조사 당시 남동쪽 석축이 온전히 남아있었다. 규모 13×16cm, 26×13cm, 52×44cm가량의 부정형 할석으로 축조되었으며 내부 바닥에는 잡석을 깔았다. 잔존 규모는 직경 약 동서 2.5m, 약 남북 2.2m이고 깊이는 약 0.7m이다.

### 방호벽(防護壁)

방호벽은 내지봉수에서 필수적인 시설로서, 연변봉수에서 방호벽이 확인된 예는 축곶봉수를 비롯한 울산 유포봉수, 부산 석성봉수, 아이봉수, 마산 가을포봉수, 진도 상당곶봉수, 보령 옥미봉봉수 등 드문 편이다.

축곶봉수의 방호벽은 토석(土石) 혼축으로 조사 당시 흙으로 덮인 상태였다. 전체적인 평면은 원형이다. 남쪽 방호벽은 민묘 조성시 봉분 후미를 방호벽 석

축에 덧대어 일부를 훼손하여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띠고 있다. 방호벽의 잔존 규모는 동서 26m, 남북 22.5m, 높이 0.8~1m, 상부폭 1.6m, 전체 둘레 85m 가량이다.

#### 추정 창고지

추정 창고지는 방호벽 내에 있는 연대 동북쪽의 평탄지에 위치한다. 조사 당시 민묘가 다수 안장되어 있어 창고지와 관련된 추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후 발굴조사를 통해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의 유구인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 추정 건물지

추정 건물지는 봉수 동쪽 하단 사면부에 남북 장축의 평지로 앞에 승학약수터로 불리는 우물지와 약 30m 거리를 두고 위치한다. 서쪽 단이 떨어지는 곳에 건물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강암 석재가 흩어져 있다. 조망상 동쪽 배후가 구릉지에 막혀 있어 남북으로는 시야 확보가 곤란하나 서쪽으로는 시야 확보가 용이하다. 건물지 역시 봉수제가 운영되던 당시의 관련 유구인지는 차후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낼 필요가 있다.

#### 우물지

우물지는 봉수 동쪽 하단 사면부에 ‘승학약수터’로 불리는 곳으로 추정된다. 조사 당시 동남쪽 구릉을 배후 삼아 시멘트로 마감하여 파이프를 통해 식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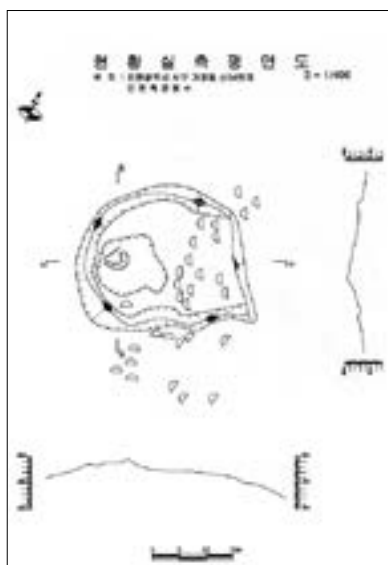
가능한 물이 배출되고 있었다. 평면 원형으로 파이프를 통해 물이 고이는 곳은 0.7×0.9m의 구덩이가 확인된다. 추정 건물지와 인접해 있으나, 봉수제 운영 당시 사용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 출토유물

추정 창고지에서 도기 구연부편이 지표상에서 채집되었다. 색조는 내외면 흑갈색, 속심 암자색이다. 구연부 끝이 수직으로 올라 있어 뚜껑이 올라가는 기형으로 추정된다. 잔존 기벽 두께는 0.5cm이다. 그리고 백자 저부편 2개가 채집되었다. 저부 내면에 모래받침이 있고 시유상태는 불량한 편이다. 잔존 기벽 두께는 0.4~0.5cm이다.



축곶봉수 및 주변지형현황 측량도



축곶봉수 평면도



축곶봉수 원경



축곶봉수 측량 조사



축곶봉수 연대



축곶봉수 연소실



방호벽



추정 건물지



추정 우물지



출토유물

위 조사결과 봉수의 중심시설인 연대와 방호벽이 조사되었고 봉수대 운영을 위해 축조된 시설인 추정 창고지, 건물지, 우물지 등이 조사되었다. 연대는 연변봉수에서 가장 특징적인 시설물로 거화와 망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한다. 축곶봉수는 방형으로 추정되는 연대와 연대 상부에 잔존 형태 방형의 연소실이 설치되었다.

봉수는 기본적으로 불을 다루므로 실화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한 방화(防火)와 짐승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호용 시설물이 필수적이다. 축곶봉수 역시 주변을 에워싼 토석 혼축의 방호벽이 조성되었다. 잔존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조사 당시 남쪽 방호벽이 훼손된 상태였다. 방호벽 석축에 민묘 봉분 후미를 덧대는 행위로 인한 것이다. 봉수제 폐지 이후 인위적 혹은 자연적인 훼손이 진행된 상태이다.

봉수군은 적의 침입을 알리는 임무와 함께 평상시에는 봉수대의 거화 및 방비 시설의 관리보수, 불이나 연기를 피울 재료 등을 확보해야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임무에는 다양한 물품을 보관해 둘 수장시설과 봉수군이 머물 공간 등이 요구된다. 축곶봉수에서도 추정 창고지와 건물지가 조사되었다. 지표조사에 그쳐 봉수와 연관성 및 자세한 현황은 밝히지 못했으나 차후 발굴조사를 통해 봉수 운영에 필요한 보조시설 등이 규명되어야 한다.

우물(샘)은 화재 진화 및 봉수군의 식수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축곶봉수에서 조사된 우물지는 봉수제 운영기에 사용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축곶산이 봉수 운영에 필수적인 우물(샘)이 조성될 만한 입지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물은 추정 창고지 지표상에서 도기편, 백자편이 수습되었다. 지표상에서 수습된 것이기 때문에, 봉수 운영기에 사용된 유물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시굴 또는 발굴조사가 요구된다.

## 2) 백석산봉수

백석산봉수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봉화촌의 해발 47m인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다. 경기지역 봉수를 직접 답사해 현황을 조사한 김주홍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지역 봉수 가운데 가장 낮은 해발이다.<sup>52)</sup> 하지만 과거 서해안 매립 이전에는 서해 연안이 인접해 조망이 수월했고 주변에 시야를 막는 높은 지형이 없어서 봉수 신호를 보내기에도 적합

52) 김주홍, 「경기지역의 봉수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쪽, 2000.



봉화촌 백석산 전경  
(인천서구문화원,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했다. 낮은 해발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형적 이점으로 봉수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백석산봉수는 조선의 봉수 노선상으로 제5거 직봉노선의 연변봉수이다. 남쪽의 축곶봉수에서 봉수를 받아 북쪽의 김포시 대곶면 울생리의 수안산봉수로 응하는 노선이다. 현재 봉수 터에는 다수의 민묘가 안장되었고 뒤로는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세한 현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백석산봉수에 관한 기록은 실록, 지리지 및 읍지, 고지도 등을 통해 살필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세종실록지리

지』(1454)이다.<sup>53)</sup> 이에 따르면 백석산봉수는 경기 김포현(金浦縣)에 있는 2곳의 봉수 중 하나로, 현의 서쪽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통진 약산, 남쪽으로 부평 축곶에 응한다. 약산봉수는 현재 김포시 대곶면 을생리 해발 146.8m의 수안산 정상에 위치한다. 시대를 달리하면서 수안성산봉수, 수안산봉수 등으로 명칭이 변화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북쪽으로 통진현 수안성산(守安城山)에 응하고, 남쪽으로 부평부 축곶산(紐串山)에 응한다고 했다.<sup>54)</sup> 이어 『여지도서』에서는 백석산봉수는 군의 서쪽 20리에 있고 남쪽으로 부평 축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0권, 경기 인천도호부 김포현 조.

53) 烽火二處, 主山, 【西准通津主山, 東准陽川開花山.】白石山在縣西, 【北准通津藥山, 南准富平紐串.】『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경기 김포현.

54) 白石山烽燧 北應通津縣守安城山, 南應富平紐串山, 『신증동국여지승람』 제10권, 경기 인천도호부 김포현 봉수.

꽃산, 서쪽으로 통진 수안산(守安山)에 응한다고 기록했다.<sup>55)</sup> 1리(里)를 0.39km로 계산하면 군에서 백석산봉수까지의 거리는 7.8km이다. 그리고 김주홍의 연구에 따르면 백석산봉수와 대응봉수와의 거리는 남쪽 축곶봉수와는 8km, 북쪽 수안산봉수와는 5.75km이다.<sup>56)</sup>

이후에 발간된 『경기지(京畿誌)』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1842~43), 『여도비지』, 『대동지지』, 『경기읍지(京畿邑誌)』(1871),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金浦郡邑誌及地圖成冊)』(1899)에서도 위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한편 『강화부지』와 『속수증보강도지』에서는 북쪽 대응 노선을 냉정산(冷井山)으로 기록하고 있다. 냉정산봉수는 김포시 김포읍 북변리 해발 150.3m의 장릉산(章陵山) 정상에 위치한다. 시대에 따라 북성산(北城山)봉수, 냉정산봉수로 불렸다.

특히 위 두 문헌에는 백석산봉수 운영에 필요한 봉수군과 보인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강화부지』에 따르면, 백석산봉수의 봉수군은 96명이다.<sup>57)</sup> 『속수증보강도지』에는 백석산봉수에 봉수군 96명, 별장 1인, 감관과 감고 몇 명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8)</sup>

이처럼 실록을 비롯한 지리지 및 읍지를 통해 백석산봉수의 간략한

55) 白石山烽燧 在郡西二十里 南應富平柎串山, 西應通津縣守安山, 『여지도서』 김포군.

56) 김주홍, 앞의 논문, 90쪽, 2000.

57) 金浦白石山烽燧 【南應柎串, 北應冷井山 ○烽燧軍九十六名】 『강화부지』 봉수.

58) 金浦白石山烽燧 【南應柎串하고 北應冷井山하니 軍九十六名, 將一人, 監官, 監考 各若干人이라】 『속수증보강도지』 제3절 봉수 부로망대(附瞭望臺).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석산봉수는 김포현 서쪽에 위치하고, 남쪽으로 부평 축곶봉수의 신호를 받아 북쪽의 김포 수안산봉수로 전한다. 김포현과는 20리 떨어져 있다. 봉수를 운영하기 위한 봉수군, 별장, 감고 등의 인력이 배치되었다.

다음은 고지도와 읍지에 수록된 지도에서 백석산봉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1750년경(영조 26) 편찬된 『해동지도』의 김포군 지도는 우측이 방위상으로 북쪽이고, 지도 중심에는 장릉(章陵)이 위치한다. 백석산 봉수는 김포군 관아 서쪽에 위치하며, 산 정상에 석재를 쌓아 올린 모양의 봉수와 상단에 붉은색의 ‘卜’ 모양의 불꽃을 묘사했다. 특히 지도 상단에 ‘각 봉수군과 보인은 아울러 205명(各烽軍保并二百五名)’이라고 기록되어 주목된다. 이밖에도 지도에는 김포 관아, 향교 등을 표기하고 붉은색으로 도로를 표시하여 도로명을 기재했다.

1872년(고종 9) 편찬된 『1872년 지방지도』에 수록된 김포군 지도이다. 지도 우측이 방위상으로 북쪽이고, 지도 중앙에는 장릉이 위치한다. 김포 관아는 상대적으로 동쪽에 편중되어 배치되었다. 백석산 봉수는 관아 북서쪽에 위치하며, 산 정상에 봉수 모양의 묘사는 없다. 이밖에도 지도에는 봉릉사(奉陵寺), 우저서원(牛渚書院) 등을 표기하고 도로를 붉은색으로 묘사했다. 특히 검단면 ‘안동포(安東浦)’가 표기되었고 서해에서 들어오는 물길을 표현했다. 서해에는 울도(栗島)가 표기되었으며, ‘본 군(김포군)의 경계는 이 섬 안까지이며, 섬 밖의 해로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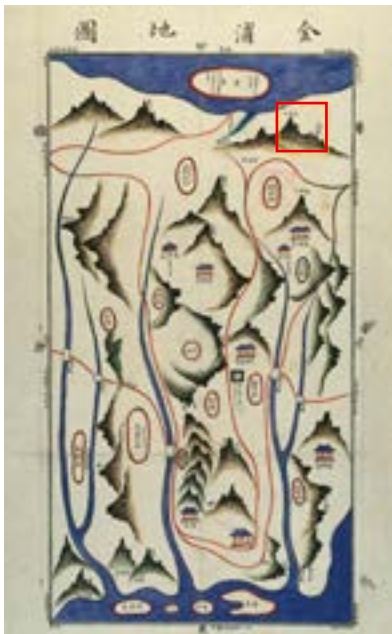


『해동지도』 「김포군」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평과 통진, 두 고을과 함께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기입했다.

1899년(광무 3) 편찬된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에 수록된 김포군 지도이다. 지도 우측이 방위상으로 북쪽이고, 지도 중앙에 장릉이 위치한다. 백석산 봉수는 관아 북서쪽에 위치하며, 산 정상에 붉은색 세로선 3개로 봉수 모양을 묘사했다. 이밖에도 봉릉사(奉陵寺), 우저서원(牛渚書院) 등을 표기하고 도로는 붉은색으로 묘사했다.

백석산봉수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지난 1998년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군사유



『1872년 지방지도』\_백석산봉수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소장)

적을 조사할 때 백석산봉수의 소재가 파악되었다.<sup>59)</sup> 당시 조사에서 봉화촌의 봉수지를 백석산봉수지로 추정했다. 그 근거로서 옛 기록의 김포 서쪽 20리 지점과 일치하며, 현재에도 이곳 마을 이름이 봉화촌으로 불리고, 현 봉수지와 구릉지대로 연결된 산에 백석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 지역이 남쪽의 축곶산 봉수지, 북쪽의 수안산 봉수지와 연결에 장애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현재도 백석산 봉수지 주변은 민묘와 수목·잡풀로 훼손되어 봉수와 관련한 유구를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백석산 봉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고고학적 조사 및 학술조사가 필요하다.

---

59)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김포시 군사유적』, 1998.

## 4. 연희진

연희진 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735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연희진이 있던 자리에는 해방 이후 서곶출장소가 설치되었다가<sup>60)</sup> 이후 주거단지, 학교, 공원이 들어섰다. 현재는 계명공원 안에 이곳이 연희진터였음을 알리는 표지석 만이 있을 뿐이다.

연희진의 설치는 19세기 후반 조선 조정이 양요와 운요호 사건 이후 인천·부평의 연안 방비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비롯되었다. 특히 강화도조약(1876)에 따라 조선의 개항이 결정된 후 개항 후보지 가운데 제물포가 포함되자 인천과 부평 연안의 방비 논의가 대두되었다.<sup>61)</sup>

연희진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연희진의 설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자. 1878년(고종 15) 8월 27일 조정에서는 인천·부평의 연안 방비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인천·부평의 연안에 포대를 설치하고, 어영대장 신정희(申正熙)가 공사책임자로 임명된다.<sup>62)</sup>

이듬해 7월 1일 인천과 부평지역의 역사(役事)가 마무리되었다는 무위소의 보고가 올라왔다. 이에 고종은 신설된 진의 명칭은 각각 화도진

60) 이경성, 『인천고적조사보고서』, 1949년에 따르면 조사 당시 서곶지청사(西串支廳舍)로 사용되었다.

61) 『일성록』 권197, 고종 14년 10월 15일.

62) … 仍敎曰: 仁川、富平等地, 有墩臺可設之處. 自本所有所經略, 而較諸江華, 尤爲要衝. 創鎮設墩, 以爲防守之節, 好矣. … 敎曰: 已自本所, 旬管此事, 而御將既經別將, 本無時原任之別, 則雖帶將任, 從便往來, 而日間下去, 商度形便也. … 『고종실록』 권15, 고종 15년 8월 27일.



연희진 터

(花島鎭)과 연희진(延喜鎭)이라 했다. 별장은 무위소에서 군관 중 임명하고 임기는 30개월로 정했다. 지구관(知穀官)은 교련관(敎鍊官) 중에서 적합한 자를 고르도록 했다.<sup>63)</sup> 곧이어 역사(役事)를 감독한 강화 우수 이하의 사람들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sup>64)</sup> 또 같은 해 11월 무위도통사(武衛都統使) 민겸호(閔謙鎬)의 건의에 따라, 연희진과 화도진을 해문(海門)의 요충(要衝)이므로 부근의 1개 면을 소속케 하여 독진(獨鎭)으로 삼았다.<sup>65)</sup> 하지만 1880년(고종 17) 인천의 개항이 결정되자 연안

63)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7월 1일.

64)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7월 11일.

65) 『승정원일기』 고종 16년 11월 15일.

允之  
 七月初一日癸酉武衛所以仁川富平砲臺與鎮倉城後啓教曰此兩邑截沿  
 重地海門要衝自來設備之論非止一再而尚此未遑猶欠邊備築墩設鎮今  
 既告竣矣仁川新設鎮稱以花島鎮富平新設鎮稱以延喜鎮別將玆作本所  
 自辟而與他鎮迥別則不可不擇差亦不可以數遽爪限以三十朔為定知  
 官教練官中擇其可堪者輪回差送諸般制置之節從常有傳今矣○初二日  
 ○初三日○初四日○初五日御春塘臺行日次儒生殿講通進士尹起榮鄭  
 閔朝玆直赴殿試○脈恤臚以漢城府民家屋額壓死亡恤典謹依別單判付  
 各部守內全家額壓九百三十三戶全家漂流三十一戶各錢三兩半家額壓  
 一百四十八戶額多完少二百戶完多額少七十七戶各錢二兩壓死壯每一  
 口四升布二足錢二兩分給啓○初六日以閑泳商為吏曹參判○初七日設  
 七夕製于泮宮賦生員趙東協直赴殿試○初八日召見德源府使金綺芳辭  
 陞也教曰德源今既開港不可與前日汗漫同也已輕修信使必詳知日本情  
 形及外交等節矣須善為措處毋至兩國齟齬可也且此地陸寢不遠定界時  
 暮為晚諭使之不近來往於所重之地也○初九日中國北洋大臣李鴻章勸

화도와 연희두 진을 새로 설치하다

(『고종실록』 권16, 고종 16년 7월 1일)

방비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곧 혁파된다. 결국 1882년(고종 19) 연희진은 혁파하고 화도진은 훈련도감으로 이속시키라는 전교가 내려진다.<sup>66)</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희진은 개항기 부평 연안의 방비를 목적으로 1878년 가을 포대와 진사(鎭舍)의 축조를 시작하여 이듬해 1879년 7월 1일 준공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부평 모일곶면을 넘겨받아 독자적인 군진(獨鎭)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1882년 6월 28일 결국 혁파되었다.

연희진이 폐지될 당시에 소속 포대도 함께 혁파되었는지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기연해방영을 부평에 설치하기 전인 1883년(고종 20) 12월에 기연해방의 군사와 포군의 조련(操練)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 사목(事目)으로 작성할 것을 지시한 기록이 확인된다.<sup>67)</sup>

기연해방영의 사목에 연희진의 소속 포대를 포함하여 강화수로 연변에 설치된 포대들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연희진 혁파 이후 소속포대들은 부평부 또는 기연해방영에서 관할하며 일정기간 존속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짧은 운영 기간에 더해 연희진을 비롯한 소속 포대에 관한 기록도 미비하다. 다만 그간 조사된 바에 따르면 5~7개의 포대가 축조되었을 것

66) 傳于姜薩日, 連喜鎭革罷, 花鳥鎭移屬訓鍊都監. 『승정원일기』 고종 19년 6월 28일.

67) 『고종실록』 고종 20년 12월 18일.



으로 추정된다. 1949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서곶지역의 인문지리와 문화유적 조사 후 보고한 『서곶지방지』에 연희진지와 소속포대인 용두포대지에 대한 조사내용이 간략하게 실렸다.<sup>68)</sup> 1959년에는 당시 인천시립박물관장이던 유희강에 의해 편찬된 『향토인천의 안내-고적·명승·천연기념물』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었다.<sup>69)</sup> 1973년 『인천시사』,<sup>70)</sup> 이후 간행된 인천시사에서도 개항 당시 인천·부평 연안의 방비 강화를 서술하면서 일부 언급하고 있다. 한편, 박광성은 인천개항과 관련한 연안 방비에 대하여 논하면서 연희진의 설치목적과 치폐과정을 언급하였고, 연희진에서 연희포대(龍頭砲臺)와 가정포대(佳亭砲臺)를 관할했다고 논했다.<sup>71)</sup> 이후 1997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간한 『서구향토지』에 따르면 연희진 관할의 포대는 연희포대 3좌, 갯말(포리·원창동) 2좌, 봉우재 1좌, 가좌동 1좌의 포대가 각각 있었다고 한다.<sup>72)</sup>

위 연구들을 정리하면 연희진에 소속된 포대는 연희동 용두산 인근에 용두포대(연희포대)라 불리던 포대가 3곳, 가정동 봉우재에는 가정포대라 불리던 포대 1곳, 원창동에 2곳, 가좌동에는 가좌포대 1곳이 각각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석축이라도 있었다고 전해지는 포대는 용두포대와 봉우재에 있었던 가정포대뿐이며, 나머지 포

68) 인천시립박물관, 『인천고적조사보고』, 1949. 이후 이를 정리하여 『인천의 고적』(1953년)에 수록.

69) 유희강 편, 『인천의 안내-고적·명승·천연기념물』, 1959, 17~18쪽.

70)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시사』 하, 1973, 708~709쪽.

71) 박광성, 1981, 「인천개항과 연안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11, 인천교육대학 기전문화연구소.

72)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향토지』, 1997, 63쪽.



대는 이름만 전할 뿐이다.<sup>73)</sup>

연희진과 소속 포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지난 2003년에는 인하 대학교박물관에서 연희진 포대지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인천 서구 가정동 69-1번지 봉오재 일대를 대상으로 연희진과 관할 포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조사에서 연희진 소속 포대를 설치할 만한 유력한 지역을 추정했다. 조사내용을 요약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74)</sup>

연희진은 부평에서 한양으로 이르는 육로를 차단하기 위해 부평의 해안지역에 설치된 무위소에서 임명한 별장이 파견된 군진이다. 즉 연희진의 주요 역할은 이양선이 부평 해안으로의 상륙을 저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예하에 해안 방비 시설인 포대를 설치했다.

연희진은 현재 인천 서구 연희동 735번지의 공원을 중심으로 연희우성아파트와 서곶중학교가 들어선 일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현장조사에서 도로 개설 및 공장지대, 주택 건축 등으로 인한 지형 훼손으로 인해, 포대지의 부속물로 보이는 유구의 구체적인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1918년 이후로 부평 연안을 측량한 고지도와 갯골 및 수로의 방향, 육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연희동에 3개소, 가정동에 1개소, 원창동에 2개소, 가좌동에 1개소 등 포대 설치가 유력한 지역을 추

73) 인천광역시 서구, 위의 책, 62~63쪽.

74) 인천광역시 서구청·인하대학교박물관, 『연희진 포대지 지표조사 보고서』, 2003.

정했다. 이는 입지상 포대지로 유력한 지점을 추정한 것일 뿐, 포대와 관련한 유구가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확정할 수는 없다.

서구 일대 포대지(추정)

포대	주소	특징
연희 1포대지	서구 경서동 343번지 일대	공촌천이 경명으로 초입까지 흘러드는 해문(海門)을 이름 공촌천 수로 방어. 포좌 방향은 남동쪽
연희 2포대지	서구 연희동 산 124번지 일대	공촌천 수로 방어. 포좌 방향은 서북쪽 연희 1포대지와 교차사격 가능
연희 3포대지 (용두포대지)	서구 연희동 423번지 일대	양끝 돌출부 사이로 만을 형성하는 지점에 설치 추정 공촌천 수로 방어. 포좌 방향 서북쪽
가정포대지	서구 가정동 69-1번지 봉우재 일대	연희[용두]포대로 잘못 알려짐 심곡천 수로 방어. 포좌 방향은 서남쪽 1929년 대유제방(大有堤堰) 준공 기념비 확인
원창 1포대지	서구 원창동 산 1~4번지 일대	심곡천 수로 방어. 포좌 방향 서북쪽 '환자곶뒷산' 이라 불리는 곳에 포대 설치 추정
원창 2포대지	서구 석남1동 산 125-1번지 일대	주변 공업단지 조성으로 원지형 상실 포좌 방향 서쪽 추정
가좌포대지	서구 가좌동 329번지 일대	간석오거리로 이어지는 수로를 방어 (현재는 육지화) 포좌 방향 남서쪽 추정



가정포대지



가정포대지 정상부



가정포대지 추정 잔존 석축



원창 1포대지



연희 1포대지



연희 2포대지



연희 3포대지



연희 3포대지 정상부 현대식 막사



대유제방 준공 기념비



원창 2포대지



가좌포대지

당시 조사에서 인천 서구 가정동 69-1번지 봉우재 일대 연희[용두]포대라 부르는 포대지는 가정포대가 잘못 알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연희진에 소속된 포대는 강화에서 부평 해안에 이르는 소규모 수로의 방비를 목적으로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소속포대들은 연희진이 헐파된 이후에도 부평에 설치된 기연해방영에 소속되어 그 기능을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연희진의 헐파 이후에도 외세가 부평을 통해 도성으로 진입하는 것을 대비해야만 했다. 따라서 연희진 폐지 1년 후인 1883년(고종 20)에 연희진에서 부평도호부로 가는 길목인 경명현에 중심성(衆心城)이 축조되었다. 그리고 1884년(고종 21)에는 부평에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하여 인천을 비롯한 경기 연안의 방비를 도모했다.<sup>75)</sup> 기연해방사무(畿沿海防事務)에는 민영목(閔泳穆)이 임명되었고 그는 해안을 방어할 병사와 포군(砲軍)의 조련을 관장했다.<sup>76)</sup>

기연해방영의 영문(營門)을 부평도호부에 설치한 이유에 대한 뚜렷한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연해 고을과 비교해, 도성과의 거리가 가깝고 중앙의 통제가 용이하다. 그리고 경기와 양서지역에 이르는 영문 관할 지역의 중앙에 부평이 위치한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해안 방어사령부가 후방 육지로 밀려 들어

75) 『고종실록』 권 21, 고종 21년 1월 4일.

76) 『고종실록』 권 20, 고종 20년 12월 5일.

온 것은 다른 한편으로 새로 신축한 중심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885년(고종 22) 3월 서울 용산의 만리창(萬里倉)으로 영문이 이설되기까지 부평지역은 경기, 황해, 충청의 수군과 육군을 통제하면서 경기 연안의 해방(海防)을 담당하는 전략적 기지로서 기능했다.<sup>77)</sup>

---

77)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2014, 346~348쪽.

## 【인천공보에 실린 관방유적】



### 연희진과 용두포대

이조 고종 3년 양요(洋擾) 이후를 연희동에 진을 설(設)하고 둔군(屯軍)을 치(置)하니 즉 호군(護軍)이라 갑신(甲申, 거금(距今) 66년) 이후로 국방이 해(解)함을 따라, 진(鎭)은 폐지되고 용두곶(龍頭串)에 포대(砲台, 연희진 부속(付屬)도 철회(撤回)되었다. 진지(鎭址)는 지금 서곶출장소 기지(基地)로 되고 용두포대(龍頭砲臺)는 연희 청년단 실습임야로 되었다.

### 축곶산(紐串山) 봉수대지(烽臺臺址)

축곶산 봉수대는 가정동 봉화현(烽火峴)에 있으니 봉수는 고시(古時) 외적의 침입을 원방(遠方)에 경고하는 신호니 산상(山上)에 토대(土臺)를 축(築)하고 대상(臺上)에 고(枯)고(드레)를 설(設)하고 고(枯)고 두부(頭部)에 거(炬)(화)를 장치할 통(桶)을 현(懸)한 후 거(炬)에 연화(燃火)하고 고(枯)고를 거상(擧上)하는 것이니 그 신호는 평상시에는 1거(炬), 견적(見賊)하면 2거, 적(賊)이 근경(近境)하면 3거, 적이 침경(侵境)하면 4거, 피아(彼我) 교전(交戰)하면 5거를 거(擧)하는 것이었다.

『인천공보』 1953년 5월 27일 4면, 서곶지방지⑦  
연희진지와 용두포대, 축곶산봉수대지

## 【인천공보에 실린 관방유적】

### 축곶산봉수(紐串山烽燧)



서곶(西串) 가정동(佳亭洞) 봉화현(烽火峴)에 있는 봉수(烽燧)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紐串山烽燧 南應仁川府城山, 北應金浦懸白石山”이라고 기록(記錄)되었고 또 『부평부읍지(富平府邑誌)』에 “南應仁川府城山, 相距二十五里, 北應金浦郡白石山, 相距二十五里”라고 기록(記錄)된 것으로 구축년대(構築年代)는 미상(未詳)하나 이조초기(李朝初期)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 봉수는 고시외적(古時外賊)의 침입(侵入)을 서울로 지원축지(地遠縮地)하여 경고(警告)하는 통신기관(通信機關)이다. 고(故)로 산정(山頂)에 토대(土台)를 구축(構築)하고 대상(臺上)에 길(桔)고(드래)를 설치(設置)하고 길(桔)고 두부(頭部)에 (회)를 장치(裝置)할 축(築)을 걸어는 후(後) 거에 연화(燃火)하고 길(桔)고를 올리는 것이다. 그 신호방법(信號方法)은 평시(平時)에는 1(一)거 견적(見賊)하면 2(二)거 적(賊)이 근경(近境)하며 3(三)거 적(賊)이 침경(侵境)하며 4(四)거 피아(彼我)와 전(戰)하면 5(五)거를 올리게 되었든 것이다.

『인천공보』 1954년 2월 17일 4면,  
인천의 고적·향토사를 위한 기본조사①

### 용두포대(龍頭砲台)



서곶출장소(西串出張所) 서방(西方) 해안선에 전기(前記) 포대와 같은 시기 같은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 인천의 각 포대와 아울러 강화(江華) 수도(水道) 입구를 동(東)에서 노력보고 있었다. 현재는 없어졌다.

### 연희진(連喜鎭)

이조(李朝) 고종(高宗) 3년 양요(洋擾) 이후로 서곶(西串) 연희동(連喜洞)에 진(鎭)을 설(設)하고 군대(軍隊)를 배치했다. 갑신년(甲申年)에 진(鎭)은 폐지(廢止)되었다. 진지(鎭址)는 현재 인천시(仁川市) 서곶출장소(西串出張所) 기지(基地)이다.

『인천공보』 1953년 9월 30일 4면  
인천의 고적·향토사를 위한 기본조사②

## 5. 조선시대 지지(地誌) 자료의 계양산성

### 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부평도호부」(1484년)

#### 【건치연혁(建置沿革)】

本高句麗主夫吐郡 新羅改長堤 高麗初改爲樹州 成宗置團練使 穆宗罷之 顯宗九年改知州事 毅宗改爲安南都護府 高宗改襟桂陽 忠烈王陞吉州牧 忠宣王二年汰諸牧改令名降爲府 本朝 太宗十三年例改爲都護府 世宗二十年降爲顯令二十八年後復.

본래 고구려의 주부토군(主夫吐郡)인데, 신라에서 장제(長堤)라 고치었고, 고려 초년에 수주(樹州)라 고치었다. 성종(成宗)이 단련사(團練使)를 두었다가 목종(穆宗)이 혁파하였고, 현종(顯宗) 9년에 지주사(知州事)라 고쳤다. 의종(毅宗)이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로 고치고, 고종(高宗)이 계양(桂陽)이라 개칭(改稱)하였다. 충렬왕이 길주목으로 승격시켰고, 충선왕 2년 여러 목(牧)을 없앨 때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감동시켜 부(府)를 만들었다. 본조 태종 13년(1413)에 예에 따라 고쳐 도호부로 만들고, 세종 20년(1438)에 강등시켜 현령(縣令)을 만들고, 28년에 복구하였다.



**【산천(山川)】**

桂陽山 在府北二里 鎮山 一名安南山.

계양산(桂陽山) 부 북쪽 2리 되는 곳에 있는 진산(鎭山)인데, 일명 안남산(安南山)이라고도 한다.

**【봉수(烽燧)】**

扭串山烽燧 南應仁川城山 北應金浦縣白石山.

축곶산봉수(扭串山烽燧) 남쪽으로 인천부(仁川府) 성산(城山)에 응하고, 북쪽으로 김포현(金浦縣) 백석산(白石山)에 응한다.

**【고적(古跡)】**

桂陽山古城 石築 周一千九百三十七尺 今皆頽落.

계양산고성(桂陽山古城) 돌로 쌓았고 둘레가 1천 9백 37척이다.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부평도호부」 고적

## 2)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1656)

【고적(古跡)】

桂陽山古城 石築 周一千九百三十七尺 相傳三國時古築 今皆頽落.

계양산 고성(古城) 석축 둘레가 1,937척이고 전하기를 삼국시대 축조 되었다 하나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 3) 『여지도서(與地圖書)』 「부평부」(1765년)

#### 【산천(山川)】

桂陽山 在府北二里 鎮山 一名安南山.

계양산 부의 북쪽 2리에 있고 진산이다. 안남산이라고도 한다.

#### 【고적(古跡)】

桂陽山古城[只有基址].

계양산고성 [다만 그 터만 있다.]

#### 【봉수(烽燧)】

扭串山烽燧 在府西十里 南應仁川府城山烽燧 二十五里 北應金浦郡白石山烽燧 二十五里.

축곶산봉수(扭串山烽燧)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남쪽으로 인천부(仁川府) 성산봉수(城山烽燧)에 응하고 25리다. 북쪽으로 김포군 백석산봉수(白石山烽燧)에 응하고 25리다.

#### 4) 『대동지지(大東地志)』(1862~1866년)

##### 【산천(山川)】

安南山 一云桂陽山 北二里 特立平陸.

산천 안남산 또는 계양산이라고도 한다. 북쪽 2리에 있다. 특이하게 평지에 있다.

##### 【성지(城池)】

古城 安南山東南 周一千九百三十七尺.

옛 성 안남산 동남쪽에 있고 둘레는 1,937척이다.

#### 5) 『경기읍지(京畿邑誌)』(1871년)

##### 【산천(山川)】

桂陽山 在府北二里 鎮山 一名安南山.

계양산 부의 북쪽 2리에 있고 진산이다. 안남산이라고도 한다.

【고적(古跡)】

桂陽山古城 石築周一千九百二十七尺 今皆頽落.

계양산 고성(古城) 석축 둘레가 1,927척이고 지금은 모두 무너졌다.

【봉수(烽燧)】

柎串山烽燧 在府西十里 南應仁川府城山烽燧 二十五里 北應金浦郡白石山烽  
燧 二十五里.

축곶산봉수(柎串山烽燧) 부의 서쪽 10리에 있다. 남쪽으로 인천부(仁川府) 성산봉수(城山烽燧)에 응하고 25리다. 북쪽으로 김포군 백석산(白石山) 봉수에 응하고 25리다.

## 6. 『인천고적조사보고서』<sup>78)</sup>의 계양산성

### 계양산성(桂陽山城)<sup>79)</sup>

『조선지지략(朝鮮地誌略)』 「경기도지부(京畿道之部)」에 “계양산(桂陽山) 석성(石城)은 석축(石築)의 둘레가 1,927척(尺)으로 지금은 황폐하다(桂陽山石城, 石築周一千九百二十七尺, 今皆荒廢).”라 기록됨에 같이 동봉(東峰) 석성산(石城山) 산정(山頂)을 사방으로 두루 감아 축성하였는데 3개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퇴락(頽落)되었다. 이 산성의 구축연대는 확실히 모르나 임진왜란 시의 고전장(古戰場)으로 권울(權慄)장군이 소서행장(小西行長)을 물리쳐 크게 승리한 곳이다.<sup>80)</sup>

### 중심성사적비(衆心城事蹟碑)<sup>81)</sup>

계양산 서쪽 경명현을 중심으로 동서로 봉(峰)을 타고 축성한 산성으로 광서 9년(1883) 10월 부사(府使) 박희방(朴熙房) 등이 축성하였다. 현재는 거의 퇴락되었고 성문인 망해루(望海樓)도 역시 파괴되어 지

78) 이경성(배성수 엮음), 『인천고적조사보고서』, 인천문화재단, 2012.

79) 계양산성의 축조연대와 관련하여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는 기록만이 있을 뿐이어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여지도(輿地考)」 14, 관방(關防) 2, 성곽(城郭) 2) 보다 상세한 축조연대는 알 수 없다. 다만 최근의 조사에서 후기신라 계통의 경질토기가 발견되고, 백제시기의 목간이 발굴됨에 따라 삼국시대 축조된 산성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이형구·김영수, 『계양산일대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선문대학교고고연구소, 2001.)

80) 이와 관련된 기록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어 단지 구전되고 있던 내용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81) 이 사적비는 1949년 7월 계양산에서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옮겼으나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멸실되었으며, 비석의 재질은 오석(烏石)으로 높이 151cm, 폭 46cm, 두께가 25cm였다고 전한다. (『계양산 중심성 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박물관, 2003).

금은 훌륭한 초석(楚石) 네 개만 원위치에 잔존하고 있고<sup>82)</sup> 고개를 넘어 서측으로 약 20m 아래에 중심성사적비(衆心城事蹟碑)가 있었는데 4282년(1949년) 7월 7일 인천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 동 비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銘文)이 있다.

桂陽山之西，有峴曰景明，卽沿海關防。不佞莅茲州，有志關防未就矣。是歲九月之小晦，仍朝飭經紀城堡，吏民便宜，樂爲之赴役。西築將台臺，爲鍊武之所，門因地名以景明，上建高樓曰，控海，城謂衆心者柳何義。今以家民之心，築城則，此國語所謂衆心成城也。故名以衆心者，豈不美哉。時重修軍器，諸斗炮士爲此城，固守之纂，訖役之日，府人請以事蹟，求以不文辭，略爲之紀，而持捐六十金，付之邑上下洞，以爲城堞，修葺之資焉。

光緒 九年 癸未十月 日 行府使朴熙房紀而書

董役 座首 朴周鳳 中軍 朴春東 將校 鄭鴻達 尹基煥 禹景雲 高昇煥 邑使 金鼎完 盧性燮 吳秉揖 蔡東權 林聲鶴 李鎭康 盧俊燮 韓建洙 姜培煥 崔啓昌 韓尙賢 洪應澤 方佑均 朴漢植。

上洞 □□學 朴□浩 金奎源 下洞 姜啓煥 金寬玉

82) 이 초석은 소실되어 현재 남아있지 않다.

### 중심성사적비(衆心城事蹟碑)

계양산(桂陽山)의 서쪽에 고개가 있어 경명(景明)이라고 하니 곧 바다와 접한 관문(關門)이다. 내가 이 고을에 수령으로 와서 관방에 뜻을 두었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이 해 9월 그믐에 조칙(詔勅)이 있어 성보(城堡)를 쌓음에 부민(使民)이 편하게 하여 기꺼이 부역하도록 하였다. 서쪽에 장대를 쌓고 병사의 훈련하는 곳을 삼고 이름은 지명을 따서 경명(景明)이라 하였으며, 고루(高樓)에 올라 이르기 “바다에 아뢰고 바랍니다. 중심(衆心)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어찌 옳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지금 부민(府民)의 마음으로 성을 쌓은 즉 이것은 우리말로 여러 사람의 마음으로 성을 쌓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중심(衆心)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이때 군기(軍器)를 중수하고 모든 나무의 포사(砲土)들로 하여금 굳게 지키는 방책을 삼게 했다. 역(役)을 마치는 날 고을사람들이 글을 잘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 사적(事蹟)을 부탁하니 특히 부(府)의 상동(上洞)과 하동(下洞)에서 60금(金)을 출연하여 성첩(城堞)을 쌓는 자금을 마련하였음을 간략하게 기록한다.

1883년(광서9) 계미 10월 부사(府使) 박희방(朴熙房)이 글을 짓고 쓴다.



동역(董役)

좌수(座首) 박주봉(朴周鳳)

중군(中軍) 박춘동(朴春東)

장교(將校) 정홍달(鄭鴻達), 윤기완(尹基煥),  
우경운(禹景漣), 고승환(高昇煥)

읍리(邑使) 김정완(金鼎完), 노성섭(盧性燮), 오병읍(吳秉楨),  
채동권(蔡東權), 임성학(林聲鶴), 이진강(李鎭康),  
노준섭(盧俊燮), 한건수(韓建洙), 강배환(姜培煥),  
최계창(崔啓昌), 한상현(韓尙賢), 홍응택(洪應澤),  
방우균(方佑均), 박한식(朴漢植)

상동(上洞) □□학(□□學), 박□호(朴□浩), 김규원(金奎源),

하동(下洞) 강계환(姜啓煥), 김관옥(金寬玉)

## | 참고문헌 |

### 중구 / 동구

『세종실록』

『효종실록』

『고종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강도지』(이형상)

『영종방영도지』

『영종진도지』

『대동지지』

『영종진읍지』

『한성순보』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영종도 누들유적』, 1999.

인하대학교박물관, 『신공항고속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4.

인하대학교박물관, 『수도권신공항건설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6.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인천의 선사문화』, 1997.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 (구)영종진지 지표조사보고서』, 2003.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 2018.

인천대학교 지역사회연구소, 『영종용유 민속조사 보고서』, 1995.

인천직할시립박물관, 『영종용유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4.

중구문화원, 『중구사』, 2010.

한양대학교박물관, 『영종도 문화유적』, 1999.

한양대학교박물관, 『용유무의관광단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0.

화도진문화원, 『화수동과 만석동의 기억』, 2018.

화도진문화원, 『동구사』, 2019.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재)국토문화재연구원, 『인천 문학산성 성벽 추정지 내 발굴(시굴)조사 약식보고서』, 인천 미추홀구청, 2019.

남동걸·오정윤, 『소래 삶의 터전』, 남동문화원, 2018.

백종오, 「인천연안의 고대 성곽에 대하여」, 『문화사학』 27, 2007.

삼성건축사 사무소, 『문학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1997.

이경성(배성수 역음), 『인천고적조사보고서』, 인천문화재단, 2012.

이영호, 『개항도시 제물포』, 민속원, 2017.

이종화, 『문학산(文鶴山)』, 1965.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문학산성 정밀 지표 조사 보고서』, 인천 남구청, 2017.

인천 미추홀구청, 『미추홀구 역사문화총서④ 도시마을생활사(관교동·문학동 편)』, 2019.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①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년』, 인천광역시, 2013.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사⑨ 인천의 문화사적과 역사 터(상)』, 인천광역시, 2018.

인하대학교 박물관, 『문학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광역시, 1999.

인하대학교 박물관, 『문학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인천 남구청, 2002.

인하대학교박물관, 『인천 장도포대지 지표조사 보고서』, 인천 남동구청, 2003.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 발굴조사단,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장도포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인천 남동구청, 2004.  
 (재)한국고고인류연구소, 『인천 문학산성 주변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인천 남구청,  
 2016.  
 황은수·손민환, 『이야기가 있는 인천 문화재 탐방길(남구)』, 인천광역시, 2015.  
 황은수, 『(구정소식지) 나이스미추-남구의 문화·역사이야기』, 인천 남구청, 2016~2017.

## 계양구 / 부평구 / 서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  
 『여지도서(輿地圖書)』  
 『경기지(京畿誌)』  
 『대동지지(大東地志)』  
 『대전통편』  
 『강화부지』  
 『경기읍지(京畿邑誌)』  
 『기전읍지(畿甸邑誌)』  
 『부평부읍지』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해동지도(海東地圖)』

『지승(地乘)』

『광여도(廣輿圖)』

『여지도(輿地圖)』

『1872년 지방지도』

『부평군읍지(富平郡邑誌)』

『계양산사적도(桂陽山事跡圖)』

『김포군읍지급지도성책』

『속수증보강도지』

『인천공보』

『大正5년 계양산 고성 등 조사보고서』

『근세오만분지일지형도(近世五萬分之一地形圖)』

『조선성지실측도(朝鮮城址實測圖)』

朝鮮地方行政學會, 『京畿地方の名勝事跡』, 1937.

이경성, 『인천고적조사보고서』, 1949.

이경성 저·배성수 편, 『인천고적조사보고』, 인천문화재단, 2012.

유희강 편, 『인천의 안내-고적·명승·천연기념물』, 1959.

인천시, 『인천시사』 하, 시사편찬위원회, 1973.

인천광역시 서구, 『서구향토지』, 1997.

인천서구문화원, 『검단의 역사와 문화』, 2009.

서구사편찬위원회, 『서구사』, 201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사(桂陽史)』, 2000.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계양산성』Ⅱ, 2011.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계양산성』Ⅲ, 2016.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계양산성』Ⅳ, 2017.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계양산성 8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6.  
 겨레문화유산연구원, 『계양산성 9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계양구, 『계양산성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2  
 계양구, 『인천 계양산성의 가치와 활용』, 2013.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적총람』 상, 1977.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계양산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2001.  
 선문대학교 고고연구소, 『계양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200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김포시 군사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8.  
 인천광역시, 『계양산성 지표조사』, 1997.  
 인천광역시 서구청·인하대학교 박물관, 『연희진 포대지 지표조사 보고서』, 2003.  
 인천광역시 서구청·인하대학교 박물관, 『인천 축곶봉수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2004.  
 인하대학교 박물관, 『계양산 중심성 지표조사 보고서』, 2003.  
 김주홍, 「경기지역의 봉수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광성, 「인천개항과 연안방비책에 대하여」 『기전문화연구』11, 인천교육대학 기전  
 문화연구소, 1982.

## | 인천의 관방유적 |

군구	관방유적	구분	주소
중구	제물량	군진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현 인천항 위치 추정
	(구)영종진터	군진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81번지
	(신)영종진터	군진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799번지 일대
	북성곶 북변포대	포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3, 5번지 일대
	북성곶 남변포대	포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1~44 일대
	제물 북변포대	포대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32번지 일대
	제물 남변포대	포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일대
	화도진	군진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138
동구	묘도포대	포대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일대 (대우종합 기계공장 안쪽)
미추홀구 연수구	문학산성	성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산 27-1
	수리동 왜성지(倭城址)	왜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산 21-1
	문학산 토둔	토둔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관교동 토성지	토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273
	문학산 제사유적	제사유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남동구	논현포대	포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1
	장도포대	포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13 외 2필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계양산성	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산10-1번지 일원
	중심성지	성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번지 일원 (경명현, 징매이고개 생태통도)
	죽곶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산54번지 해발 79.2m 구릉 정상
	백석산봉수	봉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봉화촌 해발 47m 구릉 위
	연희진	군진	인천광역시 서구 735번지 일원

## 인천광역시사 ⑩

### 『인천의 관방유적』 (상·하) 집필자

#### 상권

##### 총설

**임학성**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 중구/동구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황은수** 미추홀구 문화예술과 주무관

##### 부평구/계양구/서구

**견수찬** 계양구청 학예연구사

**이윤혜**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 하권

##### 강화군

**김상열**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차인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남달우** (사)인하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옹진군

**김춘식** 소래역사관 학예연구사

**김정훈**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촬영

**홍승훈** 스튜디오 씨 대표





인천광역시사 ⑩

## 인천의 관방유적 ㉠

---

발 행 일 2019. 12.  
발 행 행 인천광역시  
발 행 처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032) 440-8383  
인 쇄 (주)동양인쇄사 (032-432-9480)

---

발간등록번호 54-6280000-000427-10

ISBN 979-11-87854-21-0